

제6편

미래를 위한 도약

(1992~현재, 삼육대학교 시대)

제1장 삼육대학교 시대의 전개

(1992~1996)

1991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위생병원교회에서 개최된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말 삼육대학은 10개 학과에 1,756명의 학생들과 57명의 교수들과 39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병설전문대학은 448명의 학생들과 12명의 교수들과 16명의 직원들이 있었으며, 간호전문대학은 115명의 학생들과 7명의 교수들과 4명의 직원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학원생들 39명까지 합하면 학생수는 총 2,379명이었고, 교직원수는 총 135명(교수 76명, 직원 59명)이었다.¹ 이 숫자는 10년 전인 1981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이처럼 학생수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교육시설의 확충 및 학사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은 이제 단과대학 체제를 넘어서 종합 대학 체제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에 김홍량 학장은 총회 석상에서 삼육대학은 이제 “금년에 증설된 재활치료학과와 낙농자원학과 이외에 몇 개의 전공학과를 더 증설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발전을 도모하며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대학”을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공표하였다.² 이 비전은 이듬해부터 구체화되었다. 1992년부터 대학 2개 학과(재활치료학과, 낙농자원학과), 전문대학 2개과(자동차정비과, 관광영어통역과) 등 모두 4개 학과에 160명의 입학 정원이 추가되고, 신학대학원 정원도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며, 특별히 대학원에 신학박사학위 과정(정원 9명)이 신설 운영됨에 따라 삼육대학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의 4년제 대학 호칭변경 조치에 따라 삼육대학의 명칭을 삼육대학교로 개칭하고 종합대학 체제를 갖추으로써 미래를 위한 도약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제 그 감동의 삼육대학교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삼육대학교 시대 개막(1992)

개교 86주년을 맞이하는 1992년에 삼육대학은 병설전문대학과 더불어 19개의 전공학과와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을 설치 운영하였다. 특별히 대학원에는 신학, 기독교교육학, 약학, 화학 전공(1993), 신학대학원에는 목회신학 전공의 석사학위(M.Div.)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대학원의 신학과에 박사학위(Ph.D.) 과정을 설치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학 이사회는 대학의 명칭을 삼육대학교

¹“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제29회 총회보고서, 1991년도, 3-10.

²상게서, 2.

(Sahmyook University)로 바꾸고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여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1992년 3월 1일부로 삼육대학교의 시대를 열었다.¹

삼육대학교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종합대학으로서의 학사행정도 갖춰지게 되었다. 우선 학장의 칭호가 총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1990년 8월에 제7대 학장에 부임한 김홍량 박사는 1993년 3월 1일부로 그 직함을 총장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아울러 대학의 편제는 기존의 학과 체제를 조직상 학부제로 개편하여 신학부,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의약학부 등 네 개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학부 체제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표 72] 삼육대학교 학부 체제(1993)

학 부 명	계 열	학 과	정원	비 고
신학부	인 문	신학과	60	
인문사회과학부	인 문	영어영문학과	60	
		경영학과	50	
	예 능	음악교육과	40	
자연과학부	자 연	영양학과	50	
		생물학과	40	
		화학과	50	
		원예학과	40	
		낙농자원학과	40	
의약학부	자 연	간호학과	30	
		약학과	30	
		재활치료학과	40	
계		12학과	530	

전 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로부터 20년 전인 1972년에 송권 학장이 제4대 학장으로 취임했을 때만 해도 삼육대학의 규모는 4개 학과에 176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0년 전인 1982년에 이르러서는 9개 학과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단과대학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10년이 지난 1992년에는 드디어 12개 학과에 입학정원만 530명에 이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개교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약의 시대를 열었다.

삼육대학교 시대의 역사적 서막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건물은 선교90주년기념관이다. 1994년 한국재림교회의 선교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기공식을 거행한 이 건물은 대학교회와 다목적관으로 이루어진 기념비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이 1992년 11월 16일에 완공됨으로써 종합대학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² 삼육대학교가 출범되던 해에 대학교회를 헌당한 것은 매우

¹교회지남, 1992년 4월호, 27.

²교회지남, 1993년 1월호, 17.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삼육동에 터를 잡고 교육사업을 시작해 온 이래 독립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실로 40년만의 일이었다. 그 동안 대학교회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은 번번이 밀렸다. 그러나 이제 개교 90주년을 앞두고 이 땅에 재림교회가 세워진 선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삼육동 가족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게 되었다.¹

종합대학 체제와 더불어 미래 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학 지도자들은 비전을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계획들 가운데는 성취된 것들도 있었고, 성취되지 못한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설립과 같은 계획들은 성취되지 못한 채 개교100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² 그러나 평생교육원의 설치, 제2과학관과 실업관의 증축, 제3목장의 개발 등 많은 내용들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실현되었다.³ 삼육대학교의 시대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 러시아 삼육대학 개교(1992)

삼육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편제되던 해에 러시아에 삼육대학을 개교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러시아 삼육대학은 삼육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학생 선교대원들이 사할린에서 삼육한글학교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개교되었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자.

1) 러시아 선교와 한글학교의 개교(1991)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재림기별을 전한 선교 개척자는 재캐나다 교포인 유영길 목사였다. 유영길 목사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1988년부터 중국 장춘, 흑룡강성, 오상현, 영흥촌, 대련, 장산향, 라림진, 군가촌, 히르빈 등지에서 조선족에게 재림기별을 전하다가 러시아가 개혁개방 정책으로 문호를 열자 1990년부터 사할린과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척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⁴

유 목사는 사할린에서 선교를 하던 중 그곳 고려인협회 회장인 강정호 선생의 후원 하에 사할린과 하바로프스크에 한글학교를 열기로 하고 삼육대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¹김홍량, “개교 86주년을 맞는 삼육대학교,” 교회지남, 1992년 10월호, 부록.

²삼육대학교의 시대를 연 김홍량 총장은 개교 86주년을 맞이하는 대학의 현황들을 소개하면서 의학과 설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다. 상계서.

³상계서.

⁴유영길, 이름 없이 빛도 없이(서울: 시조사, 2002), 163.

자원선교사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제1기 자원선교사로 10명이 지원하여 사할린과 하바로프스크에 각각 5명씩의 선교사들이 배치되었다. 하바로프스크에 배정된 선교사들은 김석영(삼육대 신학과 졸업), 이남수(서강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구영애(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류광미(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조지숙(삼육대 신학과 졸업) 등이었고, 사할린에 배정된 선교사들은 임재명(삼육대 신학과 졸업), 최민호(삼육대 신학과 졸업), 김경자(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정승아(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정성철(중국 심양) 등이었다. 이들 중 하바로프스크 팀은 1991년 9월 30일에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였고, 사할린 팀은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사할린에 도착하였다.

유영길 목사는 한국연합회 총무부장 권만복 목사의 지도 아래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 한인회 문화원과 방송국의 협력을 받아 그해 10월 17일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다. 한글학교의 교장은 김석영 선교사가 맡았으며,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에서 동시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다. 하바로프스크에 파견된 제1기 선교사들은 1992년 2월 23일에 귀국하였고 사할린 선교사들은 8월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제2기 선교사들이 1992년 2월에 파송되었는데 하바로프스크에는 이병수(삼육대 신학과 재학), 김종렬(삼육대 신학과 졸업), 진정민(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소민진(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선미(삼육대 신학과 재학), 사할린에는 이문주(이화여대 간호학과 재학), 김은희(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최종호(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안미종(최종호 부인), 박경희(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등 총 10명이었다. 이 중 김종렬 선교사는 1992년 6월 22일에 사할린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한국연합회에서는 1992년 5월 20일에 러시아 선교를 위해 사할린에 김현수 목사를 선교사로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 결과로 김현수 목사가 동년 8월 1일에 입국하여 사할린 선교를 책임 맡게 되었다.¹ 이에 따라 사할린과 하바로프스크 선교가 분리되었고 유영길 목사는 하바로프스크 선교만 담당하게 되었다.

제2기 선교사들이 귀국하던 1992년 6월부터 제3기 자원선교사들이 또 다시 러시아에 입국하였는데 하바로프스크팀은 김기웅(삼육대 신학과), 이승옥(삼육대 신학과), 임태용(삼육대 신학과), 김연희, 최용석(부산 초급대), 박영애(초급대), 서은진(삼육대 음악교육학과 졸업), 지명훈(삼육대 신학과) 등 8명이 자원하였고, 사할린팀은 서지영(삼육대 원예학과), 김인철(삼육대 신학과), 김정임(삼육대 음악교육학과), 서진구(삼육대 신학과), 양철승(삼육대 신학과) 등 5명이 자원하였다. 이렇게 러시아 선교는 삼육대학교의 지원 하에 파송된 자원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글학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삼육한글학교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확대해 대학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대두되면서 러시아삼육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¹최이권, “러시아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보고서, 1994년도, 28.

2) 사할린 북방선교대학 설립(1992)

러시아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2년 4월이었다. 1991년 제29회 총회에서 한국연합회 총무부장에 선임된 김성원 목사는 북방선교 담당자로서 1992년 4월 12일에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글학교를 순방하였다. 이 순방 과정에서 한글학교 교사진 및 교민회측과 접촉하던 중 사할린에 신학교를 설립 하자는 제안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성원 목사는 이 제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연합회장 심태섭 목사)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드디어 1992년 10월 21일에 러시아 지역에 대학을 설립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가 있는 직후인 11월 2일에는 그해 9월 17일에 사할린에 들어 온 스쿠시 가족이 영어학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연합회에서는 사할린 선교를 담당하도록 파견한 김현수 목사와 김종열 자원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한글학교와 스쿠시를 중심으로 한 영어학원 등을 토대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할린 주정부와 교섭한 끝에 11월 12일자로 북방선교대학을 인가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사할린에 대학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할린 북방선교대학이 인가를 받은 지 약 일주일 후인 11월 18일에는 김현수 목사가 정식 임명을 받고 초대 학장에 부임하였다. 김현수 목사는 학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인가를 받은 신학과 학생 30명을 모집하여 12월 1일에 사할린북방선교대학 개교식 및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¹ 이후 북방선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사할린 선교가 본격화되어 신학과생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1993년 2월 7일에는 평신도를 위한 선교 교육원 등이 개설되자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설치한 북방선교대학을 한국연합회 해외선교부의 지도아래서 삼육대학교가 분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방선교대학의 명칭을 러시아선교대학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방선교대학의 건립을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² 이 5억 원의 기금은 삼육대학교(1억 5천만 원), 한국연합회(1억 원), 합회 및 기관들(1억 1천만 원), 개인후원금(김광호 1억 원, 고영호 4천만 원) 등으로 조성되었다.³

3) 러시아삼육대학 인가 취득(1993)

¹상계서.

²러시아선교대학은 인가과정에서 러시아삼육대학으로 최종 명칭이 확정되었다.

³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회의사록, 1993년도, 120.

북방선교대학이 삼육대학교의 분교 형태로 운영하도록 결의됨에 따라 운영자들은 북방선교대학을 러시아삼육대학으로 개명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1993년 6월 24일에 시 정부는 학교 개명 및 대학법인을 허가해 주었다. 아울러 8월 3일에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러시아삼육대학을 정식 교육기관(인스티투트)로 승격 인가해 주고 학부제를 허가해 줌에 따라서 본격적인 대학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 인가로 인해 러시아삼육대학은 신학부(신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 언어학부(한국어 영어과) 등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삼육대학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공원 구 관리소를 빌려서 학교를 시작했으나 학부제를 인가받고 그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8월 29일에 젯스카야 거리 8번가에 위치한 쉬폴라 릿세이에 사무실과 교실을 빌려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김현수 목사가 학장으로 수고하여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남겼다. 한국연합회는 러시아삼육대학을 삼육대학교 분교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학장을 삼육대학교에서 파송하기로 하고 결의를 거쳐 최이권 박사를 러시아삼육대학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9월 1일에 최이권 박사가 제2대 학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최이권 학장과 함께 대학을 운영할 보직자들도 결의되었는데, 부학장에 김현수 목사, 학생과장에 최운기 선생, 도서관장에 이승희 선생, 사감 겸 서무에 김종렬 선교사, 교무에 임동호 선교사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¹

러시아삼육대학의 보직자들은 1993년 8월 26일 삼육대학교 교직원 예배실에서 파송예배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8월 27일에 사할린 현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 6일에 신학과, 경영학과, 한국어 영어과의 입학생들과 더불어 제2회 입학식을 거행한 후 새롭게 개편된 대학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삼육대학의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73] 러시아삼육대학 학생수(1993)

학과	학년	학생수	성 별			민 족 별				
				남	여	재러한인	러시아인	기 타	재중한인	기타
신	I	28	수	20	8	17	8	1		2
			%	71	20	61	28	4		7
학	II	25	수	16	9	11	1		11	2
			%	64	36	44	4		44	8
경	I	31	수	16	9	11	1		11	2

¹교회지남, 1993년 10월호, 26. 한편 러시아삼육대학의 운영협의회도 구성되었는데 의장: 학장, 서기: 부학장, 위원: 학생과장, 사할린 영어학원 분원장, 사할린 중앙교회 담임목사, 사감, 러시아교회 담임목사, 러시아 사할린 한인교인 중 1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3년도, 120.

영			%	48	52	87	10			3
영 한	I	34	수	2	32	28	4			2
			%	6	94	82	12			6
합 계		118	수	53	65	83	16	1	11	7
			%	45	55	70	14	1	9	6

러시아삼육대학은 최이권 박사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역사의식의 확립, 민족의식의 확립, 종교의식의 확립이라는 3대 교육지표 아래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교육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최이권 학장은 러시아삼육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래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사할린 주 당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많은 지원으로 장래가 매우 밝은데다가 영어학원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어 선교대학으로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고하였다.¹ 아울러 교실의 확충 문제를 해결한 후 침구과(한의학과), 중국어과, 일어과를 증설한 후 연차적으로 러시아어과, 경제과, 법학과 등을 설치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진학할만한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자원이 넘쳐났던 당시 사할린의 사회적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² 결과적으로 이 꿈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삼육대학의 시작은 그런 청사진 아래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4) 러시아삼육대학의 운영 전개

학생수가 100명을 넘어서게 되자 기존의 장소에서는 교육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교육사업을 위한 부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3년 9월 30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정부로부터 학교 건축부지 2ha와 체육시설 부지 1.5ha를 무상으로 50년간 임대할 받아 건축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 1월 10일 다시 시정부로부터 농장부지 22.8ha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부지와 체육시설 부지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부지 역시 더 좋은 교육부지가 등장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고, 대학은 17ha의 대지 위에 세워진 보스톡 라겔(야영장)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부지는 사할린 시 중심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담한 구릉 지대로 약 5만 평(17ha)의 대지 위에 이미 숙소, 창고, 샤워실, 식당, 수영장 등이 구비된 보스톡 라겔(야영장)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교실만 지으면 곧바로 대학

¹최이권, “러시아삼육대학 보고,”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 1993년도, 29.

²상게서.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¹ 러시아 삼육대학은 1994년 7월 13일에 시정부와 30년간의 임대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9월 16일에 텃세이 쉬폴라에서 이곳 보스톡 라겔로 이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학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²

보스톡 라겔로 이전하기 전 최이권 학장은 대학의 교가, 교기 및 휘장의 제정을 계획하고 전문가들에게 작곡 및 도안을 의뢰하여 1994년 6월 6일에 러시아삼육대학의 교가, 교기 및 휘장을 확정하였다. 교가는 최이권 학장이 직접 작사한 가사에 삼육대학교 조문양 교수가 곡을 붙여서 만들었으며, 교기는 삼육대학교 전종범 교수의 도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그해 8월에는 한국연합회가 선교 90주년 행사에 러시아삼육대학을 공식 초청하였고, 그 행사에 참가한 35명의 대원들로 구성된 러시아삼육대학 합창단의 공연이 서울위생병원 교회 등에서 개최되었다.³ 이 공연과 행사 참여는 한국 재립교회에 러시아삼육대학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삼육대학은 보스톡 라겔로 대학을 이전한 후 새로운 신입생을 받아 9월 19일에 제3회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 당시 학생은 신학과 1~3학년 46명, 경영학과 1~2학년 50명, 영어한국어과 1~2학년 53명 등 총 149명이었으며, 교수는 22명, 직원은 학장을 포함해 14명이 봉사하였다.⁴ 학생들 중 약 60%인 86명은 기숙사에 거주했는데 학생들의 기숙사는 야영장 숙소로 사용하던 47개의 방(남 17, 여 30)을 활용하였다. 교직원들은 7채의 사택에 거주하였다. 특별히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삼육대학교와의 장학사업 연계를 통해 위탁장학생으로 선발되어 6개월씩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매년 2~6명의 학생들이 위탁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서울의 삼육대학교에서 학비와 숙식비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교육받게 되었다.⁵

[표 74] 러시아삼육대학생 위탁장학생(1994~1997)

연 도	학기	신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계
1994	1학기				
	2학기		2	1	3
1995	1학기		2		2
	2학기	3	2	1	6
1996	1학기	1	2	1	4
	2학기	1	2	2	5
1997	1학기		2	3	5

1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 1994년도, 28.

2상계서, 28, 29.

3한국선교 90주년 행사에 초청된 합창단원은 단장에 최운기, 지휘에 임동호, 단원은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상계서, 29.

4상계서, 30.

5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87.

	2학기		2		2
합	계	5	14	8	27

1993년 9월부터 제2대 학장으로 부임한 최이권 박사가 1995년 2월 28일부로 정년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1994년 12월 28일에 삼육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신학과 조대연 교수를 1995년 3월 1일부로 러시아삼육대학장에 임명하기로 결의(결의번호 94-620)하였다.¹ 이로써 조대연 박사가 제3대학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날 행정위원회는 러시아 선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의(결의번호 94-621)하고 협의회 의장에 조대연 교수(러시아삼육대학장), 총무에 정영수 목사(러시아 영어학원 분원장), 위원에 김형렬 목사(러시아 중앙교회 담임)와 러시아삼육대학 교수 전원, 학생선교사 대표 남녀 1명, 유영길 목사(하바로프스크 한인교회 담임) 등을 임명하였다.²

조대연 교수는 학장에 부임한 후 러시아삼육대학 건물로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대학건물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멜리안바 33번가에 있는 건물을 550,000 달러에 매입하고 대학건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대지 9,886m²(2,990.5평)에 건평 3,916m²(1,184.7평)의 3층짜리 건물로 북방선교대학 건물 설립기금 조성금으로 매입하게 되었다.³ 이 건물에서 대학을 운영하던 중에 금고를 도난당하는 등 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대연 학장은 대학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처럼 대학건물을 구입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던 조대연 교수는 1997년 2월 28일자로 영구 귀국하여 삼육대학교 교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한국연합회에서는 그를 대신하여 박문복 목사를 제4대 학장 겸 교목에 임명하여 러시아삼육대학을 운영하도록 결의(결의번호 97-15)하였다.⁴

이렇게 해서 1997년 3월 1일부로 박문복 목사가 학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파송된 선교사로는 부학장 송원무 목사, 총무처장 장영태 목사, 신학과장 도현석 목사, 교무과장 신철균 목사, 관리과장 이대진 선생, 학생과장 정만복 선생, 한국어연구소 이연희, 나옥주, 김화영 선생 등이 있었으며, 영어학원에는 원장 홍신진 목사, 원목 김지현 목사가 파송되었다.

박문복 목사는 1년간 학장직을 수행하였고, 그 후 1998년부터 송원무 목사가 학장직을 맡아 러시아삼육대학을 이끌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관 한인교회를 시무하던

¹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4년도, 344.

²상세서.

³지하실은 1,037.5m²(313.8평), 1층은 1,037m²(313.8평), 2층 920.7m²(278.5평), 3층 920.7m²(278.5평)으로 구성되었다. 당초 4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으나 가격이 인상되어 결국 55만 달러에 매입하게 되었다.

⁴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7년도, 5.

김철완 목사가 러시아삼육대학장으로 발령을 받아 2004년까지 학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별히 학교 건물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숙사 건물, 체육관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 및 현지의 법과 규정,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004년 5월 20일에 러시아삼육대학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유로아시아 지회로 이관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연합회는 향후 3년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건물, 사택, 집기, 기타 모든 시설들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한인교회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한다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해서 러시아삼육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 부족한 유로아시아지회로 양도해 주었다.¹ 이렇게 해서 삼육대학교는 10년 동안 유지해 온 러시아삼육대학의 운영을 정리하게 되었다.

3. 평생교육원 개원(1993)

삼육대학교 내 평생교육원도 종합대학 체제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평생교육원은 “참 교육은 전인교육이어야 하며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이념과 함께 시작되었다.² 당시 정부가 평생교육법 체계에 따라서 강조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설립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이에 삼육대학교는 1993년 2월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3월 2일부터 150명의 원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작하였다.³ 개설된 첫 학기에 시작된 교육 과정으로는 평신도신학, 건강봉사자 훈련, 컴퓨터교육, 생활미술의 교육 등이 있었으며, 클라임스 박사가 초대 원장을 맡았다.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에 주소를 두고 개원한 평생교육원은 평신도 지도자와 선교사 양성과정에 중점을 둔 신학과정을 통해 평신도들에게 선교 이론과 실습을 가르쳤으며, 뉴스타트 건강법칙을 훈련하는 건강 훈련과정과 컴퓨터, 생활미술 등의 과정을 통해 일반인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1993년 5월 4일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주제로 양질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심포지엄과 더불어서 평생교육원은 다목적관에서 평생교육원 학습전시회, 원우회 발대식, 스승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여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교육 활동을 보여주었다.⁴

¹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2004년도, 73.

²화잇, 교육, 13.

³교회지남, 1993년 5월호, 25.

⁴삼육학보, 1993년 5월 17일자, 1.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부는 학습전시회로 운영되었는데 평신도 신학 학습 자료전시와 뉴스타트 생활방식 전시 및 컴퓨터교육 실습작품과 미술, 사진반의 작품 전시가 있었다. 특별히 이 전시 작품들 가운데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 우수 작품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성경학습법의 바울팀과 건강봉사자 훈련의 식단전시팀이 당선되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는데 클라임스 박사의 “학습질문의 질적향상”과 백현기 박사(전금호공대학장)의 “연구과제의 질적향상,” 주영숙 박사(덕성여대 평생교육원장)의 “미래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강연이 진행되었다.¹ 3부에서는 원우회 발대식 및 스승의 날 행사도 진행되었는데 평생교육원 원우회의 초대 회장에는 이대영(평신도신학), 임원에는 이규호(건강봉사자 훈련), 정수용(평신도신학), 김복희(평신도 신학), 서동숙(평신도신학), 강미령(평신도신학), 구인회(생활미술), 이상두(생활미술), 안명희(컴퓨터교육) 등이 선정되었다.²

평생교육원은 개원하여 첫 학기 이후 하기강좌를 통해 평신도신학과 뉴스타트 건강훈련 과정 및 생활미술, 컴퓨터교육 과정 등에 이어서 생활음악과 사회·교육·교양 과정 등을 신설하여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별히 사회·교육·교양 과정에서는 해외연수 과정도 만들어 1993년 12월에 제1회 해외연수 과정(19일~28일, 필리핀, 홍콩)이 운영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94년 3월 7일에 제1회 수료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다목적관에서 거행된 첫 수료식에는 평신도신학 전공 3명, 건강봉사자훈련 전공 3명, 생활미술 전공 1명 등 총 7명이 수료장을 받고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평생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점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육과정이 되었다.

1994년 2학기부터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과정 수료 후 영유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매우 요긴한 과정이었다. 총 모집인원 100명의 야간제로 운영되는 이 보육교사 양성과정으로 인해 평생교육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배움터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³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이어 1995년에는 재활치료학과의 도움을 얻어 건강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1996년에는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상담사 과정도 개설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발전하였다.⁴ 1997년에 이르러서 평생교육원은 사회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평생

1상계서.

2상계서.

3삼육확보, 1994년 8월 24일자, 3.

4“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0회 총회보고서, 1995년도, 2-4.

교육사업의 발전을 꾀했다.

4. 대학식품 독립 운영(1993)

삼육대학우유가 1987년에 실업부에서 독립하여 ‘대학식품’이라는 기관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은 전 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이렇게 독립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대학식품은 직원 100여 명에 매출액만도 80억 원에 이르는 중요 수익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는 대학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1987년 12월에 개최된 한국연합회 제28회 총회에서 대학식품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었지만 대학식품의 기관장은 대학의 학장 또는 총장이 겸임하였고 대학식품 총무를 별도로 세워 이 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¹

이처럼 삼육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던 대학식품이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완전히 독립된 전문 식품공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1993년 12월 10일 대학식품을 대학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대학식품기관장인 사장에 정택용 장로를 선임하고, 대학식품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에 의해 재구성된 대학식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연합회장, 서기에 대학식품 사장, 위원에 연합회 총무부장, 재무부장, 교육부장, 서중한합회장, 삼육대학교 총장, 삼육식품 사장, 평신도 대표 2명(고영호 장로, 박광수 장로)이 선임되어 대학식품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²

대학식품의 독립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이 시기는 대학식품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대학식품의 발전은 곧 삼육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삼육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대학식품의 발전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대학식품의 독립 운영은 대학과 식품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식품은 몇몇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다. 우선 파스퇴르 우유가 등장하여 우유시장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삼육우유가 내세우고 있던 건강하고 깨끗한 우유의 이미지는 파스퇴르우유 등 신생 우유 제품들의 선전에 밀려 우유 시장이 다분화되고 있었다. 여기에 1988년에 이상구 의사의 KBS 뉴스타트 강의를 시

¹제28회 총회에서 선임된 대학식품 이사회는 이사장: 연합회장, 서기: 삼육대학장, 이사: 연합회 총무부장, 재무부장, 교육부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식품은 총무를 선정해 실질적인 관리 운영을 맡겼다. 첫 해에 대학식품 총무는 정용근 목사가 선임되었다(결의번호 87-363).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사록, 1987년도, 233.

²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3년도, 295-296.

작으로 건강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유제품에 대한 사회적 기피현상도 대학식품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다양한 음료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음료 시장의 다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대학식품은 경영합리화와 자체적인 발전전략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대학식품이 대학 부속기관으로 독립하여 단독기관으로 운영하도록 결의된 데에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암튼 이렇게 독립 기관으로 분리된 이후에 대학식품을 이끌었던 임원들은 다음의 역대 대학식품 사장 명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¹

[표 75] 역대 대학식품 책임자

No.	이 름	기 간	직 명	비 고
1	K. L. Mitchell	1949~51년, 54~55년	실업부장	
2	손재목	1952~53년, 56~58년	실업부장	
3	G. S. Haley	1959. 5~1981. 3	실업부장	
4	장일현	1981. 3~1984. 3	실업교육부장	
5	황영진	1984. 3~1986. 3	실업교육부장	
6	백문수	1986. 3~1987. 12	실업교육부장	
7	정용근	1988. 1~1993.12	대학식품 총무	
8	정택용	1993.12~1996. 1	대학식품 사장	
9	이재춘	1996. 1~1997. 3	대학식품 사장	
10	박광수	1997. 3~1997. 8	대학식품 총무	
11	전명호	1997. 9~2000. 5	대학식품 총무	
12	김창수	2000. 5~2004. 2	대학식품 사장	

1993년부터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대학식품은 국내 우유시장의 도전으로 서서히 매출액이 감소하다가 1997년에 IMF구제금융 체제를 맞이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연합회와 삼육대학교는 대학식품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1998년 3월부터 기관을 다시 대학 부속기관으로 귀속시켜 총무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연합회 및 대학식품 운영위원회의 강력한 뒷받침과 총무체제로 전환 운영된 대학식품 자체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으로 경영상황은 호전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지회의 적극적인 용자와 지원, 직원들의 헌신 등으로 많은 부채를 해결하고 폐업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²

그러나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2000년 이후에 적자상황이 점차로 심화되어 매월 3~4천만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운영위원회에서는 2003년 말부터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정상화 및 회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드디어 2004년 2월 26일 종무예배를 끝으로 생산 라인을 중지하고 말았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91.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0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4.

다.¹ 폐업 당시 총장이었던 남대극 박사는 “6.25 동란 직후의 어려운 시기로부터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학의 재정을 크게 돕던 이 기관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하였으나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로 그때의 역사적 상실감을 표현하였다.² 이렇게 해서 삼육동에 대학 부지를 마련한 이래 50여 년 동안 줄곧 운영되어 오면서 대학 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남긴 대학우유 공장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우유처리실은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 3월 2일부터 노원어린이 영어교실 등 영어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게 되었다.³

5. 교육지원시설의 확충(1994~95)

대학의 승격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삼육대학교 체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이미 설명한 대로 1993년 초에 일반인들을 위한 배움터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정착하게 될 평생교육원을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보도실의 매경스카우트 개설, 정서 함양을 지원할 시청각 및 음악자료실 외에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언어교육원과 전산교육원도 이때 개설되었다. 이러한 교육지원 시설의 확충은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1) 취업보도실, 매경스카우트 개설(1994)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1994년부터 취업보도실에 매일 경제신문사의 매경스카우트(SCOUT)가 개설되었다. 매경스카우트는 매일경제 종합취업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시스템에 들어 있는 주요 정보 내용들로는 기업정보, 채용정보, 학교안내 및 졸업예정자 정보, 인력관리 담당자정보, 취업뉴스 및 전략, 취업준비, 자격시험 안내, 유학 안내정보, 여성취업 안내, 취업서적정보, 적성검사, 정규직 구인 및 구직정보, 아르바이트 구인 및 구직 정보, 전자사서함 등이 있었다.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종합취업정보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종합 취업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인과 구직자간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¹삼육대신문, 2004년 3월 29일자, 7.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2-4.

³삼육대신문, 2005년 3월 2일자, 7.

⁴삼육학보, 1994년 8월 24일자, 5.

구직활동이 좀 더 쉬워졌다. 둘째, 취업담당자 또는 인력수급 관계자들 간에 컴퓨터를 통한 의견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전자사서함 기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셋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는 취업과 관련된 54개의 세부정보에 입각해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¹

매경스카우트가 개설될 당시 대학 내 취업업무는 학생처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경스카우트가 개설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취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1994년 9월에 학생회관 2층에 2평 규모의 취업보도실을 개설하고 전담 직원(직원: 정상선)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후 이송철, 이기영 주임 등이 취업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일하던 중 1997년 9월 학생서비스센터가 신설되면서 취업보도실은 취업정보실이 되었고, 학생서비스센터(101호) 옆인 바울관 102호에 사무실을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취업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1월에 학생서비스센터와 취업정보실이 취업정보·서비스센터로 확대되었다.

2) 시청각 및 음악자료실 개관(1994)

1994년에 나타난 삼육대학교의 가시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앙도서관의 변화였다. 1993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1994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까지 도서관의 구조 및 내용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열람실 중심의 1층과 자료 및 열람실이었던 2, 3층을 전폭적으로 개조해 1, 2, 3층 모두 종별 도서자료들을 배치하여 자료실과 열람실을 통합하였다. 이로 인해 순수자습실 및 열람실은 지하에만 배치하게 되었다.² 이렇게 도서관 구조를 바꾼 것은 자료가 많아지고 그 자료들을 동일 종류의 자료들로 배치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도서관에서는 2층의 자료 일부를 3층으로 올리고 2층의 한 공간을 활용하여 시청각 및 음악자료실로 꾸몄다. 일명 T.M.C.(The Media Center)로 명명된 이 자료실은 도서관 2층에 소장되어 있던 교육자료와 재미교포 김광석 선생이 기증한 레코드 1,000매, 전용근 선생이 기증한 레코드 약 800매 등을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1994년 9월 2일 개관하였다. 이렇게 개관된 자료실은 “음악자료 및 교육 매체가 되는 모든 시청각자료와 기기들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시청각교재와 교구를 구입하고 관리 및 대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교육

¹상계서.

²삼육학보, 1994년 4월 7일자, 3.

방법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운영되었다.¹

시청각자료실에는 개인들이 시청각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작은 연구실에 슬라이드, OHP 룸(1실)과 각 방마다 2인이 시청 가능한 VCR 룸(5실), CDV, LDV 룸(3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오픈 공간에 비디오 부스 10개가 마련되어 있어 각 부스에서 비디오와 카세트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 다중음악감상 4세트를 비치해 카세트테이프와 CD, LD, LP를 3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²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마련된 시청각 및 음악자료실은 월~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개장되었으며, 모든 자료들은 자료실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였고 외부로의 대출은 불가능하였다. 이용자들은 자료실 내에서 자료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받아서 기기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었다.³ 이곳에 비치된 많은 영상 및 음악자료들은 학생들에게 귀중한 자료들이 되었다. 특별히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이 자료실을 통해서 음악 감상 및 악보 복사 등 교육 및 연주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할 수 있어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하였다.⁴ 하지만 이 자료실은 단지 특정학과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다.

한편 이 자료실의 개관식에는 선교90주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재림교회 세계 대총회장 로버트 폴켄버그(Robert Forkenberg)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폴켄버그 목사는 이튿날인 9월 3일에는 대강당에서 삼육대학교를 방문해 기념 설교도 했다.

3) 언어교육원 개설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교육원의 개설은 1995년 2월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2월 8일에 개최된 대학행정협의회에서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삼육영어학원 분원을 설치하기로 의논하고 김일목 교수를 영어회화 교육 책임자로 결의하였다. 이에 김일목 교수는 삼육외국어학원과 협의를 통해 대학에 영어학원 분원을 설치하고 2명의 교사를 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은 2월 16일 행정협의회를 통해 사무엘관 233강의실을 어학실습실로 개조하고, 221강의실과 222강의실을 교실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본격적인 어학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환경을 준비한 후 2월 20일 이병선 선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그해 신학기에 161명이 등록을 하였다. 이에 3월 6일 개원하고 정식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⁵

¹삼육학보, 1994년 8월 24일자, 3.

²상계서.

³상계서.

⁴상계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삼육외국어학원 분원 형태로 운영되던 어학교육 과정은 그해 2학기 들어서 삼육외국어학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대학의 독립된 기관인 어학연수원으로 개설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8월 2일에 거행된 대학행정협의회회의의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 행정협의회에서는 영어교육기관을 어학연수원이란 이름으로 독립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원장에 김일목 목사를 선임하여 2학기부터 전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원 첫 회에 189명이 등록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204명이 등록하여 영어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어학연수원은 10월 6일에 영어 명칭이 I.L.C.(International Language Center)로 결정되었고 12월 1일에는 한글 명칭도 언어교육원으로 개칭되었다.

대학 내에 언어교육원을 개설한 것은 전교생의 어학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교육원 개설 목적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기관은 어학을 통해 국제적인 인물을 양성하고, 어학 특성화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며, 영어교육을 통한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설되었다.¹ 특별히 대학은 어학연수원의 1~2단계와 3~4단계를 낙제 없이 통과했을 경우와 6~7단계를 낙제 없이 통과했을 경우 각각 교양영어 2학점과 4학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언어교육원을 통한 영어교육 특성화 전략을 세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영어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운영초기에는 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들도 발생하여 이 교육원이 더욱 더 확대 발전해야 할 과제도 있었다. 이에 1996년부터는 신입생들을 위해 필수 교양과목(2학기)으로 I.L.C.를 개설하여 1주일에 6시간씩 영어회화 및 어학실습(Lab) 교육을 하도록 했으며, 2학년들은 토익 등 실무 영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언어교육원은 이런 과정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² 하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던 중 향후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무엘관 및 구우유처리장을 언어교육원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언어교육원은 김일목 목사가 초대원장으로 수교하였으며, 1996년 1월 1일부로 안덕기 교수가 제2대 원장, 오충환 목사가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언어교육원에서는 일반적인 영어교육 외에도 영어말하기 대회, 여름방학 재교육 클래스, 영어몰입코스 등을

⁵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06.

¹삼육학보, 1995년 9월 28일자, 3.

²삼육학보, 1996년 4월 30일자, 3.

운영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학과정도 개설하는 등 폭넓은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한편 언어교육원이 새롭게 운영됨에 따라서 1994년 9월 16일에는 영어교회도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김일목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해롤드 E. 설 교수 사택에서 진행되었다.¹ 김일목 목사에 이어 1996년부터는 오충환 목사가 담임을 맡았고, 1997년 3월 8일에 소망교회로 명칭을 바꾸어 대학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4) 전산교육원 개설

언어교육원과 더불어 전산교육원도 12월 1일에 개원되었다. 대학 내에 전산실이 최초 설치된 때는 1986년 3월이었다. 이때 엘리야관 1층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 담당에 오덕신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듬해인 1987년 11월에는 새로 건축된 행정관 2층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입시업무, 학사관리를 전산화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전산실이 운영되었으며, 전산실에서는 학생들의 전산교육실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였다.

전산실이 전산교육원으로 확대된 것은 1995년 12월 1일이었다. 그해 11월 16일에 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산실을 전산교육원으로 개칭할 것을 결의하고 오덕신 실장을 교육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전산교육원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전산교육원은 기존의 시스템인 GS8000을 Avion9500으로 교체하고 입시, 학사, 행정 등의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산교육 및 전산실습실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1996년 3월에 편제를 개편하여 전산실과 전산교육원을 분리하여 전산실은 오덕신 실장 아래서 학사 행정 운영 및 개발 업무를 주관하고, 전산교육원은 국중각 교수가 맡아 전산교육 및 실습실 관리를 주관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6년부터 경영정보학과, 전산통계학과 등 전산관련 학과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산실습실의 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자 엘리야관 1층의 위생실 옆에 팬티엄실을 새로 설치하여 전산실습실을 확대하는 등 전산교육원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²

한편 전산실의 업무를 두 부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1997년 1월에는 전산실과 전산교육원을 다시 정보전산교육원으로 통합하고 오덕신 교수를 초대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학사행정 운영 및 개발, 전산교육 및 실습실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오덕신 교수는 1996년 2월 29일까지 정보전산교육원장으로 봉사했

¹삼육학보, 1995년 9월 28일자, 7.

²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3.

으며, 그 후 제2대 원장에 국중각 교수, 제3대 원장에 다시 오덕신 교수가 전산교육원의 책임을 맡아 대학의 전산화와 전산교육을 이끌었다.

전산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전산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 2학기에 걸쳐 “컴퓨터 활용”이라는 과목을 교양필수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강의 내용은 DOS, WINDOWS, 컴퓨터 통신 등이었는데 컴퓨터를 직접 활용한 실무강좌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들로부터 386, 486, 586 시스템이 구축된 전산교육실에서 컴퓨터 실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확대하였다. 특별히 컴퓨터 자율실습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산 실무교육을 강화하였다.¹

6. 제8대 총장 박해중 박사 취임(1994)

삼육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피하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막 도약하던 시기인 1994년 9월에 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지난 1990년 8월 제7대 학장에 선임되었다가 1993년 3월 1일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총장의 직임을 맡게 된 김홍량 박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총장직을 이임하게 됨에 따라 대학 이사회는 후임 총장에 박해중 박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1994년 9월 8일 오전 10시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교내외 인사 및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박해중 박사가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향한 도약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제8대 총장(삼육병설전문대학 제5대 학장)에 취임하였다.²

박해중 총장은 대학의 학사 체제를 크게 발전시킨 김홍량 총장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대학의 도약을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다. 박해중 총장은 1931년 10월 25일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1950년 5월 8일에 6년제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경북대 의예과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해 공부를 할 수 없어 그해 8월 28일에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신앙양심에 의한 집총거부로 6개월 동안 복역한 후 1953년 9월 23일에 제대하였다. 이후 경산군 지량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형인 박형중 목사의 권유로 재림교회에 들어와 영남삼육중고등학교 교사로 삼육교육자가 되었는데 이때가 1954년 11월 29일이였다.³

그 후 1961년 4월에 삼육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65년 1월 10일에 삼육신학대학(신학과 제24회, 신학사 제1회)을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1968년 10월에 필리핀 유니언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10.

²병설전문대학이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대학 학장 및 총장이 병설전문대학장을 겸임하였다. 삼육학보, 1994년 9월 14일자, 3.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92.

대학교에서 신학석사(M.A.)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으로 돌아와 조교를 거쳐 1969년 삼육대학 신학과 전임강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삼육대학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임강사로 임명받은 이듬해인 1970년 12월 28일에 한국연합회 제24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71년 조교수를 거쳐 1976년에 부교수, 1983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대학 확장 및 발전의 시기에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1978년 10월에는 필리핀의 원동지회 신학대학원(AIIS)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2년 8월에는 미국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취득하여 학문적 경력을 쌓았다.¹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1979년에는 교무처장, 1984년에는 신학과장, 1988년에는 대학원장, 1992년에는 초대 신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박해종 박사는 1994년 9월 김홍량 전총장의 후임으로 총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직임을 맡게 되었다.²

총장의 직위에 임명된 박해종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깨끗한 캠퍼스에 사는 청결한 사람들”을 구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교육사업에 임할 것을 선언하고 이 교육적 대의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모든 교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특별히 1998년에 있을 대학교의 종합평가를 앞두고 교육 특성화 등 대학교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³ 이 과제는 미래를 향한 도약의 도상에서 대학을 이끌어갈 총장의 가장 분명한 임무이자 과제였다. 박해종 총장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새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1995년부터 대학 보직자들도 변경되었는데, 신입 교무처장에는 김기곤 교수, 총무처장에는 권혁용 교수, 학생처장에는 한성보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고, 남대극 교수는 교목실장, 신계훈 교수는 신학전문대학원장에 각각 선임되었다. 대학원장과 도서관장에는 변동 없이 조영일 교수와 안금영 교수가 계속 해서 맡게 되었다.⁴

7. 대학 종합평가체제 도입(1994)

박해종 박사가 제8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짚어진 가장 큰 과제는 대학종합평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학평가제도가 확대되어 교육종합평가인정제가 도입

¹상계서, 492-493.

²삼육학보, 1994년 9월 14일자, 7.

³상계서.

⁴삼육학보, 1995년 3월 14일자, 7.

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평가체제에 돌입하였다. 삼육대학교 역시 사립종합대학교의 위치에서 타대학들과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종합평가에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 본격적인 평가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대학종합평가 체제는 대학들 간의 무한경쟁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였다. 삼육대학교 역시 이 제도로 인해 대학경쟁 지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1) 대학평가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조사하는 대학평가제가 시작된 것은 1982년부터였다. 그해 4월 당시에 전국의 97개 4년제 대학을 회원대학으로 해서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평가를 주관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후 1983년에는 대학운영 종합평가와 대학원평가를 ‘기관평가’라는 명칭으로 개칭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동시에 평가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경영평가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평가와 학문영역별 평가로 이원화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대학평가제도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는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 공포하여(법률 제3727호) 대학평가가 대학간의 자율적 협의기구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평가과정에 따라서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전반을 진단하는 5년 주기의 대학기관평가(1991년부터는 기관평가가 종합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를 2주기에 걸쳐서 실시하였다.¹

한편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1987년도에 현행 대학평가제를 보다 강화하여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대학교육협의회의 연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학과평가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1996년부터는 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준비를 위한 여러 부담을 감안하여 종합평가인정제를 1998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학과 단위의 대학평가인정제는 1992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1994년부터 7년을 주기로 시행하도록 최종 확정되었다.²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대학의

¹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592, 593. 제1주기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였으며, 제2주기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였다.

²상계서, 593; 삼육학보, 1995년 4월 13일자, 3.

개혁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대학평가인정제 및 종합대학평가인정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부터 학과 중심의 대학평가인정제가 도입되어 1992년에는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1993년에는 화학과와 기계공학과, 1994년에는 생물학계열의 학과와 화학공학계열 학과, 1995년에는 경영, 무역, 회계 관련 학과, 1996년에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과에 대한 학과평가인정제가 실시되었다.¹ 그리고 종합평가인정제는 1994년부터 도입되어 7년간(1994~2000) 시행될 것이었는데, 교육대학은 1997년, 신학계열 대학은 1998년, 일반대학과 개방형대학은 1999년, 이 과정에서 평가인정받지 못한 대학의 재평가는 2000년에 각각 실시하게 되었다. 이 주기 동안에 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은 대학은 7년간 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며, 7년 후에 다시 다음 주기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대학 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한 이유는 대학교육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대학경쟁력 약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특별히 국내대학들 중 대부분이 국가재정의 미약과 육성사업의 권장에 따른 사립대학의 확대에 의해 양적 팽창은 가속화되었지만 그에 따른 교육의 질적 환경이 따라주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1994년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여건’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교수 확보율, 교사 확보율, 도서관입비, 실험실습비, 발전 전략 및 특성화 전략 등 교육환경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신설대학보다는 전통이 있는 명문대학의 경우 교육여건이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은 구체적인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대학의 혁신 프로그램(교육, 연구, 행정, 시설, 봉사 등)의 구상, 예산편성 및 교원확보 계획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가 효력이 유효한 7년 동안 개선된 교육환경에 따라서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평가 자료를 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판단자료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체 등은 채용 및 연구용역 수탁자 결정, 장학금 수혜자 결정 등의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평가인정제가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에 따라서 각 대학들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평가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삼육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종 박사는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대학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이었다.

¹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593.

²상계서, 590, 591.

2) 대학순위 평가에서 교육여건 9위에 선정(1994)

삼육대학교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1994년도에 실시된 대학순위평가제에서 본 대학교가 9위에 선정되었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대학순위평가는 중앙일보사가 교육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대학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 131개 대학(과학기술대 등 특수목적대학 제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내용은 교육여건, 연구, 도서관, 재정 및 졸업생의 사회 진출도 등 선정된 10대 지표들로 구성되었다.¹

이 평가에서 삼육대학교는 교육여건 종합 9위에 올라 상위 10개 대학에 명단을 올렸다. 종합교육여건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학은 포항공대(1.76)이었으며, 그 뒤는 홍익대(조치원 분교, 15.60), 서울대(16.96), 한림대(25.12), 한양대(25.12), 경희대(30.12), 부산수산대(30.33), 목포대(31.08) 순이었고, 삼육대(31.72)는 아홉 번째로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으며, 부산대(31.95)가 10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문에서 삼육대는 454만 원으로 14위를 기록했으며, 학생 1인당 운영비에 있어서는 평균액이 1백16만 원으로 2백42만 원을 기록한 포항공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립대학의 총수입 중 납임금 비율은 삼육대학교는 연세대, 인하대, 부산여대와 함께 3번째 그룹(21~30%)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5위(6만9천 원, 1위 포항공대 62만5천 원), 장서수는 6위(50.73권, 1위 포항공대), 열람석수 1위(1.88명)를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1994년도에 실시한 대학순위평가제에서 삼육대학교는 비교적 교육여건이 우수한 상황임을 보여줌으로써 발전하고 도약하는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설 대학이나 발전 도상에 있는 대학들이 기존의 명문 대학들보다 교육여건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1994년 10월의 국정감사 보고자료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자료와 대학순위 평가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삼육대학교는 이제 새롭게 발전하는 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새롭게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그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육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198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대학사업을 추진하던 신설대학들이 보여주던 교육여건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대학의 특성이 신설대학들이 갖춘 특성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었다. 이 대학순위평가제를 통해서 나타난 삼육대학교의 교육여건은 앞으로 전개될 대학종합평가인정

¹이 평가 결과는 삼육학보에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삼육학보, 1994년 10월 11일자, 3.

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¹

그러나 이 결과는 단지 교육여건과 관련된 순위였기 때문에 대학종합평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후 다루게 될 평가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자체평과의 결과도 그렇듯이 종합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1997년 9월28일에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평가에서 중앙일보는 1994년 평가와는 달리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육대학교는 종합 순위에서 20권에 들지 못했다. 다만 교육여건 18위, 재정경영상태 12위, 도서관 평가 5위 정도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² 그러나 교육여건이 3년 전에 9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대학평가를 위해 일반 대학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삼육대학교도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보다 밀도 있게 준비하도록 독려해 주었다.

3)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준비

삼육대학교는 종합평가인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무처장(김기곤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결성하고 평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획실을 개설하는 등 평가체제로 돌입하였다.³ 기획실은 1994년 12월 1일부로 설치되어 초대 기획실장엔 조치웅 교수(1994. 12. 1~1995. 12. 25)가 선임되어 대학평가를 준비하게 되었다.⁴

이렇게 평가준비를 위해 구성된 기획실에서는 1995년에 삼육학보를 통해 각 평가 영역에 대한 기획 연재물을 게재함으로써 종합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연재물은 지속되지 못하고 재정·경영영역과 교육영역에 대한 소개로 끝나버렸지만 대학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⁵ 일반적으로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은 다음의 평가영역 및 평가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사회봉사영역, 교수영역, 시설·설비영역, 재정·경영영역 등 여섯 가지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육 환경을 갖추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했으며,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했고,

¹삼육학보, 1994년 12월 9일자, 1.

²삼육학보, 1997년 10월 7일자, 2.

³삼육학보, 1995년 4월 13일자, 3.

⁴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800.

⁵삼육학보, 1995년 5월 16일자, 3; 삼육학보, 1995년 6월 7일자, 3.

학생들의 선발, 오리엔테이션, 학사관리, 장학제도 등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반여건들을 개선해야만 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실적 및 연구여건과 연구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했으며, 특별히 교수채용 비율을 높이고,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인사와 복지, 개발 부분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외에도 교육시설과 실험실습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로 되었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했다.

이러한 준비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구체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요긴한 제도였다. 삼육대학교는 1998년에 학부평가, 1999년에 대학원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가를 위한 계획 및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기획실은 대학 내에서 중요한 부서가 되었다.

평가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기획실의 책임은 조치웅 교수에서부터 한성보 교수에게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기획실이 곧바로 확대개편 됨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실의 확대개편은 1996년 들어서 개교90주년을 앞두고 대학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대학종합평가 업무 이외에 대학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대학발전기금 조성 등의 업무를 기획실 단독 기구가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 대학 행정협의회는 그해 1월 16일에 기획실을 기획연구실과 기획관리실로 확장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기획연구실장에 최준환 교수, 기획관리실장에 한성보 교수를 각각 보직 발령하였다. 기획연구실은 대학종합평가 준비, 지회 및 대총회평가 준비, 대학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교수연구지원 및 연구소 통폐합, 개교9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을 담당하였으며, 기획관리실은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각종 대학시설 계획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¹

기획실의 개편과 함께 대학종합평가를 위해 대학에서는 1996년에 학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부제는 동일계열학과의 전공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이 선택 수강하여 궁극적으로 동일계열학과와의 학문적 연계를 통한 전인적 인간성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됨으로써 소속 학과의 의미가 취약한 제도이다. 그러나 본 대학의 학부제는 동일계열학과와의 상호연함으로 학사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동일계열학과를 묶어 6명의 학부장 아래서 인적자원과 실험실 및 기기를 공유하고, 합동연구소를 설치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학부제와 유사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되 계열별 모집은 하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² 학부제 도입과 더불어 복수전공 강화를 위한 최소전공인정제 시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9.

행, 장기발전계획안 구축, 자체평가연구위원회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평가준비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별히 그해 5월에 대학은 1995학년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1998년 실시될 대학종합평가의 대상 기간이 1995년도부터임을 감안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 영역별로 보면 교육영역이 71.0%, 연구영역이 46.7%, 사회봉사영역이 61.0%, 교수영역이 63.1%, 시설설비영역이 61.3%, 재정경영영역이 53.9% 등 전체 평균이 60.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이 65.7% 이상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를 위해서는 부족한 점수였다. 특별히 연구영역과 재정경영영역에서 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¹

자체평가 후 기획연구실에서는 교수·연구 영역에서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조직 및 인사부분에서 기획홍보담당자와 취업담당자를 보강하고, 학생생활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을 채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예산 및 제도분야에서도 재단전입금 비율의 증대와 연구조교 등의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평가준비를 하였다. 아울러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1996년 8월 29일에 6명의 실무직원과 8명의 연구위원으로 자체평가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체제에 들어갔다.²

4) 대학종합평가 진행 및 결과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별히 연구영역과 교수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가 나왔다. 자체평가위원장 최준환 교수는 대학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의 자체평가조사에서 연구영역과 교수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해 이 영역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를 드러내 주었다.³

대학은 자체평가를 통해 취약한 분야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 1인당 학생수의 비율을 낮추고,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의 비율을 높이며, 시간강사 의존도를 줄이고, 교수 인사문제와 승진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수영역에서의 평가결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영역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비에 대한 지원체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교수실험실과 연구기자재 확보 등에 주력함으로써 자체평가에서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였다.⁴ 아울러 시설분야를

²삼육학보, 1996년 4월 30일자, 1.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6년도, 5-34.

²상계서, 5-35.

³삼육학보, 1997년 10월 7일자, 2.

⁴상계서, 3. 대학은 98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술연구비 지원금을 1억3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100개 이상의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였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22.

강화하기 위해서 바울관, 유치원 및 사회교육원, 과학관, 체육관 건축 등 90년 역사 초유의 투자정책을 추진하였다.¹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삼육대학교는 1998년 9월 12일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체평가연구는 경영학과 최준환 교수의 총괄 하에 교육영역은 남대국 교수, 이기갑 교수, 유구용 교수, 김남정 교수, 연구영역은 정근희 교수, 강진양 교수, 사회봉사영역은 전우민 교수, 김영숙 교수, 교수영역은 조치웅 교수, 시설·설비영역은 유한주 교수, 이강성 교수가 각 영역별로 작성하였다.²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후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 동안 대학종합평가를 받게 되었다. 삼육대학교의 종합평가를 위해 내교한 평가위원단은 총 7명으로 대한교육협회의 조준범 연구원의 지휘 아래 평가를 진행하였다.³ 27일 오전에 삼육동에 도착한 평가위원단은 대학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및 본교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시설 및 설비시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평가는 이틀 동안 6개의 영역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단들은 이틀 동안 서류 및 시설 점검, 학생 및 직원 인터뷰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평가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마쳐졌고, 그 후 1시간 동안 상호협의회를 진행한 후 모든 평가를 마치게 되었다.⁴

이렇게 치러진 대학종합평가의 결과 삼육대학교는 “인정”을 받아 7년 동안 인정유효기간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2005년까지 대학운영이 인정되었으며, 그때 가서 다시 제2주기 종합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별히 평가결과 사회봉사영역에서 우수영역으로 인정을 받아 이 분야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구축하는 일에 탄력을 받았다.⁵ 삼육대학교는 이 대학종합평가를 통해 삼육교육의 현 위치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이념 및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길에서 새로운 비전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들은 삼육대학교가 개교 9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매우 요긴한 요소들이 되었다.

한편 이듬해인 1999년 10월 28일에는 대학원종합평가가 있었는데 5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이 평가에서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2개 영역에서 우수대학원으로 선정되었고, 특별히 수업 및 논문지도와 시설·설비 부분에서는 상위 3개 대학에 속

1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6.

2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2.

3교육과 사회봉사영역은 부산대 교육학과의 이원호 교수와 덕성여대 인문사회과학부의 김성철 교수가, 연구와 시설·설비영역은 세종대 지구과학과의 고의장 교수와 동덕여대국어국문학과와 조상기 교수가, 교수와 재정·경영영역은 광운대 행정학과의 전수일 교수와 경남대 경제학과의 성태현 교수가 각각 담당했다. 상계서.

4삼육학보, 1998년 11월 2일자, 2.

5“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19.

하는 영예도 얻었다.¹

5) 학과평가 및 대총회 평가

대학평가와 관련해서 살펴볼 또 다른 역사로 학과평과와 대총회평가가 있다. 먼저 학과평가는 대학종합평가 이전에 실시된 대학평가인정제의 일정에 따른 평가였다. 대학평가인정제의 일환으로 간호학과와 약학과의 학과평가가 1997년에 진행되었다. 이에 삼육대학교의 간호학과와 약학과도 학과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두 학과의 교수들은 대학종합평가 실무를 담당한 기획연구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6개의 영역에서의 학과평가를 준비하여 평가에 응하게 되었는데, 간호학과의 경우 총점 300점 중에서 262.9점(87.6%)을 획득하여 인정되었고, 특별히 시설·설비 및 행정·재정 영역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약학과의 경우는 총점 300점 중에서 258.2점(86.2%)을 얻어 인정되었고, 교육목표·교육과정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² 이 두 학과의 평가과정 및 결과는 이듬해에 진행된 대학종합평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간호학과와 약학과가 학과평가를 받음으로써 삼육대학교는 대학평가의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후 평가과정에서 안정된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학과평과와 대학종합평가 외에 삼육대학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 교단의 본부인 대총회 대학인가위원회로부터 5년 단위의 인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재림교회 대총회는 교단에 소속된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인가위원회(Adventist Accrediting Association)라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전 세계의 재림교회 대학들에 대한 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인가평가 방법은 인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찰단들이 평가기간 동안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대학들에게 요구되는 각종 항목들에 대해 대학 측이 준비한 자체연구보고서(Self-study)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별히 각 대학을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A형의 경우는 일반 고등교육기관들로 11개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 B형의 경우는 잘 갖추어지고 성숙된 기관으로 그 역사가 깊고 재림교회의 교육의 질과 중심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로 9개 영역에서 축소된 형태로 인가심사를 받게 된다. 이 두 영역의 인가기간은 5년이다.³ 삼육대학교는 B형에 속함으로 이에 준하는 인가를 받게 되었다.

평가의 종류는 정규 인가평가와 중간 인가평가, 행정적 재검토를 위한 평가와 집중평가 등이 있는데 삼육대학은 1999년에 정규 인가평가를 받았고, 3년 전인 1996년에

¹상계서, 2-23.

²상계서, 2-19.

³Accreditation Handbook, Adventist Accrediting Association, I-9.

중간평가를 먼저 받았다. 중간평가란 결의된 인가 기간 중에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된 정규 평가에서 제기된 주요한 권면들에 대한 이행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삼육대학교는 1996년에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 1998년 11월 30일까지 인가가 최종 확정되었었다.

이후 1999년에 정규 인가평가를 받았다. 특별히 1999년의 정규 인가평가에서는 삼육대학교 내에 30개의 안식일학교와 8곳의 설교예배 모임이 진행되는 등 영적활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신학과 교수의 타학과 교양성경 교수의 과중, 교수들의 무거운 강의시수 부담, 교수 및 기숙사생 증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았고, 예산증액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내용은 미미한 것으로서 평가단은 대학 운영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인가”를 허락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운영이 유효하게 되었다.¹ 이는 곧 차기 인가는 2005년에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는 1998년에 이미 국가로부터 대학종합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인정되어 대총회 평가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대학종합평가 및 대총회 인가평가를 통해서 삼육대학교는 교육이념 및 정체성 유지는 물론이고 대학의 교육여건 분야에서 든든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8. 학과 증설 및 의예과 설립 무산(1993~1995)

1993년에 삼육대학교는 모두 12개 학과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12개의 학과만으로는 학부제 도입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삼육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학과의 증설을 통한 학부제 및 단과대학 체제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삼육대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인구억제 정책에 묶여 학과 및 학생수 증설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가 수도권 대학들에도 야간학부 및 IT계열 등의 학과증설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삼육대학교 역시 학과증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 삼육대학교 학과 증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증설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였다. 교육부는 1993년 9월 3일에 삼육대학교가 요청한 사회복지학과(입학정원 40명) 증설을 인가해 주었고, 이로 인해 대학은 1994년 3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여 사회복지학과(학과장: 표성수 교수)를 운영하게 되었다.² 사회복지학과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참여권, 개인의 성장,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20; 삼육학보, 1999년 6월 9일자, 1.

민주주의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회과학으로서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정신학, 인류학, 생물학, 역사학, 법학, 교육학, 철학 등의 과학적인 지식과 훈련으로부터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켜온 학문으로서 이 학문을 통해 현대국가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사회봉사자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후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전문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에 이어 1995년 후반기에는 인문계열의 경영정보학과와 자연계열의 전산통계학과가 신설되어 대학발전의 보폭을 더욱 더 넓혔다. 특별히 이 두 학과는 정부의 IT 정책과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신설된 학과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대학의 학과증설 인가신청에 따라서 교육부는 1995년 10월 4일에 경영정보학과 40명(야간), 전산통계학과 40명(야간) 증과를 인가하였다. 이에 11월 23일에 대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1996학년도부터 신설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¹ 신설학과가 IT계열의 야간학과로만 인가된 것은 정부의 수도권정비 기획위원회 방침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인구확산 방지를 위해 주간학과의 신설이 불허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도권대학의 경우 정보화시대에 맞춰 정책상 IT계열의 신설만이 허용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신설된 경영정보학과는 경영이론과 컴퓨터지식을 융합하는 교육을 특성으로 하는 학과로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집행하고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영정보시스템을 다룸으로써 정보관리 분야에 소양을 갖춘 경영자를 배출하고 정보처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설된 경영정보학과의 초대 학과장에는 김재완 교수가 임명되었다.²

전산통계학과는 대량의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학 및 통계학의 이론을 활용하는 분야로 컴퓨터 통계 활용 및 응용을 배우는 학과이다. 이 학과는 전자계산학과 통계학에 걸친 교과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공부하여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전산통계학과 초대 학과장은 국중각 교수가 맡았다.³ 전산통계학과는 1997년 11월에 컴퓨터과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컴퓨터과학의 핵심 학과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학에 2개 학과가 신설된 데 이어 1995년 10월 18일에는 간호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어 20명 정원을 인가받았으며, 28일에는 신학대학원에 100명이 증원되었다.⁴

²삼육학보, 1994년 4월 7일자, 1.

¹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5년도, 341, 342.

²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3.

³상게서.

2) 의과대학 설립 추진

학과 신설과 관련해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던 역사도 빼놓을 수 없다. 삼육대학교는 1995년에 신설학과 및 정원 증원을 신청할 때 의과대학의 설립도 신청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 최초의 기회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본부교회당에서 거행된 신도대회에서는 경영위원회 안건 중 하나로 “대총회의 지도를 받아서 의과대학을 세우”기로 결의한 내용이 있었다. 당시 루 의사의 활약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했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대총회의 인가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한국연합회 총회 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여러 차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제안이 결의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의과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종합병원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몇몇 의과대학들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본 교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간파하고 그동안 실현시키지 못했던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특별히 서울위생병원은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삼육대학교와 협력해 부지를 매입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학운영위원회에서는 1995년 5월 25일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결의하고 추진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 위원: 총무처장, 기획실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이종화, 김평안, 이경순, 한상경)를 구성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준비 작업을 거쳐 의학과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제주대학교에 40명 정원의 의학과 증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의학과 신설을 불허하였다.¹ 이후 1998년도에 이르러서도 의학과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² 이로 인해 의과대학 설립의 꿈은 요원하게 되었다.

3) 기타 및 대학원 학과 신설

아울러 1995년 당시에 러시아어학과의 신설도 허가되었지만 교수 확보 미비 등 교육여건상의 이유로 폐과되어 정식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³ 그러나 IT계열의 증원으로 대학의 규모는 보다 더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학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4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회의사록, 1995년도, 342.

1삼육학보, 1995년 12월 5일자, 1.

2삼육학보, 1998년 11월 2일자, 4.

3삼육학보, 1995년 12월 5일자, 1.

있는 역량은 더욱 증대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1992년 7월 30일에 화학과 석사과정이 승인되어 1993년부터 2~3명의 화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5년 10월 18일에는 간호학과 석사과정도 승인을 받아 1996년부터는 간호학과도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학원에는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약학과 이외에 화학과와 간호과 등 총 5개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대학원의 학생 수는 총 35명, 신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수는 41명으로 총 76명의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¹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0회 총회보고서, 1995년도, 2-7.

제2장 개교90주년 기념 및 역사 정립

(1996)

1996년은 한국의 교육계가 미래교육상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해였다. 이미 언급한 대로 1994년부터 시작된 대학종합평가는 1996년에 이르러 4년제 국사립 일반대학의 평가를 모두 마치고 교육대학(1997), 신학계 대학(1998), 개방대학(1999)의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학평가인정제는 평가를 받은 모든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과 자율성과 협동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별히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도록 이끄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평가를 통한 교육개혁 이외에 정부는 자체적으로 1996년부터 3년간 총 6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998년까지 교육재정규모를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담배소비세, 휘발류세를 세원으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¹

이와 더불어 같은 해 7월 20일에는 교육박람회가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교육개혁의 실천사례 및 미래교육상을 보여주었고, 8월에는 교육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EDUNET)이 개통되어 교육관련 통계 및 학습자료 등의 각종 교육정보가 통신망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10월 14일에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확정된 가운데 OECD교육위원회가 ‘한국교육정책 검토회의’에서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한국교육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평가를 받기도 했다.² 이러한 일련의 역사들은 1996년에 한국 교육계가 교육개혁을 통한 미래 창출을 위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삼육대학교 역시 비슷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였다. 1996년은 삼육대학교가 개교9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개교90주년을 맞이하여 삼육대학교는 순안의 의명학교 시대로부터 시작해 삼육대학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90년의 역사를 점검하는 역사정립과 더불어 교육개혁과제를 찾아서 해법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은 삼육대학교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육대학교는 1996년을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정립의 해로 정하고 특별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그 사업은 새롭게 총장에 선출된 신계훈 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¹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597.

²상계서, 608-615.

1. 총·학장 이취임식(1996)

역사적인 개교90주년의 서막을 연 것은 총·학장의 이취임식이었다. 1994년에 김홍량 총장에 이어 제8대 총장에 오른 박해종 박사는 은퇴를 1년 앞두고 명예은퇴를 신청하게 되자 새로운 총장 선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삼육대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입 총장으로 신계훈 박사를 결의하여 대학 이사회에 상정하였고, 이사회가 그 제안을 받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새로운 총장 시대가 열렸다.¹

총·학장 이취임식은 1996년 3월 11일에 대강당에서 병설전문대학의 입학식이 끝난 후에 거행되었다. 종전에는 대학의 학·총장이 전문대학의 학장을 겸임해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정부가 대학의 총장이 전문대학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전문대학장을 임명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대학의 총장과 전문대학의 학장을 분리해서 선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총·학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전 총장인 박해종 박사는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삼육대학교의 총장이자 병설전문대학의 학장으로서 미래도약을 위한 초석을 놓고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되었다. 1954년 영남삼육중고교사를 시작으로 40년 이상을 삼육교육에 헌신한 노병으로서 전임 총장은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자리를 내 주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박해종 박사의 퇴임과 함께 삼육대학교 제9대 총장 신계훈 박사와 삼육병설전문대학교 제6대 학장 정순영 박사가 새로운 지도자들로 취임하였다.

1) 제9대 총장 신계훈 박사

대학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삼육대학교 제9대 총장에 임명된 신계훈 박사는 1940년 11월 18일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해 중학교 때 원주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에 입교하였다. 1959년 2월에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 해 4월에 삼육신학원에 입학한 그는 3학년 말인 1962년 2월에 군에 입대해 안식일 문제와 집총 문제 등 비무장전투원 신념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64년 11월 14일에 전역을 하고 다시 삼육신학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을 이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1965년 12월 24일에 제1회 학사학위 졸업자로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²

1966년 1월 29일 중한대회의 용산교회에 부임한 이래 천호동교회, 서울중앙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였고, 1967년 1월 1일부터는 삼육대학교교회 전도사 및 강사로 부름을 받아 교육사업과의 인연을 시작하였다. 그 후 대학의 장학계획에 따라서 필리

¹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사록, 1995년도, 357.

²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10, 511.

핀으로 유학을 떠나 필리핀 유니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72년 1월 1일부로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1974년 1월 1일부로 조교수에 임명된 신계훈 교수는 1974년 11월 30일 한국연합회 제25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79년 1월 1일부로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달 후인 3월 1일 박사과정을 위해 앤드루스 대학교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향학 차 미국으로 건너간 신계훈 교수는 앤드루스 대학에서 목회학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베리언 스프링스교회와 배틀크릭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를 겸임하면서 일선 목회에 헌신하였다. 이후 1986년 6월 8일에 목회학박사(D.Min.)학위를 취득하여 앤드루스 대학교 실천신학 강사로 일하였고, 후에는 내파교회를 담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향학 및 교수와 일선교회 담임 등을 병행해서 봉사하던 신계훈 교수는 1992년 9월 1일부로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부름을 받아 13년 만에 다시 삼육대학 교수의 직임에 복귀하였다. 복귀하자마자 신학과장을 거쳐 1994년 1월 1일부로 신학대학원장에 임명되어 대학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던 신계훈 박사는 이제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부름을 받고 1996년 3월 1일부로 제9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총장에 취임한 신계훈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고유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대학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실존적이면서도 준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를 통해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학, 생존전략을 가진 경쟁력 있는 대학, 열린 시대의 열린 총장실을 가진 개방된 대학, 환경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대학 등 삼육대학이 가야 할 길과 좌표를 제시하였다.¹ 신계훈 박사는 이렇게 1990년대 후반의 역사를 책임진 총장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임기동안 대학의 미래도약을 위해서 많은 역사를 창출하였다.

2) 전문대학 제6대 학장 정순영 박사

신계훈 총장과 더불어 삼육병설전문대학 제6대 학장에 취임한 정순영 박사는 1946년 3월 15일에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재림교회에 입교하였다. 김천삼육초등학교, 영남삼육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2월 27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 농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 졸업 후 학군장교로 육군에 입대, 1971년 6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학사 편입학하여 1974년 2월 13일에 졸업한 후 1974년 3월 3일부로 삼육기술전문학교 전임강사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삼육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삼육기술전문학교의 낙농과장으로 부임한 정순영 교수는 1976년 8월 20일에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5월 18일에는 삼육산업전문학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3.

교 조교수, 1981년 4월 21일에는 삼육농업전문대학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이후 필리핀에 있는 그레고리오 아라네타 대학교(Gregorio Araneta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1987년 4월 27일에 축산학박사 학위(Ph.D. in Animal Science)를 취득하고, 같은 해 농업전문대학 교수로 승진한 그는 1992년에 낙농자원학과가 신설되면서 삼육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한편 정순영 박사는 1987년 7월부터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 노원지부 상임 부회장, 1981년 6월부터 1985년 5월까지의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한국 축산학회 종신회원과 낙농학회 이사 및 유가공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여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이바지하였다.¹

1974년 설립 당시 헤일리 교수가 학장을 역임한 이후 전문대학의 학장직은 삼육대학교의 학·총장이 겸임해서 맡고 있었다. 이런 체제를 넘어서 전문대학 학장의 직위를 독립해서 맡게 된 정순영 학장은 학벌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서 “전문대학 고유의 교육기능을 살려 기술 지향적이고 능력 및 자격 지향주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소명을 피력하였다. 이 소명에 따라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을 운영하여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삼육병설전문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헌신하였다.²

3) 교직원 인사이동

새로운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서 대학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교직원 인사이동을 통해 학교운영의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다. 총장에 임명된 신계훈 박사가 맡고 있던 신학대학원장엔 안금영 교수가 임명되었고, 박종현 교수가 새롭게 학생처장에 부임했으며, 한성보 교수는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되었다.³ 아울러 평생교육원장에는 김홍량 전 총장이 맡아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되었다.⁴ 교무처장엔 김기곤 교수가 유임되었다가 1997년 9월 1일부로 김봉진 교수가 새로운 교무처장에 임명되었다.⁵ 그리고 총무처장은 권혁용 교수가 유임되었다가 1997년 12월 1일부로 삼육식품 사장이었던 윤충여 장로가 신임 총무처장에 임명되었다.⁶

특히 조직상 나누어진 학부의 책임자들도 새롭게 선임되었는데, 신학부 오만규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11, 512.

²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5.

³기획관리실은 1998년부터 대외협력처로 변경되어 한성보 교수가 대외협력처장을 계속해서 맡게 되었다.

⁴상계서.

⁵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6.

⁶삼육학보, 1998년 3월 30일자, 7.

교수, 인문사회과학부 홍규표 교수, 자연과학부 권오달 교수, 의약학부 이숙연 교수, 경상학부 최준환 교수, 음악학부 조문양 교수, 교양학부 김봉진 교수 등이 각각 학부장을 맡게 되었다.¹ 이 시기에 삼육대학교는 조직상으로는 학부제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교육부가 권고하는 학부제 도입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폭넓은 학문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성에 맞는 학위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었던 학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열별로 다양한 학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삼육대학교는 아직 그만큼의 다양한 학과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학은 학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학부장들을 선임했으며, 이후 부분적으로 학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총·학장과 부처장들 및 학부장들로 임명된 새로운 임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이었다. 개교9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단지 과거만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였다. 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략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자.

2. 개교90주년 기념사업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개교9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새로운 미래전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대학 행정자들은 1996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세부적인 기획 아래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해 왔다.

1) 대학 주변 환경 개선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종 사업내용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된 것은 대학의 주변 환경을 개선한 것이었다. 신계훈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대학 교육이념과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캠퍼스 조성에 힘썼다. 이는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첫 번째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개교9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서 해야 할 실질적인 과제였다. 1980년대의 대학 확장 및 발전의 시대를 지나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던 1990년대의 삼육대학교는 외형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으나 이제는 개발 못지않게 대학 내의 환경을 조성하여 질서 있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¹상계서.

²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4.

1996년 들어서 진행된 대학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각 건물에 건물명 부착, 시계탑 설치, 주차장 설정 및 확장, 정문 진입로 인도 포장, 분수대 설치, 기념비 건립, 학교 건물배치도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학생회관, 도서관, 선교70주년기념관, 평생교육원, 엘리야관, 사무엘관, 에스라관, 과학관, 행정관 등 교내 9개동의 건물에 건물명을 부착하는 작업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총 4백6십만5천 원의 재정을 들여 진행된 이 건물명 부착작업은 학생들과 교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건물명 부착작업과 동시에 도서관과 엘리야관 사이의 화단에 시계탑도 설치하였는데 이 시계탑은 대학 55회 졸업생들(위원장: 이희준)과 전문대 21회 졸업생들(위원장: 김현성)에 의해 기증된 것이었다.¹ 한편 이 시기에 대학 정문에는 삼육대학교 캠퍼스를 안내하는 학교건물 배치도를 설치하여 대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건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건물명 부착 및 시계탑 설치에 이어서 4월 21일부터는 교내 각 주차장에 주차장 라인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교직원과 시간강사, 학생들의 차량 및 외부의 차량이 교내에 주차하는 수는 약 350~400대 정도였는데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는 170대 정도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교내 혼잡도가 발생하고 학교환경이 열악해지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 작업으로 학생회관과 행정관 주변, 강당 앞과 유치원 옆 등 총 140개의 주차공간이 증대되어 학교 내 주차규모는 300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 총무처와 총학생회는 주차장 증설과 함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시행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5월 9일에는 학교 정문에서부터 엘리야관 앞 다리까지 약 430m 구간에 인도 블록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다. 6천3백5십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이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내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낡고 파손된 블록을 제거하고 정문 좌측으로는 3m 넓이의 칼러스토운을 깔아 인도를 확보함으로써 인도와 차도를 확실하게 구분하였다. 한편 정문 블록공사 및 인도 포장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도서관 앞에 현수막 보조대가 설치되어 나무 위에 올라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여 안전 및 미관을 해치던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²

개교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대학 환경개선 작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강당 앞에 분수대를 설치한 일과 행정관 앞에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세운 것

¹삼육학보, 1996년 4월 30일자, 7. 시계탑의 설치비용은 총 9백8십2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졸업생들이 7백8십만 원, 학교가 2백7십4만 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²삼육학보, 1996년 6월 5일자, 9. 현수막 보조대 설치를 위한 자금은 40여 만 원이 소요되었다.

이다. 대강당 앞의 분수대는 강당 앞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대학의 상징물이 될 분수대를 설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1996년 8월 중순부터 설치되어 개교기념일 행사 직전에 완공되었다. 약 8천4백3십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분수대는 지구본을 떠받치는 형태의 조형물로 설치되었고 대강당과 어우러져 삼육대학교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태어났다.¹ 분수대 설치와 함께 행정관 앞에는 자연석으로 된 “도움의 돌”(에벤에셀)이 설치되었다.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는 뜻으로 삼육대학교를 개교90년에 이르도록 성장 발전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역사에도 섭리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립한 것이다. 도움의 돌은 개교9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총동문회(회장: 원치재)에서 약 1천1백만 원의 비용으로 건립하였다.²

2) 캠퍼스 공원화 추진

1996년에 계획 추진되기 시작한 캠퍼스 공원화 작업은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을 넘어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대학 환경개선 사업과 맞물려 있어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대학측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캠퍼스 성역동산 조성과 식물원 및 공원화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생활환경과 윤희섭 교수 입안) 4월 10일에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에 들어갔다.³

이 계획은 호수, 오얏봉, 기도의 동산 등의 영적 쉼터 및 기도처를 새롭게 정비하는 성역동산 조성하고 호수와 총장 관사 사이 일대에 식물원을 건립하는 식물원 건설 및 캠퍼스의 공원화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식물원의 건설은 10년에 걸쳐 종·변종·품종을 10,000여 종을 수집하고 사용자 편의에 필요한 각종 기물(동선 계획, 식물표찰, 야외휴식벤치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추진위원회는 식물원 건설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및 영적 교육의 공간이자, 원예학과, 생물학과 약학과, 생활환경과 등의 학습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아래 약 1억2천2백만 원(1차 1천4백만 원, 2차 1억8백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⁴ 이 계획은 개교90주년 및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 등과 맞물려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식물원의 건립은 구체화되지 못했고, 다만 성역화 작업은 오얏봉 정비 작업과 1997년에 진행된 터전마련 50주년 기념사업 등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이 내용은 터전마련

¹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 7. 학교에서는 분수대위원회(위원장 권혁용)를 설치하여 약 6천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분수대 설계 및 감독은 윤희섭 교수가 맡았다.

²삼육학보, 1997년 3월 12일자, 6. 이 설치물은 개교90주년 기념일에 완성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97년 2월 25일에 가서야 완성되었다.

³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자, 1.

⁴상계서.

50주년 기념사업과 더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삼육동 이야기 출판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삼육동이야기가 10월 10일에 맞춰 출판되었다. 90년 대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삼육동이며, 그 삼육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삼육동 사람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삼육동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삼육동 이야기이다. 신계훈 총장이 발간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취지는 “삼육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추억은 단순히 서정적이거나 감상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과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기억들을 엮어냄으로써 오늘 우리의 위치를 되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¹

김홍량 전 총장에 의해서 발의되고, 당시 삼육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육봉사를 하고 있었던 송숙자 교수에 의해 편집된 이 책은 삼육동에서 삼육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이야기 형태로 수록하여 삼육동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해 준다. 유형환, 김영도, 임정혁, 이기돈, 김동기, 유정식, 송숙자, 신현철, 해일리(George S. Haley), 김홍량, 최이권, 권오달 등 삼육동의 역사 초기부터 삼육교육에 헌신하면서 삼육동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억들이 씨실이 되고, 읽는 독자들의 이해가 날실이 되어 삼육동이야기는 하나의 생생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되었다.

삼육동 이야기의 출간은 그 동안 공식적 기록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여러 삼육동의 역사들이 여러 개인의 기억들로부터 문자화됨으로써 삼육동의 역사의 또 한 축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역사의 정리는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삼육동 이야기의 출간은 개교9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역사가 되었다. 특별히 개인의 기억 속에서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소중한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리함으로써 좀 더 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삼육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다.

4) 삼육대학교90년사 편찬

개교9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90년사 편찬사업도 진행되었다. 삼육대학교는 개교9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감동의 역사와 발자취를 정리하여 고유한 정체성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삼

¹송숙자 편, 삼육동 이야기, 2.

육대학교90년사를 편찬하기로 계획하고 1996년 3월28일에 대학운영협의회를 통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재신, 오만규, 조문양, 표성수, 남대극, 송숙자, 정순영 등의 교수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는 5월 1일에 모여 재림교회 역사가 중 한 사람인 김재신 목사를 집필자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김재신 목사는 삼육간호전문대학 학장을 지내다가 정년퇴임을 한 후 1년 정도 은퇴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호보건대학 학장 취임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김재신 목사는 오랫동안 삼육교육사업에 투신하여 1995년 삼육간호전문대학 학장직을 끝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왔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 전공자로서 본교회의 역사서술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런 역사가로서 그의 끊임없는 연구경력이 삼육대학교90년사의 집필자로 선정된 배경이 되었다.

김재신 목사는 집필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자료 수집, 정리 및 집필을 시작하여 2년 4개월 만인 1998년 9월에 대학90년사의 집필을 마치고 삼육대학교 출판부로 원고를 넘겨 편집 및 출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10월 8일 드디어 삼육대학교 90년사가 발행되었다. 김재신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편찬위원들의 도움으로 출판된 삼육대학교90년사는 총5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총5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¹

[표 76] 삼육대학교90년사 내용 구성

구 분	내 용	페이지
화보	삼육대학교90년사 화보	1~64
제1편	여명기(1906~1917)	110~127
제2편	성장기(1917~1924)	128~177
제3편	재건·복구기(1945~1960)	178~289
제4편	중흥·발전기(1961~1969)	290~365
제5편	확장·도약기(1969~1997)	366~753
부록	각종 명부 및 연혁	754~1132

삼육대학교90년사의 편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삼육대학교가 적극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이룩한 많은 교육적 성과 중의 하나였다. 아울러 대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섬세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² 지금까지 지내온 90년 역사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삼육대학교는 이제 개교100주년을 위한 보다 세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를 참고하라.

²오만규, “삼육대학교의 역사,” 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9.

3. 개교90주년 행사(1996. 10)

1996년 10월 10일 역사적인 개교90주년 기념일 전후로 삼육대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개교90주년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발전과 도약의 90주년”이라는 기치 아래 공식 마크와 엠블럼까지 만들어서 기념한 이 특별한 기념행사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삼육동 곳곳에서 개교기념행사와 천보축전을 중심으로 삼육대학교출판물전시회, 삼육대학교 90주년 사진전, 개교기념 음악회, 원로교수 간담회, 부부세미나, 한국 재림교회의 회고와 전망, 총동문회의 날[Home Coming Day]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¹

대학은 개교9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위원장: 권혁용 총무처장)를 구성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환경을 구축하였다.² 특별히 예년에 비해 개교기념행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학교의 시설들(가로등, 분수대, 돌의자, 도색, 식당시설 등)을 증설 보강하였으며, 학교의 교육이념을 담은 홍보물을 일간지(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에 게재하였다.³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개교9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개교100주년을로 나아가는 발전과 도약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 추진된 것이었다.

1) 개교90주년 기념식

개교90주년 기념식은 10월 10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김기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신계훈 총장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대학을 지향하는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기념식에는 김용채 노원구청장이 참석하여 삼육대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가 있었고,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축전도 소개되었다.

개교9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교육자들이 특별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박해중 전 총장이 대학 발전과 교육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임정혁, 이주복, 이창규, 임병의, 조병서, 해일리 전 교수 등 6명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여러 직원들이 근속표창을 받았는데 김순섭 선생(총무처, 안전관리과)이 30년 이상, 김미배 교수(간호학과) 외 24명이 20년 이상, 홍완희 선생(관리과) 외 4명이 10년 이상 근속표창을 받았다.

본 행사에는 전임학장 제임스 리 목사 부부, 이기돈 박사 부부 및 전임교수인 임정

¹삼육확보, 1996년 10월 17일자, 1.

²실행위원회는 권혁용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김신섭, 고태영, 이동근, 김영진, 김상래, 이기갑 교수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³상게서.

혁 교수, 이영린 교수 부부, 유정식 목사 부부 등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문 39명이 귀빈으로 참석하여 기념식을 빛내주었고,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본교 합창단의 경축연주로 “삼육대학 찬가”(표성수 작사, 조문양 작곡)가 연주되어 개교9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오! 삼육동, 나의 행복이여!”라는 부제로 만들어진 개교90주년 기념교성곡인 “삼육대학 찬가”는 제1부 서시송을 시작으로 제2부 삼육동산송, 제3부 오얏봉송, 제4부 삼육동 호수송, 제5부 종시송으로 구성되었다.¹

2) 천보축전

개교90주년을 기념하는 천보축전은 예년의 행사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된 채 진행되었다. 행사는 주로 총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 및 각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축제 형태의 행사들과 개교90주년을 맞이해 거행한 특별한 행사들이 어우러진 다양한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개교90주년 기념행사의 타이틀 아래서 거행된 행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

[표 77] 개교90주년 기념행사들(대학 및 대학원)

일 정	행 사 명	주 최	장 소	비 고
10.06.	총장배 동문초청 테니스대회	삼육대학교	테니스장	오전9시
10.07.	학술세미나 및 초청 특강	신학대학원	대학원강의실	
10.07~11.	성지순례 사진전	신학대학원	다목적관현관	상 설
	삼육대학교출판물 전시회	도서관	도서관	상 설
	삼육대학교90년 사진전	학생처	도서관	상 설
10.10.	개교90주년 기념식	삼육대학교	대강당	오전10시
	개교기념 음악회	총학생회	대강당	11시/7시
	최태현목사기념도서관 명명식	삼육대학교	도서관	오후12시
	원로교수 간담회 및 환등관람	삼육대학교	다목적관	오후3시
10.12.	부부세미나	대학/연합회	다목적관	오후3시
	한국 재림교회 회고와 전망	신학부	다목적관	오후6시
10.13.	총동문회의 날	총동문회	대운동장	10시
10.16.	정보와 차세대 경영전략	전략경영정보시스템연구소	다목적관	오후2시
10.19.	신앙강연 대축제	선교사회문제연구소	대학교회	오후2시
10.26.~11.02.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와 신학	신학연구소	대학교회	
10.30.	대학원 세미나	기독교교육학과	다목적관	

¹이 송가는 김재신 목사의 삼육대학교90년사에 전편이 소개되어 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30-539.

²1996년 10월 17일자 삼육학보 및 그 외의 자료들에서 정리함.

[표 78] 개교90주년 기념행사들(총학 및 동아리)

일 정	행 사 명	주 최	장 소	비 고
10.08	사랑의 캠퍼스	총학생회	야외특설무대	오후6시
10.08~09.	좋은영화 감상회	총학생회	야외특설무대	오후8시
10.09.	삼육 콘서트 클래식기타 연주회 양주별산대놀이(제6회) 통일노래한마당(제8회) 수화발표제 우유마시기대회 단체에어로빅경연 스케이트보드팀공연 사랑의 떡잔치 전통다도예강연	총학생회 총학생회 우리문화연구회 KUSA 일곱빛 응용동물학과 전문대총학 전문대총학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야외특설무대 다목적관 도서관옆잔디 야외특설무대 야외특설무대 도서관옆잔디 야외특설무대 학생회관 옆 도서관앞 벤치 311강의실	오후6시 오후5:30 오전11시 오전11시 오후4시 오전11시 오후2시 오후12시 상 설 오후1시
10.09.~10.	산악부 장비전시회 생약 및 약차전시회 뿌리 18기 신인전 해외선교사진전 해외 선교비디오 상영 술성 시 전시회 TIME COVER 전시/백일장 한얼 공연 3on3농구대회 천보탁구대회 테니스대회 몽마르파(서른일곱) 런치세트 및 먹거리 판매 제빵전시 및 판매 간호,신학BM먹거리판매	산악부 약학과생약반 Lensmen 사진반 해외선교회 술성 타임 한얼 동아리 총학생회 동아리연합 테니스동아리 총학생회 관광영어과 식품가공과 간호,신학	유치원앞 잔디 엘리야관앞 도서관옆술밭 학생회관2층 324강의실 도서관앞 도서관앞 도서관옆 잔디 농구장 113,114 테니스장 여학생회휴게실 도서관앞 식가실습실 운동장옆술밭	상 설 상 설 상 설 상 설 상 설 상 설 상 설 오후1시 오후2시 오후1시 오전11시 상 설 상 설 상 설 상 설
10.09.~15.	“흑암” 공연 가면무도회	질그릇 빨리에	다목적관 신체표현실	오후6시
10.10.	Miss. Mr.선발대회	전문대총학	야외특설무대	오후4시
10.14	성경암송대회	케루빔	대학교회	오후7시
10.13~11.29.	성경 전시회	케루빔	도서관2층	상 설

[표 79] 개교90주년 기념행사들(각 학과 학생회)

일 정	행 사 명	주 최	장 소	비 고
09.23~10.09.	모의주식 투자게임	경영학과	도서관앞	상 설
10.07	학술대회	간호학과	다목적관	오전10시
10.08	애완동물과 생활특강	응용동물	다목적관	오후3시
10.09.	학술대회 학술대회 건강가이드룸	생물학과 경영학과 영양학과	도서관지하 다목적관 316	오후12시 오전11시 오후2시

	영어영문만남의시간 약인제	영어영문학과 약학과	234 다목적관	오전11시 오후1시
10.09~10.	장애체험 영상졸업사진전 졸업발표회 교구전시회 졸업작품 전시회	사회복지학과 전산사무자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자동차정비과	도서관앞 C전산실 다목적관 314,315 대강당앞	오전11시 상 설 7시/11시 상 설 상 설
10.09~15.	애완동물 전시회 애완동물 품평회 한국소경원전	응용동물학과 생활환경과 원예학과	도서관옆솔밭 도서관옆잔디 학생회관 옆	상 설 오후1시 상 설
10.10.	외부장사초청세미나	약학,간호	다목적관	오후1시
10.31~11.02.	성소실형제작 전시	신학과	엘리야관앞	상 설

천보 축전 행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야외특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축제행사들을 진행한 것이었다. 특별히 10월 8일 오후 6시에 이 무대에서 진행된 사랑의 캠퍼스 행사는 대학의 축제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특별한 행사였다. 총학생회 문화부가 주최하였고 이종상(재활치료 92학번 졸), 김지영(관영 96학번)의 사회로 진행된 사랑의 캠퍼스는 16명의 학생들이 출연해 2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16명의 출연자들 가운데 1차 대회를 통해 6명을 선발한 후 그 6명이 자신의 파트너를 뽑아 12명이 6개조로 나뉘어 2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2차대회에서 최종전에 진출한 5개 팀이 마지막 퀴즈미팅 형식의 3차대회를 거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행사였는데, 문승일(신학 3), 정소영(재활치료 3) 조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¹

사랑의 캠퍼스 외에도 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동아리, 학과 학생회, 그리고 학교의 여러 부서들의 주최 아래 진행되었다.

3) 삼육대학교 90년 사진전

천보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삼육대학교 90년 사진전은 개교9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된 행사였다. 도서관 지하복도에 마련된 사진전은 개교기념일을 즈음해 10월 7일부터 무기한으로 계획된 행사로서 학생처 박종현 교수의 주최로 이뤄지게 되었다. 삼육대학교 90년 사진전은 “지나간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역사를 재인식시키기 위해” 개최된 전시회로 1904년 스미스 목사에 의해 시작된 한국의 복음선교사업과 1906년 교육사업의 시작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9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였다.²

이 사진전에는 최고의 삼육교육이 시작된 의명학교의 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

¹삼육학보, 1996년 10월 17일자, 8.

²상게서.

교장, 원장 및 학장과 총장의 사진들, 삼육동의 옛 모습, 오얏봉과 제명호의 모습, 각종 건물들 등 삼육대학교의 발전 상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학생들에게 대학의 역사를 확인시켜주었다. 특별히 내빈으로 참석한 해외 동문들 가운데 삼육대학의 초기 지도자들은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특별한 감회에 빠지기도 했다.

4) 최태현 목사 기념도서관 명명식

개교90주년 기념행사 중 매우 특별한 하나의 행사가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삼육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재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최태현 목사의 이름을 붙인 기념도서관 명명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교단과 대학의 지도자들 및 내외 귀빈들은 개교9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12시에 도서관 앞에 모여서 최태현 목사 기념도서관 명명식을 거행하였다. 도서관장 표성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명명식은 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최태현기념도서관으로 명명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명명문을 도서관 벽에 새기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최태현 목사 기념도서관 명명문에는 최태현 목사의 약력과 재림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역사적인 의미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다. 그 명명문의 말미에는 “33년간 오로지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간 고 최태현 목사는 민족 구원과 교단 신앙의 수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려 땅에 묻힌 가룩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오늘의 이 결실을 이루었기에, 이를 기리고자 본 대학교는 개교90주년을 맞아 이 도서관을 ‘최태현 목사 기념도서관’으로 일컫는 바이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새겨져 이 명명식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다.¹

한편 이 명명식에는 고 최태현 목사의 아들인 최희만 장로가 유족 대표로 참가해 명명식의 역사적 의의를 고취시켜 주었다.

4. 터전 마련 50주년 기념사업(1997)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성역화 및 공원화 계획이 진행되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 계획은 단지 90주년 기념사업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996년에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공원화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진행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했지만 캠퍼스 성역화 작업은 1997년이 삼육동에 터를 잡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터전 마련 5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진행될 수 있었

¹최태현 목사 기념도서관 명명문의 내용은 도서관 앞면 벽에 동판으로 설치되어 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28, 529.

다. 터전 마련 50주년 행사의 핵심은 오얏봉 성역화 계획이었다. 이 계획과 함께 옛 시계종 제막, 삼육교육이념비 건립, 대학 캠퍼스 내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징 물들에 대한 명명 및 현판 부착 등으로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

1) 오얏봉의 성역화

캠퍼스 성역화 작업의 중심이었던 오얏봉 성역화 계획은 단순한 오얏봉의 보수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50주년 기념공간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신앙의 중심공간으로 재인식하고 나아가 삼육인의 마음의 고향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만드는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¹ 오얏봉 성역화 작업은 권혁용 총무처장의 책임 아래 조치웅 교수(원예학과)가 기획하여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였다.

오얏봉의 성역화 작업은 모두 6가지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은 “십자가 교체를 통한 상징물 개선,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오얏봉 상부의 무너짐 방지를 위해 석축 마련, 상부를 평탄하게 하고 화강암으로 박석처리를 하여 기도자가 무릎을 꿇기 편하게 만들, 벤치를 돌 벤치에서 목재 벤치로 교체, 십자가를 중심으로 조명등을 보강하고 우천 시 누전 방지를 위해 전선을 지하에 매설, 십자가 아래 돌 제단에 학생들의 기도를 쓴 종이를 끼워 넣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²

오얏봉의 성역화 작업을 위해서 현장작업을 주도한 관리과 직원들과 신학과 및 생활관을 중심으로 한 학생 자원봉사자 1백여 명의 헌신적인 노력봉사가 바쳐졌으며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기금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협력하였다. 오얏봉의 성역화는 터전 마련 50주년에 즈음해 삼육대학교가 다시 한 번 영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의 대학발전 역시 오얏봉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거룩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었기에 대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얏봉 성역화작업은 개교91주년 기념이자 터전 마련 50주년 기념일인 1997년 10월 10일에 기념예배를 드림으로써 완성되었다.

2) 옛 시계종 복원

오얏봉의 성역화와 함께 한국전쟁 직후에 터전을 마련하여 교육사업을 시작하던 때 삼육동에 시간을 알려주던 시계종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 따라 대학은 시계종이 걸려 있던 옛 자리에 종각을 설치하고 그곳에 옛 시계종을 건 후 개교기념일에 복원예배를 드렸다. 옛 시계종은 1949년 삼육신학원이 개교한 후 제임

¹삼육확보, 1997년 10월 7일자, 3.

²상게서.

스 리 원장이 미군부대에서 얻어 온 고압산소용기로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모임 및 식사시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제임스 리 원장은 이 시계종을 만들어 걸어 놓고 타종 책임을 맡은 근로학생으로 하여금 매 시간 마다 타종을 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삼육동의 식구들에게 각종 시간을 알렸다. 이외에도 시계종은 아침 기상시간과 예배시간 등을 알리는 종으로도 활용되었으며, 특별히 화재와 같은 응급상황을 알리는 비상종의 역할도 하였다.

삼육동의 시계종과 시계종에 얹힌 각종 에피소드는 당시에 학생으로서 삼육동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다.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삼육동이야기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편 등장한다.¹

오얏봉 성역화 기념예배가 마친 후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복원된 옛 시계종탑 앞에서 타종식을 거행하였다. 제임스 리 목사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타종식에서는 원로 목사인 김왕목 목사가 대표로 타종을 함으로써 여러 세월 동안 잠자고 있던 삼육동의 종소리를 다시 울려 퍼지게 했다.² 이로써 삼육교육의 역사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역사적 유물이 복원되었다.

3) 기타 역사물 안내판 설치(1998)

역사적인 의미에서 터전 마련 50주년기념사업은 이듬해인 1998년(개교 92주년)에도 계속되었다. 1996년에 캠퍼스 공원화 계획을 시작하여, 1997년에 오얏봉 성역화 작업과 옛시계종 복원 등을 완성한데 이어, 1998년에는 대학 교정 안에 있던 여러 역사 유물들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다시 한 번 삼육동의 역사를 복원시켰다.

우선 삼육대학교 호수인 제명호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기록함으로써 제명호를 찾는 사람들에게 호수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 특별히 이곳 제명호로 오르는 길은 운산 이여식 선생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운산로로 명명하고 입구 다리 앞에 운산로 안내석을 세우는 작업이 2006년에 개교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지기도 했다.³

제명호와 더불어 삼육우유를 생산하는 삼육목장의 역사적 기념물인 사일로 옆에도 역사 안내판이 부착되었다. 사일로는 1963년 10월에 세워져 1993년에 철거된 목장 건물 옆에 세워진 역사적인 건축물로 목장건물이 철거될 때에도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하기 위해 남겨졌다.⁴ 이에 이 상징적인 건축물을 역사화하기 위해 외벽 전면

¹유형환, 김종화 등의 글에서 이 종 이야기가 등장한다. 송숙자 편, 삼육동이야기를 참고하라.

²기숙사 식당 앞에 걸려져 있던 시계종이 철거된 것은 1990년대 초 전한봉 목사가 사감으로 있을 때였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62.

³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4.

벽화(임종성 아동미술과 학과장)를 그리고 그 옆에 “한국 최초의 낙농산업의 요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삼육동의 낙농산업의 역사가 기록된 이 안내판을 부착(1988년 10월 10일)하게 되었다.

4) 삼육교육표어비 건립(1997. 12.28)

삼육교육표어비 건립 계획은 개교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는데, 터전 마련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승계되어 1997년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그해 12월 28일에 완성되었다. 이 표어비는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삼육대학교의 교육표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내로 들어오는 초입 로터리의 원형화단 자리에 설치되었다.

원형 화단을 새롭게 정리한 후 정 중앙에 대형 천연석을 가로 뉘여 전면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란 대학의 교육의 지향점을 새기고, 후면에는 대학 표어인 진리, 사랑, 봉사를 새김으로써 삼육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표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표어비에 새겨진 글의 휘호는 내각교회 교인인 청과 하운규 장로의 것이며, 재정은 부산교회 이정섭 장로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 교육표어비에 새겨진 문구는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대를 따라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교육적 헌신을 표현하며 삼육대학교와 삼육교육이 지향하는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안된 것이었다.¹ 삼육교육표어비 건립을 마지막으로 1996년부터 시작해 1997년에 완성한 개교90주년 기념사업 및 터전 마련 50주년 기념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삼육대학교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발판 삼아서 개교100주년을 향한 도약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⁴이 건축물은 1998년도에는 패스파인더 동아리 룸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3.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보고서, 1997년도, 5-2.

제3장 갈 길과 살 길의 모색

(1996~2000)

1990년대 후반에 삼육대학교가 직면한 가시적인 과제는 개교90주년 행사를 통한 삼육교육 역사의 재정립, 대학종합평가인증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 대학 경쟁력 제고와 생존전략 마련 등이었다. 특별히 20세기의 마지막 시기들을 지내면서 곧 도래할 21세기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해야만 하는 과제는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였다.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대학종합평가에 대한 준비작업과 개교9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다양한 개교90주년사업 및 행사들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래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행사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많이 있었다. 특별히 21세기를 앞두고 삼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발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신계훈 총장 이하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9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교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10년 후의 역사를 전망하기 위해 “갈 길과 살 길”을 모색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갔다. 그 역사적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1.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 추진

대학 운영협의회는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대학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필요에 부응한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199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기금조성 체제에 돌입하였다. 우선 기존의 기획실을 기획연구실과 기획관리실로 확장하고 기획관리실을 통해 발전기금조성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¹

대학발전기금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은 2000년까지 동문, 학부모, 교직원, 독지가, 교우들, 기업체,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 자산(부동산, 귀중품 등) 등을 기탁 받아 50억 원을 모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특별히 1구좌를 5만원으로 정하고 각 구좌에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소액 기부자들도 많이 모아서 대학발전을 위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² 기금의 용도는 장학기금, 학술연구기금, 도서기금, 연구기자재기금, 체육기금, 각종시설기금 등이며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9.

²상계서, 8.

기금 용도는 물론 기금 출연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은 특별 예우제도를 마련하였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특정 기금의 경우 감사패를 증정하고 교내에 출연자 기념패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모든 출연자들에게는 삼육대소식(삼육학보, 돌단)을 송부할 것이며, 도서관 이용 및 학교 방문시의 편리를 제공하며, 삼육유우 할인, 계절학기 수강료 20% 할인, 어학원(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서울위생병원(치과병원 포함)과 부산위생병원 진료 시 진료비 20% 할인 등의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 등이 특별 예우의 주요 내용들이다. 특별히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금 명칭(예: 00장학금)을 부여하며 특정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고, 생활관과 신학관과 기타 건물에 기금하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기부자의 기념패를 설치하는 예우도 제공될 것이었다.¹

대학은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대학발전기금 조성 캠페인 홍보책자 및 약정서를 만들어 기금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발행된 삼육학보에는 거의 매 호마다 대학발전기금 조성 캠페인 홍보 및 기금 출연자 명단 등이 게재되었다. 초기에는 대학 교직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직원들의 경우 1천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기금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몇몇 미담사례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7년 6월과 9월에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들이 익명으로 1천만 원의 기금을 각각 출연하였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익명으로 기부금을 드려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² 이렇게 본격적인 발전기금 조성캠페인이 전개되면서 약 1년 6개월 만인 1997년 10월까지 모인 발전기금은 12억 원을 넘어섰으며, 대학은 그 기금으로 바울관 건축, 생활관 환경개선, 후문 도로 포장, 기자재 구입, 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용하였다.³

대학발전기금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거액을 회사함으로 대학의 발전에 공헌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다. 특별히 익명의 기부자들의 이야기는 상당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1998년에는 익명의 한 젊은 부부가 직접 대외협력실로 찾아와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신학관 건립에 이 같은 거액을 기부한 것이다.⁴ 1998년에 삼육대신문을 통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1998년 10월

¹삼육학보, 1996년 4월 30일자, 7.

²삼육학보, 1997년 10월 7일자, 6.

³상계서.

⁴1억 원을 출연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다음의 자료에 남겨져 있다. 한성보, “여보세요! 그곳이 발전기금 취급하는 곳입니까?” 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7.

27일까지 모금된 발전기금은 712여 명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약 31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는 목표액인 50억 원의 60%를 넘어선 것이었다.¹

1999년 들어서 대학발전기금 조성 캠페인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우선 출연방법에 있어서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ARS(700-0036)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다. 한 통화 당 2,000원씩 적립되는 ARS 후원기금 마련 제도는 적지만 꾸준히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와 함께 대학발전기금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후원자들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80] 대학발전기금 후원회에 대한 예우 내용

예우내용	회원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회원을 책자로 영구보존	○	○	○	○	○	○	○	○	○	
출장명의 감사패 혹은 기념품 증정							○	○	○	
자녀 혹은 손자녀(외손) 1인 등록금 면제(*참조)									○	
사회교육원, 언어교육원 할인 (20%)			○	○	○	○	○	○	○	
도서관 평생 열람증(본인)							○	○	○	
도서관 평생 열람증(직계가족)								○	○	
평생차량 출입증(본인)							○	○	○	
평생차량 출입증(직계가족)								○	○	
위생병원 MRI 20%(본인)	○	○	○	○	○	○	○	○	○	
조음과 및 치과병원 진료비 20%(본인)	○	○	○	○	○	○	○	○	○	
삼육대학 우유 할인(대학구내)	○	○	○	○	○	○	○	○	○	
생활관 출연자-기념방명명 (졸업 때까지-자녀 거주가능)							○	○	○	
계절학기 수강료 20%할인(본인)			○	○	○	○	○	○	○	
계절학기 수강료 20% 할인(직계가족)				○	○	○	○	○	○	
참여자 동판 각명 건물 부착		○	○	○	○	○	○	○	○	
건물 또는 실 명명									○	
체육관 이용(가족)					○	○	○	○	○	
* 1억원 이상 내신 분들은 자녀 혹은 손자녀(외손) 1인에게 대학 재학기간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이르러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부

¹상계서.

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비전100주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대학발전기금 조성 외에 대학의 갈 길과 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추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이 발전계획안은 1998년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해 대학이 마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했다. 이 발전계획안 수립은 기획연구실에서 전담하게 되었다.

대학운영협의회는 1996년 3월 18일에 6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중장기 발전계획 실무기획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¹ 당시 행정관 3층에 기획실을 마련하고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체제에 돌입하였다. 계획의 기본 골격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독교대학으로서 2001년까지 성서적인 인간교육과 직업지향교육 실행”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계획안의 체계 속에는 교육이념과 사명이 진술되었으며, 그 교육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특성화 전략으로 성서적 인간교육과 직업지향교육을 교육의 두 축으로 내세웠다. 성서적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교양교육(다양한 과목의 교양교육), 신앙교육(성경, 찬송, 예배), 건강교육(보건 및 실업교육)을, 직업지향교육을 위해서는 기능교육(영어회화, 전산교육), 전공교육(각 학과교육)을 각각 중심과제로 내세웠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대상황을 분석(SWOT)하고 교육 벤치마킹을 하는 등 다양한 분석적 노력을 기울였다.²

이와 함께 학생, 교수, 교육환경, 경영관리 등 4개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학생영역에서는 우수학생 유치 전략과 함께 학생지원 및 취업 등의 전략들이 구축되었으며, 교수영역에서는 교수들의 채용, 개발, 교육, 연구, 봉사 등의 부분에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였다. 교육환경영역에서는 강의실과 실험실 등 기본시설들과 도서관, 체육관 등의 지원시설들의 중장기 건립계획을 마련하였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환경적인 내용으로 공원화 계획 등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경영관리영역에서 대학조직 및 체제, 인사, 기획, 통제, 재정 등 세부적인 행정망 구축을 위한 전략들도 마련되었다.³

기획연구실의 대학중장기 발전계획 실무기획팀은 기초적인 발전계획안을 작성한 후 3차에 걸쳐서 교수회의에 붙여 토의하고, 처·실장 회의 및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토

1“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보고, 1996년도, 5-35.

2상계서.

3상계서, 5-36.

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 나갔다.¹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의 첫 번째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8년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대학중장기 발전전략이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발전계획안은 여러 면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좀 더 심도 있는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계획 초안을 유지하면서 더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학의 외부와 내부 기관들로부터 발전계획 연구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안 설명회는 1997년 10월 21일과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외부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회사의 제안 설명회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내부기관인 전략경영정보시스템 연구소(소장: 김재완 교수)의 제안 설명회로 진행되었다.² 대학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기획 의도는 삼육대학교의 미래상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시대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21세기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삼육대학교의 고유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갈 전략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립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와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발전계획수립 연구소로 외부기관과 내부기관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 전문기관의 경우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해 대내외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전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대학 내부 연구소의 경우는 대학의 내부 역량 평가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구축하기 용이하고 투자비용 효과 면에서도 장점이 있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대학 내의 연구소인 전략경영정보시스템 연구소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98년 10월에 대학 종합평가와 개교 100주년을 위한 “비전100주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었다.³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특성화·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 본교를 기독교 전인교육 중심의 소규모 우량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크게 열 가지 전략적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그 열 가지 전략으로는 첫째, 신앙 및 인성교육의 내실화, 둘째, 선도적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셋째, 국내외 대학 간 교육협력체제 강화, 넷째, 조직 및 행정관리의 혁신, 다섯째,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 여섯째, 소규모 정

¹학생 대표를 위한 발전계획안 발표회 및 토론회는 1996년 9월 5일 오후 2시에 학생처장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자, 1.

²삼육학보, 1997년 11월 27일자, 7.

³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8년도, 5-29.

예주의 전략, 일곱째, 대외 홍보 및 사회봉사 체제 강화, 여덟째, 최적의 교육환경 개발, 아홉째,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 및 개선, 열째, 재원 확충 및 다원화이다.¹

이렇게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대학은 대학종합평가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개교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가 기독교 전인교육의 요람으로서 건강복지분야 국내 최우수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명실 공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일관된 목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발전계획은 대학종합평가를 위해서 구축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교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완 및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1990년대 후반의 대학 역사의 변화의 발전의 중심이 되었고, 21세기 및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학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고 선포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3. 부설연구소 및 각종 기구 설치

1996년도에는 평가에 대비해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들을 통폐합하고 대학 내 각종 기구 및 시설들을 설치하는 등 대학 행정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1) 부설연구소의 통폐합(1996)

대학운영협의회에서는 1996년 6월 20일에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기존의 연구소들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0개의 연구소를 6개로 통폐합하는 안을 결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언의신연구소”를 “예언의신연구원”으로 개칭하여 대학 부속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결의도 이루어졌으며, 6개로 통합된 연구소에는 각각 연구소 조교를 지원하기로 하는 결의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이 결의에 따라 신학연구소(소장: 남대극 박사)는 그대로 남게 되었고, 종교사회과학연구소와 선교문제연구소는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오만규 박사)로 통합되었으며, 생명과학연구소와 Newstart영양연구소도 보건·식·의약연구소(소장: 송숙자 박사)로 통합되었다. 한편 성서원어연구소와 행동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경관원예연구소 등은 폐지하고 학생생활연구소(소장: 김봉진 박사)와 전략경영정보시스템연구소(소장: 김재완 박사), 자연과학연구소(소장: 권오달 교수)가 새로 부설되었다. 이 중 보건·식·의약연구소는 그해 11월 14일에 생명과학연구소로 다시 개칭되었다.² 이렇게 해서 6개의 연구

¹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2.

소가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

부설 연구소들의 설치 및 활동은 역사를 진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개한 바 있다. 1963년에 종교사회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1967년에 식량농업연구소가 개설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서는 그리스도인교육연구소와 선교문제연구소가 설치된 바 있었다. 1975년에는 행동과학연구소(초대소장: 이기돈 박사)를 부설하였으며, 1989년에는 기초과학연구소(초대소장: 최종벽 교수)가 부설되었다.

대학 내 부설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는 해는 1990년대였다. 1990년에 종교사회과학연구소를 폐지하고 신학연구소(소장: 안금영 박사)가 개설되었으며, 1991년에 경관원예연구소(소장: 한상경 박사)가 신설되었다. 1992년에는 70년대에 설치되었던 선교문제연구소를 폐쇄하고 대신 종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오만규 박사)를 다시 설치하였다. 1993년에는 생명과학연구소(소장: 이강오 박사)와 식품영양연구소(소장: 정근희 박사), 1994년에는 성서원어연구소(소장: 이종근 박사), 1995년에는 식품영양연구소가 Newstart연구소(소장: 송숙자 박사)로 개칭되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¹ 이렇게 해서 10개의 연구소가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96년에 이르러 6개로 통폐합되어 연구소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각 연구소들은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과 같은 학술 발표회 및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다양한 학술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 대학 연구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 학술지 활동을 정리해 보면 신학연구소의 “신학리뷰”(1993년 창간)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의 “종교와 사회”(1994년 창간, 나중에 “선교와 사회”로 제호가 바뀜), 생명과학연구소의 “생명과학”(1994년 창간) 학생생활연구소의 “학생생활연구”(1997년 창간)등이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있다.

2) 삼육물류센터(1996)

연구소들의 통폐합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소 활동을 정착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필요한 여러 기구 및 센터들이 설립되어 보다 더 규모 있는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6년 2월 28일에는 삼육물류센터(소장: 박순향 목사)를 부설해 유통사업 아이টে을 대학 운영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삼육물류센터는 초기에는 농수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다. 삼육대학교는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내에 많은 농수산업 종사자들, 특히 유기농 종사자들과 연대해 대학 내에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직거래장터 등을 열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물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6년도, 5-36.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518.

류센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WTO, OECD 등에 가입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한 계획이었다.¹

삼육유통센터는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3회에 걸쳐서 유통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유기농업 및 농산물 유통연수회는 1996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학 내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는 전국에서 250여 명의 농수산 관련업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이 모임에서 삼육유기농협회를 구성하고 회장에 한남용 장로(한국유기농협회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각 합회별로 5명의 부회장을 선출하여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 유기농수산업자들의 생산 및 유통을 통합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었다. 아울러 그 해 10월 28일에는 삼육대학교와 우리나라 최대의 백합단지인 정읍백합화훼단지(대표: 김상곤)와의 산학협동 자매결연식을 거행함으로써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과 경영 개선 및 업무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였다.²

이 후 1997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도 역시 25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제3회 연수회는 재림청장년 농산자들을 초청하여 1997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역시 선교9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는데 135명의 재림청장년 농산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연수회에서 삼육유통센터는 삼육물류센터로 개칭되었다. 이 센터가 단지 농수산물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취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경된 것이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된 삼육물류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해 어려운 농촌을 도우면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대학발전기금을 조성코자 하였다. 그러나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삼육물류센터는 새롭게 건축된 바울관 지하에 화장품 및 문구류, 팬시물품 등을 판매하는 문구점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삼육물류센터의 화장품 판매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고, 1월 21일부터는 각종 문구류 및 팬시용 등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³

3) 재활치료학과 HELMAS 설치(1996)

1996년 5월 6일에는 재활치료학과(학과장: 김평안 교수) 운동치료실(에스라관 2층) 내에 HELMAS(Health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하고 오픈식을 거행하였다. HELMAS는 체력을 측정하고 진단하여 그 체력에 맞는 운동을 처방함으로써 균형진 체력발달을 돕는 시스템으로서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이었다.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6년도, 5-2.

²삼육학보, 1997년 3월 12일자, 6.

³삼육학보, 1998년 3월 16일자, 7.

시스템의 구성은 측정기(신장, 체중, 폐활량, 혈압, 맥박,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높이뛰기, 눈감고 외발 서기, 전신 반응, 에어로 바이크, 스텝 테스트, 윗몸 일으키기)와 프로그램 분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기의 기능은 신체 구성과 순환기 및 심폐기능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등과 관련된 체력적 요소들을 측정하여 현재의 체력상태를 평가하고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것이 핵심이다.¹

삼육대학교 재활치료학과는 이 시스템과 더불어 정확한 운동처방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도움으로써 대학의 보건복지 특성화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우선은 교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으며, 나아가 전체 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4) 보건진료소 설치(1996)

1996년 5월 31일에는 대학 내에 정식으로 보건진료소(소장: 이석민 교수)가 설치되었다. 그동안은 위생실만으로 운영되었으나 정식으로 보건진료실이 설치됨에 따라 위생실의 기능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대학 보건진료실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위생실의 기능을 보강한 보건진료실은 진료와 상담을 겸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진료내용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진료시설 외에 덴탈 চে어, 덴탈 X-레이 등의 시설과 환자 침대를 새로 갖추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진료실은 진료인원 모두 자격증을 갖춘 교수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진료와 예약진료 모두 가능하게 이루어졌다. 특별히 일반진료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가능하며 진료비는 무료이고, 치과진료의 경우 진료비는 2천원, 스켈링은 2만 원이고 예방치과 진료는 시중보다 50% 할인되며 보철은 30%가 할인되는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기도 했다.² 이러한 보건진료실의 설치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5) 인터넷센터 개원(1996)

1996년 4월 18일 대학운영위원회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T1급의 전용선을 부설하여 인터넷(Internet)에 가입하기로 결의하고 인터넷위원회를 구성하였다.³ 인터

¹삼육학보, 1996년 6월 5일자, 1.

²삼육학보, 1996년 6월 5일자, 9.

³최초 가입 당시에 부설한 인터넷 전용선은 T1급으로 월 2,424,000원에 가입하였다.

넷위원회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재미교포 육일박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재완 교수, 오덕신 교수, 김영진 선생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인터넷 위원회는 대학 내 인터넷 구축을 위해 1996년 9월에 도서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0월 23일에 인터넷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본격적인 인터넷시대의 서막을 열었다.¹

인터넷센터는 T1급 전용선으로 교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에는 전교생에게 e-mail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세천사마을 홈페이지(3angels village)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12월 1일에는 Remote Dial-Up을 오픈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오픈하였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터넷 환경들을 구축함으로써 1994년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인터넷 사용 환경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인터넷 환경은 학생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T1급 전용선을 설치했지만 이용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대학은 1998년 11월 2일에 T3급 초고속통신망(45Mbps, T3, ATM)을 한국통신의 시설지원(14억 상당)과 대학의 투자(6억)로 설치하고 최첨단 자동교환기(ISDN)를 신설하여 구내 모든 방에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

인터넷센터는 대학 내 인터넷 환경 구축 이외에도 새로운 IT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였다. 1997년 6월 4일에는 선교90주년기념관에서 대학원·신학대학원 주최이 주최하고 인터넷센터와 세천사 신문사가 주관하는 멀티미디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선교전략과 그 실제”를 주제로 한 이 세미나에서 강사들(미디어센터 원장 박성하 목사, 인터넷센터 소장 육일박 장로)은 미래 정보사회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환경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구축해 주었다.

1997년 8월 1일에 인터넷센터는 인터넷 영어학원을 개시하고 11월에는 세천사마을(홈페이지)을 재림교회 공식 홈페이지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넘어 재림교회 전체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인터넷센터는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인터넷 사용 지원(e-mail, 홈페이지 등), 교내 네트워크(인트라넷)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대학 내 정보화의 센터로 한 동안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인터넷센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용 기반이 구축되는 시대에 삼육대학교가 뒤처지지 않고 그 정보 환경에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¹인터넷 센터는 1994년에 개관한 T.M.C.(도서관 2층)의 이용 및 운영상황이 저조하자 그 공간의 일부를 할애 받아 설치되었다. 삼육학보, 1996년 6월 5일자, 5.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8년도, 5-2.

6) 공동실험실 운영(1996. 12)

1996년 12월 7일 대학운영위원회는 대학 내에서 공동실험실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실험실을 조직하였다. 원활한 실험실 활용을 위해 조직된 공동실험실은 실장으로 임명된 이강오 교수를 중심으로 분석화학실험실 책임에 유구용 교수, 생물학실험실 책임에 이강오 교수, 화학실험실 책임에 이동섭 교수, 기기분석실험실 책임에 임동술 교수, 미생물실험실 책임에 하남주 교수, 유기화학실험실 책임에 박두한 교수, 생리학실험실 책임에 부문종 교수, 생화학실험실 책임에 정근희 교수, 물리학실험실 책임에 이규봉 교수, 해부학실험실 책임에 이해덕 교수, 실험동물실 책임에 이상진 교수(1997. 9)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공동실험실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는 교무처장 김기곤 교수, 서기에는 이강오 교수를 임명하였다.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1997년 8월부터 총무처장에게로 이관되었다.

7) 교육매체원 개원(1997)

1997년 3월 2일에 교육매체원이 개원되었다. 교육매체원은 급변하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여건의 정보화, 전산화의 형태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에 걸맞는 교육매체에 필요한 기기의 확보와 관리가 시급하게 되어 개원하게 되었다. 교육매체원이 하는 일은 교육자료 복사 및 재단, 각종 행사 및 기록자료 촬영 및 녹화보존, 교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슬라이드 필름과 사진자료 스캔 편집, 시청각 교육자료의 촬영과 편집 및 제작, 카세트 교재 고속복사 및 편집, 멀티큐브 시스템과 PA 방송시스템 관리, 시청각 교육장비 대여 관리, 학술세미나와 시청각 강의 및 학생 교육준비 지원, 교수들의 교재 및 연구물 출판 등으로 교육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작은 물론 각종 교육기자재의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개원 당시에 원장 1명(표성수 교수)과 직원 3명(출판 및 홍보자료 제작부: 김해동, 시청각부: 권오철, 교육자료부: 권오주)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고속복사기, 매킨토시 컴퓨터 및 주변 장치들, 비디오 편집장비 등 자료제작에 필요한 각종 첨단장비들을 구비하였고, 액정비전, OHP, 슬라이드 등 시청각 기자재들을 완비하였다.¹

교육매체원은 바울관이 완공되면서 바울관 1층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다가 제2과학관이 준공과 더불어 그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후 2000년에 교육매체원은 해체되고 교육지원서비스 업무만이 에스라관 1층에서 진행되었다. 이 교육지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7년도, 5-14.

원센터는 2003년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개원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8) 학생서비스센터 신설(1997)

1997년 7월 1일 학생처 산하에 학생서비스센터가 신설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취업보도실과 더불어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센터로 장금자 선생을 실무 담당으로 하여 최초 오픈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개원된 직후 바울관 완공과 더불어 사무실을 바울관 1층 101호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¹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업무는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학사 업무, 서류 접수, 학사 관련 각종 정보 안내, 정보 조회 및 정정, 상담 예약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학적부 관련 업무, 성적, 졸업, 재학, 재적, 수료, 졸업 예정증명서, 장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구직신청 및 알선 상담, 학생 여객운임 할인증 발급, 휴학원 및 복학원, 병사업무, 불편사항 접수 등의 학사업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학교 안내, 동아리 안내, 병무관련 안내, 지역교회 출결확인, 채플 출결확인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특별히 매 학기 초에 강의시간표와 수업계획서와 수강신청내역 조회 등을 이곳에서 할 수 있었으며, 교수 상담시간 조회, 성적일람 등의 학사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정정할 수도 있었다. 기타 학사, 행정, 신앙, 취업 및 진로, 유학, 상담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곳 학생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는 취업정보실(102호)과 나란히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다. 학생처 산하에 개설된 기관으로 학생서비스센터와 취업정보실은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지원하는 중심기관이 되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 이 두 기관은 2008년에 취업정보·서비스센터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9) 한일은행 출장소 개점 및 학생 ID카드 발급

1997년 8월 13일에 구 여학생휴게실 자리에 한일은행 중화동 지점 삼육대학교 출장소(소장: 최규인)가 개점되었다. 그동안은 파출 수납소 형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출금 업무만을 담당해왔던 관계로 더 포괄적인 은행업무가 필요하게 되자 대학은 한일은행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일은행 출장소 개점을 설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일은행 중화동 지점에서는 대학 내 정식 출장소를 개점하고 출장소장, 청원경찰, 직원 2명 등 총 4명의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은행 출장소 업무를 진행하

¹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6.

게 되었다.¹ 출장소의 장소가 구여학생회휴게실로 결정된 것은 바울관이 건축되고 여학생휴게실이 그 건물 지하로 옮겨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출장소는 정부의 제2차 금융구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포합리화 계획에 따라 2000년 11월 3일에 다시 중화동지점으로 통합됨으로써 삼육대학교에서 철수하였다.²

한편 1997년 4월부터는 은행과 제휴해 학생증을 ID카드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학생증의 ID카드화는 199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은행 측과의 협의 과정상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1997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ID카드는 학생증과 도서대출증과 현금지급기능 등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진 카드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발급받게 되었다. 원래는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과 카드 발급을 협의했으나 학교 측에서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한일은행과의 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³ 대학 측은 한일은행 이외에도 농협 및 국민은행 측과도 협의를 했지만 이 은행들 역시 3 가지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이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결국 제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ID 카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다.

ID카드가 발급됨으로써 학생들은 도서관 출입 및 대출을 위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도서관 출입 및 대출 업무가 전산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ID카드를 사용해 도서관을 출입할 때 출입통제기 사용에 익숙지 않아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불편함이 가중되기도 했다.⁴ 그러나 대출이 자동화되고 출입도 점차 익숙해지게 됨에 따라서 ID카드 기능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ID카드는 2000년에 R.F.카드(Radio Frequency Card) 도입과 더불어 변경을 추진하였다.⁵ 그러나 R.F.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아 2004년에 우리은행의 후원으로 스마트학생증카드가 발급됨으로써 교체되었다. 우리은행과 제휴한 스마트학생증카드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된 카드로 학생증, 신분증 기능은 물론 도서관출입, 도서대출, 식당/매점 소액결제, 입출금, 충전시스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탑재 등 ID 확인기능과 금융기능이 통합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⁶

¹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6.

²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6.

³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ID카드는 학생증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카드 지급과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의 유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셋째, ID카드에 현금지급기능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생증과 도서대출증의 기능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육학보, 1997년 4월 7일자, 4.

⁴삼육학보, 1997년 10월 7일자, 1.

⁵삼육대신문, 2000년 11월 20일자, 2.

⁶삼육동소식, 2003년 4월 24일자, 2.

10) 단연클리닉 개원(1999)

1999년 5월 12일에는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 김봉진 교수)의 주관 아래 단연클리닉을 개원하였다. 단연클리닉은 기존의 금연운동 개념인 금연(Non-Smoking)을 단연(Stop Smoking)으로 바꾸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한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살리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개원하게 되었다.¹⁾

삼육대학교는 지금까지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금연금주정책 등 보건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서 대학 내에 재떨이, 커피 자판기 등이 없는 청결하고 건강한 대학의 이미지를 확립하여 왔다. 이러한 대학의 정책은 보건복지를 특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비전 및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보다 더 조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학생생활상담센터의 노력으로 단연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것이다.

단연클리닉 개원 행사에는 대학과 교회 내의 관련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보건복지 관련 내빈들도 참석하여 이 클리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별히 내빈으로 참석한 박용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단연클리닉을 개원한 삼육대학교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더불어 “흡연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본교 학생들은 금연운동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인 본교의 특수성을 홍보하겠다”고 격려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협력 의지를 천명하였다.²⁾

4. 학과 증설 및 교육 제도의 발전(1996~1999)

1993~1995년에 대학에 3개 학과, 병설전문대학에 4개 학과가 증설되어 학과수가 대학 15개, 전문대학 11개로 늘어난 것은 이미 설명한 내용과 같다. 대학은 계속적인 증설계획을 가지고 교육부에 인가를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학과를 증설해 나갔다.

1) 간호과 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증원

1996년 10월 23일에는 일반학과의 증과는 없었고, 다만 교육부로부터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과정) 40명을 증원받았다. 이 과정은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학생들에게 4년제 학사학위를 부여하기 위한 특별과정이었다. 본 대학의 자매대학인 삼육간호전문대학에서 많은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별과정은 그 학생들로 하여금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¹⁾교회지남, 1999년 7월호, 72.

²⁾삼육대신문, 1999년 6월 9일자, 7.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간호학사 특별과정이 인가된 다음 날인 10월 24일에는 영양학과를 식품영양학과로 변경하는 명칭 변경안이 인가되었다.

2) 학과의 증설

학과 증설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은 1997년이였다. 그 해 11월 5일에 교육부는 삼육대학교 내에 영어영문학과 증원(야간 30명)과 함께 환경디자인학과(야간 30명), 생활체육과학과(야간 50명)를 인가함으로써 1998년 3월부터 이 두 학과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998년에는 기독교상담학과(30명)가 신설되어 1999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디자인학과는 관상식물을 현대 생활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장식하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첨단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로 날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생활공간 환경을 기능면에서나 감상 면에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장식하기 위한 관상원예환경이론과 환경원예장식과 조경디자인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관상원예조경장식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신설되었다. 환경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실내조경기사 및 조경기사, 화훼장식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도 이수할 수 있다.¹ 환경디자인학과는 1999년 3월 1일부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되었고, 학과명도 환경원예디자인학과로 개명되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생활체육과학과는 삼육교육이념에 따라 균형진 조화로 전인적 인간교육의 성취를 위한 신체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실천하는 학과로 개설되었다. 따라서 이 학과에서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생활체육을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체육개론,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해부학, 생리학 등), 임상스포츠의학(생활의학과 운동처방 등), 스포츠영양학(비만, 체중조절 프로그램 등), 운동건강심리학(스트레스관리 등), 스포츠마케팅(스포츠경영학, 스포츠산업학 등) 등의 이론 학문과 생활체육 전문실기 등을 교육하여 전문적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게 되었다.²

생활체육과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생활체육지도자 2급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생활체육과학과 역시 1999년 3월 1일부로 야간에서 주관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3월 1일부터는 생활체육학과로 개명되어 운영되었다.

기독교상담학과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

¹삼육대학교 요람(1998-1999): 128.

²상계서, 207.

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이 개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는 기독교적인 교육이념을 가지고 다양한 심리학과 상담이론, 상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기독교상담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사(문화체육부),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가족부), 직업상담사(산업인력공단) 등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상담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¹ 기독교상담학과는 2004년 3월 1일부터는 학과명을 상담학과로 바꾸고 교직과정을 신설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선호하는 학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 편 대학원의 경우는 1995년 10월 18일에 간호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된 데 이어 1998년 11월 13일에는 생물학과 과정이 신설되어 1999년부터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1999년 11월 2일에는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 30명도 신설 증원되었다.²

3) 비영리조직경영대학원 설치(1997)

1996년 11월 2일에 교육부로부터 비영리조직경영대학원 설치(정원 20명)를 인가 받고 1997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이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비영리조직(공공기관, 병원, 교육기관, 사회봉사단체, 교회 등) 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개설된 것으로 특별히 재림교회 내에 시급한 경영 및 재무 인력의 교육과 수급을 위해 마련된 과정이었다. 이렇게 신설된 비영리조직경영대학원에서는 L.M.P. (Learning Modules Program)라는 특수교과과정을 운영하여 경영혁신 기업이나 비영리조직 경영사례를 전문가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경영학을 비롯한 정치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등의 학제 간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비영리조직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자질을 계발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강좌, 부부강좌, 현장견학, 해외연수 등의 특별프로그램들도 운영하였다.³

비영리조직경영대학원의 교수진으로는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들 외에도 고종문(국제금융 전공), 김평웅(병원경영 전공), 배진수(정치학 전공) 등 초빙교수들도 참여하였다. 수업은 주 2일 야간으로 진행되므로 업무를 마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1998년부터는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등록금의 40%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⁴ 이 대학원 과정은 재림교회에 소속된 33개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380여 명의 계장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경영관리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¹삼육대학교 요람(2000): 102.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23.

³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7년도, 5-33.

⁴“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27.

4) 학부제의 도입과 운영(1999)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학부제의 체제를 행정적으로 구축한 것은 1993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당시의 학부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구조였을 뿐 대학의 학사 행정을 계열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학부제는 아니었다. 대학 내에 학부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1996년도였다. 대학종합평가를 준비하면서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 때 도입된 학부제도는 1993년도에 조직된 4개 학부 중 인문사회과학부를 인문사회학부, 경상학부, 음악학부 등 3개의 학부로 나눠 총 6개의 학부로 편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신학부는 오만규 교수, 인문사회학부는 홍규표 교수, 자연과학부는 권오달 교수, 의약학부는 이숙연 교수, 경상학부는 최준환 교수, 음악학부는 조문양 교수가 담당하였고, 별도의 조직 체계로서 교양학부를 설치하고 김봉진 교수에게 학부장을 맡겼었다.¹

그러나 이 때 도입된 학부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부제도는 아니었다. 이 학부제는 단지 동일계열학과의 상호연합 아래 학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과들을 동일계열별로 묶어 6명의 학부장을 두고 인적자원, 실험실, 기기 등을 공유하고, 합동연구소 설치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는 학부제도였다. 삼육대학교는 교육부의 학부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열학과의 부족, 학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을 계열별로 모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부제 도입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계열별 모집을 중심으로 한 학부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1990년대 후반에 전국의 대학들은 학부제 도입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부제 운영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학부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 이에 삼육대학교 역시 학부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한 끝에 1999년부터 전격적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³ 이 때 실시한 학부제의 모집 단위와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⁴

[표 81] 학부제 체제 및 모집단위(1999~2000)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5.

²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4.

³삼육대신문, 1998년 11월 2일자, 4.

⁴삼육대신문, 1999년 11월 4일자, 3.

구분 학부	1999학년도 모집단위		2000학년도 모집단위	
	학부(학과)	인원	학부(학과)	인원
인문계	신학과	40	신학과	40
	기독교상담학과	30	기독교상담학과	30
	인문사회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경영학 전공	110	인문사회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130(35)
	인문사회과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경영정보학 전공 컴퓨터과학 전공	150(150)	테크노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경영정보학 전공 컴퓨터과학 전공	130(60)
	소계	330(150)	소계	330(95)
자연계	간호학과	30	간호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이학부 화학 전공 생물학 전공	90	자연과학부 화학 전공 생물학 전공	90
	생명자원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응용동물학 전공	90	생명자원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응용동물학 전공 원예학 전공	130
	환경원예학부 원예학 전공 환경원예디자인학 전공	80		
	재활치료학과(야)	40	물리치료학과	40
	소계	360(40)	소계	320
예체능계	생활체육과학과	50	생활체육학과	50
	음악교육과	40	음악교육과	40
			환경원예디자인학과	40
	소계	90	소계	130
총 계	주간: 590, 야간 190, 총 780명		주간 685, 야간 95, 총 780명	

이러한 학부제 모집에 따라서 학생들은 1999학년도부터 학부별 모집단위로 입학하게 되었다. 1999학년도에는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재활치료학과, 생활체육과학과, 음악교육과는 과별로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그 외는 인문사회학부, 인문사회과학부, 이학부, 생명자원과학부, 환경원예학부 등 학부별로 학생들을 모집해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첫 해의 학부제는 행정적 체제와 모집단위에 문제가 있어 조정을 거쳐 2000학년도부터는 약간 조정된 모집단위별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조정된 내용은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문사회과학부가 폐지되고 테크노경영학부가 신설되었으며, 이학부가 자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환경원예학부도 폐지되고 환경원

에디디자인학과가 예능계열로 변경된 것 등이었다.¹ 그러나 이 변경안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면 1999학년도에 영어영문학 전공과 경영학 전공이 인문사회학부에 편입되고, 인문사회과학부에 역시 비슷한 전공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0학년도의 조정안에서는 인문사회과학부를 폐지하고 대신 테크노경영학부를 두어 경영학 전공과 컴퓨터과학 전공을 이학부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문사회학부에 영어영문학 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이 하나의 학부로 편제되어 있어서 어문계열과 사회계열이 하나의 계열학부로 묶여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계열학과의 부족이 낳은 현상이었다.

이처럼 계열별 불일치의 문제와 선후배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완화 등 학부제와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구체화되자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부제가 가지는 장점 및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자는 대의에 따라서 2001년 입시부터는 학생모집을 다시 학과제로 운영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간호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생활체육학과, 음악교육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는 기존과 같이 학과별로 모집하고, 인문사회학부 주, 야간을 통합하여 인문학부(영어영문학 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로 개칭하고 사회복지학과는 분리하여 학과별로 모집하게 되었다. 자연과학부에 속한 화학과와 생물학과는 분리하여 학과별로 모집하고, 생명자원과학부도 다시 분리해 식품영양학과, 원예학과, 응용동물과가 다시 학과단위로 편제되었다. 테크노경영학부는 학부제 그대로 두고 다만 주간(70명에서 82명)과 야간(60명에서 48명)의 모집정원만 조정하였다.²

이렇게 해서 정착된 학과 및 학부제는 2004년 3월 1일부로 새로운 학부제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부분은 그 시기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암튼 학부제를 학과제로 다시 전환하면서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복수전공 및 전과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 및 학생들 사이의 선후배 관계가 다시 원만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별히 당시 여러 대학들에서 학부제 철폐가 학생활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삼육대학교의 제도개편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³

5)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실시(1997)

학부제의 학과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최소전공인정학점제는 지속적으로 실시되

¹상계서.

²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3.

³상계서.

었다. 삼육대학교에 최소전공인정학점제가 도입된 해는 1997년이였다. 교육부는 1996년에 대학선택에 따른 최소전공인정학점제의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삼육대학교는 이 개혁안을 받아들여 다음 해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던 것이었다.

최소전공인정학점제란 학생들에게 한 가지의 전공교육만 실시하기 보다는 더 넓은 상식과 교양, 인성교육, 제2전공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공이수학점을 낮추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줄어든 전공학점 덕분에 복수전공 등 다양한 학문경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전의 제도 아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100학점과 교양 및 일반선택 40학점 등 140학점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소전공인정학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은 전공 75학점, 교양 및 일반선택 65학점을, 자연계열은 전공 80학점, 교양 및 일반선택 6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공영역의 학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선택을 통해서 제2전공 영역의 학점들을 수강함으로써 제2전공을 쉽고 빠르게 이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에 따른 학생들의 졸업요건 학점은 다음과 같다.¹

[표 82] 최소전공인정학점제에 따른 학점 내용

	교양 및 일반선택					전공			총계
	계열	교양 필수	영역 선택	일반 선택	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하나의 전공만 선택할 때	인문사회 계열	30	6	29	65	45	30	75	140
	자연계열	30	6	24	60	50(51)	30	80(81)	140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할 때		30	6	9	45	제1전공 24	26 (27)	50 (51)	140
						제2전공 21	24	45	
부전공	인문사회 계열	30	6	18	54	전공 38	27	65	140
						부전공	21	21	
	자연계열	30	6	13	49	전공 43	27	70	140
				14	50	부전공	21	21	

최소전공인정학점제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전공에만 매달리지 않고 원하는 다른 전공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입학과 더불어 선택한 학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 전과나 전공변경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아울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부전공 이수요건인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²

¹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자, 3.

²상게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게 되는 점과 필수과목들이 전공 선택으로 바뀔에 따라서 비인기과목으로 전락해 폐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업이 겹쳐 중복수강이 발생하는 점 등은 이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 블록제를 시행하여 시간 중복 발생을 방지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1전공과목만 이수하도록 하는 학사지도 등을 강조하는 등 일련의 제도들도 마련하게 되었다.¹⁾

6) 동부지역 9개 대학 학점 교류(1997)

1997년 7월 21일에는 서울 동부지역에 위치한 9개 대학의 대표자들이 올림픽아 호텔에 모여 대학 간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성신여대, 세종대, 한성대 등 9개 대학은 학점 교류를 포함하는 대학 간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서 조인식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간 연계를 이룩하게 되었다.

조인된 협정서에 따르면 이들 9개 대학은 학생 및 학점교류(대학, 대학원), 교수 공동연구, 교직원 상호교류, 도서관 사용 및 자료 교류, 전산시스템 공동 활용 등의 포괄적 교류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종합평가제에 포함되는 상호교류 항목에 대한 논의 끝에 위의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협정서 초안을 교육부에 사전 보고하고 또 언론기관에 홍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조인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조인식 이후에 각 대학 실무자들은 협정서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세칙에는 각 학교에서 보내는 5명의 교환학생 중 인기강좌에 학생들이 편중될 것을 고려하여 교류대학은 한 강좌 당 2명 이하의 학생만을 모집하며 교류대학의 수강과목은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었다. 삼육대학교의 경우는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만 인정하며 학기 중 수강은 부작용을 고려하여 시행세칙이 정해지기까지 보류하였다. 아울러 동덕여대와 덕성여대와 성신여대 등은 여학생의 교환만을 수용하기도 했다.²⁾

9개 대학이 함께 학점교류 등 폭넓은 대학 간의 교류 협정서에 조인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였다. 대학 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 때문에 포괄적인 협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동부지역의 대학 간 교류협정은 한국의 대학들이 좀 더 개방된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준 사건이 되었다. 삼육대학교 역시 이 협정서를 토대로 대학 간 교류에 주체적으로 나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¹⁾상계서.

²⁾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1.

7) 교수평가제 시행(1998)

1998년도에는 교수평가제가 시행되어 교육환경의 변화를 꾀했다. 교수들의 강의 평가와 관련한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94년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각 교수들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하던 강의평가가 1994년부터는 대학의 행정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강의평가는 형식적인 면에 그쳐 강의평가제도의 의미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¹

따라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수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8년으로 볼 수 있다.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 집단 간의 상호견제의 한 형태”라는 명목으로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 교수평가는 세 가지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범주는 교수의 업적을 정해진 범주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까지 활용하는 형태이고, 둘째 범주는 대학교수의 업적만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접 인사관리에까지 활용하지는 않는 형태이며, 셋째 범주는 단순히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만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삼육대학교는 이중 첫 번째 범주에 따른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였다.²

이렇게 실시된 교수평가제는 설문내용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의 문제, 설문당사자인 학생들의 주관성 개입의 문제, 인사관리에 반영함에 따라 인기위주의 강의를 진행할 우려가 있는 문제 등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강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발전해갔다. 교수평가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교수들은 학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준비된 강좌를 이끌어가는 교사로서의 윤리의식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5. 병설전문대학의 발전

1990년대는 삼육대학교가 도약의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삼육병설전문대학 역시 발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1990년에 이르러 삼육대학병설전문대학으로 1993년 3월 1일에는 삼육대학교의 명칭변경과 함께 삼육대학교병설전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대학교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독립적인 학장체제 아래서 전문대학만의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구축

¹삼육확보, 1994년 6월 16일자, 3.

²삼육대신문, 1999년 12월 9일자, 3.

할 수 있게 되었다.

1) 병설전문대학의 행정 독립(1996)

1996년 3월에 삼육대학교 총장과 병설전문대학의 학장이 분리되면서 전문대학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다. 이에 독립적으로 전문대학장에 임명된 정순영 박사는 1996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병설전문대학을 신앙과 전문기술을 가르쳐 교회와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우수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¹

병설전문대학의 독립은 행정적 독립체제 형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분리 첫 해에는 병설전문대학을 담당하는 교무과장(장용선 교수)만 보직 임명되었을 뿐이었다. 전문대학은 1997년 9월 11일에 전용건물인 바울관이 준공하기 직전까지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시설의 미비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7월 28일에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 바울관이 드디어 완성됨으로써 전용건물을 갖추게 되자 전문대학의 발전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²

전용건물인 바울관의 완성으로 전문대학은 신 건물 1층에 통합사무실, 2층에 학장실과 비서실 및 교수 연구실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학사행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도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998년에 행정과장들을 임명하였는데 교학과장에 임봉순 교수, 기획과장에 이상진 교수, 학생과장에 이기호 교수, 실습지도과장에 최선순 교수가 각각 보직을 맡게 되었다. 이렇듯 전용건물이 완성되고 행정과장들이 보직을 맡게 되면서 병설전문대학은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 삼육의명대학으로 명칭 변경(1998. 6)

삼육대학교 병설전문대학은 1998년 6월 1일부로 대학명칭을 삼육의명대학으로 바꾸고 삼육의명대학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교육부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는 교육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³ 이중 1997년 6월 2일에 발표된 제4

¹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5.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3.

³1995년 5월 31일에 제1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996년 2월 9일, 1996년 8월 20일, 1997년 6월 2일에 각각 제2차, 제3차, 제4차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698.

차 교육개혁 방안에서 고등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교육의 개방화 체제 구축,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방안 중에는 전문대학의 명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¹

병설전문대학은 제4차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학교명칭 변경, 전공심화 과정 설치, 학부제안연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방안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및 신청 작업에 들어갔다.² 그러나 학교명 자율화는 인가를 받았지만 학부제안연도 폐지는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1998년에 본격적으로 교명변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로 붙여질 명칭은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전문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대학의 교육이념인 삼육이란 단어를 첫 머리에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되었다. 논의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같은 캠퍼스에 있는 삼육대학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삼육산업대학, 삼육과학대학, 삼육정보화대학 등의 이름들을 검토하였다. 특별히 지역명을 넣자는 제안에 따라서 서울삼육대학이라는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삼육대학교 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결정되지 못했고, 대신 삼육교육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학의 전신인 의명학교의 이름을 따서 삼육의 명대학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³

의명학교의 역사를 통해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의명”(義明)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로운 해”라는 뜻으로 하동협 선생에 의해서 제안된 이름이었다. 삼육병설전문대학은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삼육교육의 역사성을 부각시켰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높은 뜻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교명변경은 옛 것을 다시 찾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교명을 바꾼 후 삼육의명대학은 1999년도 들어서서 기존에 행정과장 제도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교체제도 전반적으로 바꾸어서 교무처와 산학협력처를 신설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한 부서들을 조직한 후 보직자들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교학처장에 임봉순 교수, 학생복지과장에 임종성 교수, 교무과장에 유동기 교수, 홍보과장에 전종범 교수, 산학협력처장에 이기호 교수, 산학협력과장에 신종열 교수, 기획과장에 신동근 교수 등이 보직을 맡아 새로운 세기를 향한 병설전문대학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다.⁴

¹상계서, 699, 700.

²삼육학보, 1997년 11월 10일자, 1.

³삼육대신문, 1998년 9월 14일자, 4.

⁴삼육대신문, 1999년 3월 29일자, 7.

3) 학과의 증설

병설전문대학은 1993년 9월 16일에 관광중국어과 40명(야간)과 산업미술과 40명(주간)을 인가받아 1994년부터 신설하게 되었다.¹ 그리고 1995년 10월 26일에는 전산사무자동화과 80명(야간)을 신설 인가받고, 자동차정비과는 기존의 주간 40명에 이어 야간 40명을 증원받아 80명 정원으로 증원되었으며, 낙농과는 생활환경과로 명칭을 바꾸고 야간 40명을 또 추가로 증원받아 역시 정원 80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설 또는 증원된 학과의 위상에 따라서 보직교수도 변경하여, 전산사무자동화과 과장에 정수목 교수, 생활환경과 과장에 김종은 교수, 자동차정비과 과장에 장우중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다.²

한편 학과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발전적인 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학과명을 변경한 학과들도 있었다. 대학의 경우 낙농자원학과가 응용동물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6년도부터 새로운 비전으로 학과를 운영하게 되었다. 학과 명칭 변경 사유는 낙농자원학과라는 명칭의 경우 ‘낙농’에 국한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³ 병설전문대학의 낙농과 역시 생활환경과로 바꾸어 낙농과 애완동물과 화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병설전문대학에 많은 학과들이 증설된 것은 1997년부터였다. 이때부터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역사를 창출하게 되었다. 우선 1997년 11월 18일부로 건축설계과, 관광일본어통역과, 아동미술과의 신설을 인가받아 1998년 3월 1일부로 세 과의 신설 운영이 가능해졌다. 건축설계과는 주간 40명, 야간 80명 등 총 120명의 입학 정원을 인가받았으며, 관광일본어통역과와 아동미술과는 각각 야간 40명씩의 정원을 인가받았다. 한편 산업미술과를 산업디자인과로 개명하고 기존의 주간 40명 외에 야간 80명을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1998년에 병설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기존에 비해 28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산업디자인과의 명칭변경과 함께 생활환경과를 동물자원과로, 전산사무자동화과를 전산정보과로 변경 인가를 받아 학과명이 바뀌어 지기도 했다.

1998년 후반기에는 7개 과의 신설을 인가 받아 1999년 3월 1일부로 운영하게 되었다. 신설된 학과는 식품과학과(야간 40명), 유통경영과(주간 40명, 야간 40명), 아동복지과(주간 40명), 광고정보과(주간 40명, 야간 40명), 유아교육과(주간 40명),

¹삼육학보, 1994년 4월 7일자, 1.

²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회의사록, 1995년도, 342.

³삼육학보, 1996년 3월 27일자, 3.

관광영어통역과(주간 40명), 자동차과(주간 40명) 등이다. 이렇게 많은 과들이 증설됨에 따라 1999년에는 신설된 과들의 입학정원수가 36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학생 정원은 1996년에 580명이던 것이 1999년에 이르러서는 1,22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¹ 학과수도 15개 학과에 이르게 되었다. 발전의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학년도 학과와 학생의 모집 정원은 다음과 같다.²

[표 83] 삼육의명대학 정원 계획(1999)

구 분	학 과 명	정 원		계
		주 간	야 간	
농업계	동물자원과	40	40	80
	소계(1개과)	40	40	80
공업계	식품과학과	40	40	80
	전산정보과	80	80	160
	건축설계과	80	40	120
	자동차과	80	40	120
	산업디자인과	80	40	120
	광고정보과	40	40	80
	소계(6개과)	400	280	680
사회 실무계	관광영어통역과	40	40	80
	관광일어통역과	40	—	40
	관광중국어통역과	40	—	40
	유아교육과	40	40	80
	유통경영과	40	40	80
	아동복지과	40	—	40
	소계(6개과)	240	120	360
예능계	아동미술과	40	—	40
	음악과	60	—	60
	소계(2개과)	100	—	100
합 계	15개과	780	440	1,220

4) 각종 연구소 설립

삼육의명대학이 병설전문대학 체제로 운영되던 1997년 12월 26일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의명대학 내에서도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아동교육연구소, 2000년에 건축설계연구소가 세워지면서 의명대학 내에 3개의 연구소가 개설 운영되었다.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문대학의 실무중심 교육에 알맞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들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29.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8년도, 5-6.

적극적인 학술활동에 참여하게 하며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길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98년 4월 21일에 개소식과 함께 설립되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1997년 12월 15일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6일에는 대학 행정협의회에서 설립인준을 받아 김경제 교수(식품과학과)를 초대 소장으로 선임하고 1999년 2월 25일에 개최된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조직을 확정한 후 4월 21일에 개소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연구소를 창립하게 되었다.¹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창립 첫 해인 1998년 2월 25일에 “산업과학기술연구지” 제1집을 발간하여 본격적인 연구소 활동을 전개했으며 2003년까지 5집을 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년 봄과 가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보과학연구, 기술과학연구, 생명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이 연구소는 의명대학 교수들 외에도 겸임교수들 및 본 연구소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타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들로 구성되었다. 김경제 교수에 이어 이상진 교수가 제2대, 제3대 소장으로 활동하였다.²

아동교육연구소는 1998년 12월 27일에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 2월 15일에 연구소 정관을 확립한 후 그해 3월 1일에 설립인준을 받고 김계자 교수를 초대 소장에 선임하였다. 이후 규정집 검토 및 정기총회를 통해서 연구소 개소를 준비한 후 1999년 11월 29일에 개소식을 갖고 정식 연구소로 출범하였다. 아동교육연구소는 유아교육, 아동교육, 어린이교육, 가족상담 등 아동교육 전반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여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연구와 폭넓은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교수의 자질을 향상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통해서 인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연구소는 “아동교육연구” 논문집 등 학술활동 및 각종 연구발표활동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논문집 “아동교육연구”는 1999년 11월 29일 제1집 발행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제4집을 발행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김계자 초대 소장에 이어 최지영 교수가 제2대 소장으로 활동하였다.³

건축설계연구소는 교육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건축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근본정신을 조형적 건축 환경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의명대학 건축설계과 교수들은 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소 설립을 논의하여 1998년에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인 1999년에 연구소 설립을 인준 받아 본격적인 연구소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

¹대학요람, 삼육의명대학, 2001, 182

²상계서.

³상계서, 187.

다. 특별히 건축설계연구소는 본 대학의 시설 자문과 재단의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효율적인 건축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을 돕는 연구소로 활동을 하였다. 실제로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신학관, 체육관, 제2실습관, 서울위생병원의 증축공사, 한국연합회의 마달피 청소년수련관과 실버타운 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자문을 맡는 등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2002년 12월 30일에는 논문집인 “건축연구소” 창간호를 발행하기도 했다. 건축설계연구소의 소장은 홍순명 교수가 맡아 수고하였다.¹

이러한 연구소 활동 등을 통해서 의명대학은 학문적인 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 갔다.

5)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1999)

많은 신설과들의 증설 및 연구소 설립 등으로 삼육의명대학의 발전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1999년에 유아교육과가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됨으로써 대학발전의 위상이 가시화되었다. 의명대학은 1998년 유아교육과가 우수특성화 학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인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과와 함께 1999년 특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특성화 지원사업이란 교육부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수립한 전문대학에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전문대학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사업이었다. 교육부의 정책이 이렇게 특성화 방침으로 나아가자 의명대학의 산학협력처는 1999년 3월 19일에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 사업계획서 작업에 돌입하였다.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위원회는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검토를 통해 제1영역(농,축,수산계열) 동물자원과, 제3영역(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과, 제4영역(학교특성화) 정보전산원을 선정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제1영역의 동물자원과는 체계적인 축산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영역은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학과생의 인성교육 및 전문적 자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제4영역은 본 대학에서 추진 중인 전산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특성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 특성화 지원사업은 1999년 4월 6일까지 1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마감일까지 각 영역별로 5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교육

¹상계서, 184.

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결과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제3영역의 프로그램이 4월 13일에 실시된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되었고 나머지 두 영역은 탈락하였다. 이에 제3영역은 2차 평가인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4월 20일에 사업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매우 면밀한 항목들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기존의 프로그램 추진 실적에 높은 배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최종 발표에서 의명대학은 제3영역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4억9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는 쾌거를 이룩하였다.¹

이렇게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제3영역의 “전인적 인성을 갖춘 전문인 양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각도로 연계하여 학과생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대학은 지역기관(남양주시청, 구리시청)과 연계하여 학과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개된 결식아동 돕기, 노인봉사활동과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역교회(용문교회 외 7개 교회) 봉사활동 등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유아교육과생으로 구성된 유아선교팀이 지역교회에 파견되어 지역교회 어린이선교를 강화시켰던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삼육의명대학은 지역교회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특성화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6) 독자적인 발전 체제 구축

삼육의명대학의 발전은 행정적인 독립과 더불어 독자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더 구체화되었다. 대학의 규모 확대 및 성장으로 인해 의명대학은 삼육대학교의 시스템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9년 3월 13일에는 교회를 대학과 분리하여 의명교회를 설립하였다. 의명교회는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에서 예배를 진행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안식일예배(토요채플)를 진행하였다.

한편 1998학년도부터 입학식, 채플 등 전반적인 학사 프로그램들이 삼육대학교와 완전히 독립되었다. 이 해의 입학식은 대학교는 3월 2일 오전 10시, 전문대는 3월 5일 오후 4시에 각각 분리되어 거행되었다.² 이와 더불어 채플시간도 분리되었다. 의명대학은 삼육대학교와는 별도로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주야간 합동으로 채플을 독립하여 진행하였다. 대학교는 주간학과의 경우 월, 목 오전 10시에, 야간학과의 경우 월, 목 오후 5시 30분에 각각 진행되었다.³ 채플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학교와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28.

²삼육확보, 1998년 3월 16일자, 1.

³상계서, 7.

마찬가지로 월요일에는 신앙적인 순서로 진행되었고, 목요일에는 학과별 순서 등 다양한 문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회 분리, 채플 분리에 이어 2000년 4월 23일에는 바울관 2층 회의실에서 의명대학 만의 총동문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 박순향 동문(낙농과 78학번)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최승호(낙농 76학번) 동문이 총동문회장에 선임되어 초대 동문회장의 직임을 맡게 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이한중(낙농 77학번) 동문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의명대학총동문회가 삼육대학교총동문회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6년 대학통합과 함께 총동문회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기까지 동문회 사업을 이끌었다.

병설전문대학은 1998년 독자적인 회보인 삼육소식을 창간함으로써 홍보 기능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발전을 구축하였다. 삼육소식은 병설전문대학의 크고 작은 소식들과 미담들을 모아 대내외에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식지로 1998년 5월 4일 창간되었다. 4×6 배판 사이즈에 8면의 분량으로 발행된 이 소식지는 1년에 4차례 발행되는 계간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소식지 발행의 업무는 기획과(이상진 과장)에서 담당하였으며, 전문대학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¹

2000년에는 삼육의명대학신문을 창간하여 본격적인 대학 언론활동을 시작하였다. 삼육의명대학신문은 신문 대판(4×4전지 2절) 4면 분량의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였다. 이 신문사 주간으로 이창호 교수가 선임되어 대학신문의 발전을 이끌었다. 삼육의명대학신문은 “대학의 발전된 내일을 위해 기탄없는 제안을 담아내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기 위해 역동적인 출발을 하였다. 이로써 삼육대신문과 독립해서 독자적인 언론을 구축하게 되었다.²

이러한 다양한 독립적 활동들을 통해 병설전문대학(의명대학)은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21세기의 도약의 시대로 발전해 나갔다. 전문대학(의명대학)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신앙교육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침례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학과의 증설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와 교회 및 교목실의 독립운영 등으로 1996년에 149명이던 침례자수는 1996년에 이르러서는 539명에 이르는 등 많은 학생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³ 이런 신앙교육의 결실은 삼육교육이념이 추구하던 영성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다. 이 점에서도 전문대학(의명대학)의 발전과 도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¹삼육소식, 1998년 5월 4일자 참고.

²삼육의명대학신문, 2000년 4월 10일자 참고.

³“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3.

6. 건축을 통한 시설·설비 확장

삼육대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대학평가, 21세기 삼육교육, 개교100주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 길과 살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왔다. 그 프로젝트 가운데는 교육시설 및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많은 건축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 IMF구제금융 체제 아래 몰아닥친 국가적 경제위기는 한국사회 전역에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삼육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였다.¹ 그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삼육대학교는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교육시설 확장을 통해 살 길을 찾아 나갔다.

90년대 후반에 진행된 대학 건축의 역사는 80년대 초 대학 확장의 시기에 진행된 광범위한 건축의 역사에 맞먹는 제2의 건축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도서관을 비롯해 유가공실습장과 학생회관, 강의동(에스라관), 과학관, 행정관 등이 연이어 건축되면서 교육시설의 확장을 꾀했던 삼육대학교는 1996년 이후 다시 한번 여러 건물들을 지으면서 도약의 시대를 장식하였다. 이 시기의 건축사업과 관련해 삼육학보는 “90년 역사의 초유의 투자”라는 타이틀 아래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난 학기 착공에 들어갔던 바울관이 완공되어 9월 11일에 준공식을 갖는다. ... 한편 9월 착공 예정인 유치원 건물의 기공식을 기점으로 제2과학관, 의명관(가칭), 온실, 자동차정비학과 강의실, 물류센터, 주유소, 사택 등의 건물들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미 건물들이 설계와 계약도 완료된 상태이다.²

위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90년대 후반 삼육대학교는 바울관 건축을 시작으로 유치원(사회교육원), 제1, 2 실습관, 제2과학관, 신학관, 체육관 등 주요 건물들을 건축함으로써 개교100주년을 향한 도약의 시대를 이끌었다.

1) 바울관(1997. 9. 11)

90년대 건축사의 문을 연 바울관은 전문대학의 전용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되었다. 전문대학이 대학으로부터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전문교육시설이 없어 학교 운영에 난맥상이 발생하자 대학 당국은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울관 건축을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대학행정협의회는 도서관 앞 1,600여 평의 부지에 바울관

¹삼육학보, 1998년 1월 26일자, 1.

²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6.

을 짓기로 결정하고 1996년 2월 13일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건축위원회는 2월 14일 인성건축과 1억4천4백90만 원에 건축설계 계약을 맺고 15일에 노원구청에 증축허가서를 제출하여 7월 10일 최종 증축허가(허가번호: 96-239)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7월 28일 오후 4시에 교내외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건축이 본격화되었다.¹

기공식이 끝나고 한 달 여가 지난 8월 27일에 천영건설과 25억으로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9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울관은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친 후 1997년 9월 11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시설로 활용되었다. 바울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로 연면적 5,474.51m²(지층 1,090.27m², 1층 1,141.27m², 2층 1,080.99m², 3층 1,080.99m², 4층 1,080.99m², 옥탑 120.02m²)의 규모로 지어졌다.² 바울관은 전문대학의 행정관 및 교수연구실, 강의실 등을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그동안 과제였던 취업정보실, 학생서비스센터, 우체국, 카페테리아, 여학생 휴게실, 복지매점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 수 있게 되었다.³

2) 보육시설(유치원 및 사회교육원, 1998. 10. 19)

삼육대학교 보육시설 건물은 1998년 10월 19일에 건축되었다. 대학 유치원과 사회교육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기획된 보육시설 건물은 1997년 9월 건축을 계획하고 1998년 2월 4일에 바울관 지하에서 신축 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되었다.⁴ 이후 약 8개월여에 걸친 공사를 통해 3층 규모의 아담한 건물로 신축되었다.

후문의 진입로 바로 옆에 총 1,960.95m²(지층 126.38m², 1층 799.56m², 2층 570.38m², 3층 464.63m², 옥탑 91.78m²)의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1층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2, 3층은 사회교육원 사무실 및 강의실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이 건물은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용자계획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되어졌는데 총 건축비는 15억9천여 만 원이 소요되었다. 보육시설 및 사회교육원 건물은 평생교육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인 유아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별히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해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재취업과정 등을 통해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교육기

¹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자, 1.

²총무과에 보관된 일반건축물대장을 참고하였다. 이후에 등장하는 건축물들의 규모 역시 일반건축물대장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³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4.

⁴삼육학보, 1998년 3월 16일자, 7.

회를 제공하는 산실이 됨으로써 지역사회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물의 건축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

3) 제1, 제2실습관(1999. 9. 2)

보육시설 및 사회교육원 건물이 완공된 직후인 1998년 10월 22일에는 자동차정비과와 건축설계과 등을 위한 제1실습관과 제2실습관 기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교육 및 실습 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육의명대학의 실습시설을 위해 지어진 이 실습관 건물들은 1999년 8월 26일에 대강당 뒤편의 실습관 광장에서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²

제1실습관은 철골조 슬라브 5층 건물로 총 6,900.01m²(1층 1,378.97m², 2층 1,356.46m², 3층 1,356.46m², 4층 1,404.06m², 5층 1,404.06m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경비는 19억9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건축된 제1실습관에는 삼육의명대학의 자동차정비과 실습실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컴퓨터 실습실, 관리과, 수송부 등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 제1실습관은 처음에는 3층으로 건축되었으며 2000년 10월 2일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해 총 5층 건물로 최종 증축되었다.³ 특별히 5층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대학 내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⁴

제2실습관은 철골조 슬라브 2층 건물로 총 2,971.26m²(지층 482.4m², 1층 1,261.2m², 2층 1,227.66m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경비는 15억6천여 만 원이 소요되었다. 제2실습관은 삼육의명대학의 건축설계과, 산업디자인과, 광고정보과, 아동미술과, 유통경영과 등의 교육시설로 사용되었다.⁵

4) 제2과학관(2000. 1. 29)

삼육의명대학을 위한 실습관과 더불어 대학도 1985년에 제1과학관을 건축한데 이어 1999년에 제2과학관 준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과학관을 오픈하였다. 제2과학관은 1999년 8월 26일에 제1, 제2실습관 준공과 함께 준공예배를 드리고 그해 9월 중순부터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사용하게 되었다.⁶ 그러나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 완공된 것은 2000년 1월 29일이었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4층 건물로 총 4,937.22m²(지층 1,105.25m², 1층 1,074.25m², 2층 846.95m², 3층 846.95m², 4층

¹삼육대신문, 1998년 9월 14일자, 3.

²삼육대신문, 1999년 9월 1일자, 7.

³삼육대신문, 2000년 12월 11일자, 1.

⁴삼육대신문, 1999년 11월 4일자, 7.

⁵상계서.

⁶삼육대신문, 1999년 9월 1일자, 7

1,063.82m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건축에 소요된 경비는 24억 원이었다.

제2과학관은 삼육대학교의 재활치료학과, 원예학과, 생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 공통실험실, 식품과학과, 응용동물학과, 동물지원과 등의 교육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신설된 매체교육원이 자리하기도 했다. 특별히 제2과학관 옆에는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건축되었으며, 제2과학관 4층에는 교직원 식당 등도 운영되었다.¹

5) 신학관(2000. 3. 17)

신학과를 위한 전문교육시설인 신학관은 1999년 2월 10일에 기공식을 한 후 1년여 만인 2000년 3월 16일에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완성되었다.² 신학관은 보다 더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위해서 신학과 교수들과 학생들과 동문들과 전국의 재림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 역사적인 건축을 위해 신학과 학생들이 1천2백만 원을 헌금했고 신학과 교수들도 1억5천만 원을 헌금하였다. 여기에 교우들과 동문들의 헌금 11억1천만 원이 더해져 12억9천2백만 원의 자금이 모여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³

신학관은 철근콘크리트 모임지붕 4층 건물로 총 4,550.48m²(지층 923.01m², 1층 854.57m², 2층 885.82m², 3층 943.54m², 4층 943.54m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경비는 22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 건물에는 강의실 18개, 대형 세미나실 2개, 교수실 및 회의실 32개, 개인기도실 10개 등의 교육시설이 갖추어졌다. 1층에는 대학원 사무실과 강의실, 2층에는 강의실, 3층에는 교수연구실, 4층에는 신학대학원과 채플 및 세미나실 등이 갖추어져 명실상부한 신학생들의 교육의 산실이 되었다.⁴ 특별히 4층에 마련된 채플은 특별한 헌금을 드린 고 배창현 동문을 기념해 배창현 채플로 명명되었다.⁵

신학관 건립은 신학생들의 특별한 영적인 교육을 위한 역사였다. 사실 신학관 건립 이전부터 신학부는 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우선 1998년 새 학기부터 신학과 신입생들의 생활관교육이 시작되었다. 대학 신학부는 1997년 11월 17일 신학부 교수회의를 통해서 신학과 신입생 전원을 생활교육관에 입사시켜 영성교육을 시키기로 합의한 후 21일에 대학운영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¹삼육대신문, 1999년 11월 4일자, 7.

²교회지남, 2000년 5월호, 79.

³삼육대신문, 2000년 3월 20일자, 1.

⁴상계서.

⁵고 배창현 동문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한 고 배경수 목사의 아들이자 본 대학 약학과 이숙연 교수의 남편인 배영현 집사와 형제이다.

1998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신학과 입학생들은 동명사와 시화사에 전원 입사하여 새벽 5시 기상과 더불어서 하루 일과를 영적 프로그램에 맞춰 진행하게 되었다.¹ 2003년 9월에 남녀신기숙사인 시온관과 에덴관이 건축됨과 동시에 살렘관을 신학숙(신학과 전용기숙사)으로 지정하고 생활관교육을 2학년까지 확대하였다.

신학생들의 생활관교육에 이어 1999년부터는 신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비장학제도가 실시되었다. 교회 지도부는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의 사명을 자각하고 우수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1999학년도 신학과 입학생부터 등록금의 60%를 교비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² 이런 일련의 제도들을 통해 신학과 학생들은 생활관교육, 교비장학금 수여를 통해 교육 및 영성훈련에 더욱 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신학관 건립을 통해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6) 체육관(2000. 11. 9)

1990년대 후반의 대학 건축사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은 건축물은 체육관이었다. 체육관은 생활체육의 중심이자 생활체육학과와 전문 강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9년 8월말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2000년 10월에 완성되었다. 이에 대학은 10월 10일에 개교 94주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체육관 준공예배를 드리고 역사적인 건물의 완성을 축하하였다.³ 체육관은 철근 콘크리트 평지붕 3층 건물로 총 6,375.04m²(1층 3,041.4m², 2층 2,241.08m², 3층 1,092.56m²)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공사비는 36억여 원이 소요되었다. 체육관은 수영장을 중심으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 장 등의 실내체육관, 스쿼시, 탁구, 볼링, 헬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이 만들어졌으며, 생활체육학과와 학회실과 동아리방, 매점 등의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등도 갖추었다. 이러한 체육관 시설들을 만듦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관의 준공과 더불어 삼육대학교 스포츠센터가 개원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스포츠센터에서는 성인, 어머니, 유아,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헬스 클리닉, 스쿼시,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볼링, 태권도,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별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는 40%의 할인혜택을 베풀어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하게 되었다.⁴

¹삼육학보, 1998년 3월 30일자, 6.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3.

³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1.

⁴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3.

7) 기타 건축 및 시설공사

위에서 설명한 주목할 만한 건축물 외에도 각종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1998년 7월 1일에는 다목적관(475평)과 에스라관(154평)의 증축이 진행되었고, 7월 8일에는 운동장의 본부석공사(64평)도 완공되었다. 1999년도에는 도서관 지붕공사(90평)와 도서관 내부 증축공사(80평)가 진행되었고, 어린이교회(84평)도 완성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9년 말까지 대학은 많은 시설물들을 준공하였거나 한창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건물들의 건축 이외에도 1998년에는 정보전산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해 2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45메가의 고속 광케이블을 도입(9월 12일)하였고, 전화기를 ARS 음성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정에는 솔밭 분수대, 제명호 물레방아, 바울관 옆의 새공원 조성, 후문도로 확장 및 포장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¹ 1999년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의 유료화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대학 내 주차장의 유료화는 1997년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료화는 한학기당 2만 원의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² 그러나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쾌적한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주차 유료화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었다. 이 시스템을 정문과 후문 입구에 설치하여 6개월에 5만 원의 정기간 이용자 외에는 주차권을 발급받아 시간 당 1000원씩의 주차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³

한 편 새로운 세기와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온실, 동물사육실습실, 남자생활관, 여자생활관, 생활관 식당 등의 추가 건축도 추진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7. 이념교육 프로그램 강화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육대학교가 추구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업으로는 각종 영적사업들을 통한 이념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있었다. 이 분야는 삼육대학교가 미래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일관되게 전진해야만 하는 살 길이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대학은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

¹삼육대신문, 1998년 9월 14일자, 7.

²삼육학보, 1997년 4월 7일자, 5.

³삼육대신문, 1999년 9월 1일자, 7.

러 도전에 직면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지내오면서 대학 행정자들은 학생들의 영적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삼육교육이념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별히 학생들의 영적인 지도를 책임 맡은 교목실에서는 안식일예배의 다양화, 채플제도의 개선, 선지자학교, 소그룹 수련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999년에 이르러 수침자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만한 영성교육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¹

[표 84] 삼육대학교회 수침자수(1995~1999)

연 도	재학생수			수침자 수		
	대학	전문대	계	대학	전문대	계
1995	1929	751	2680	211	170	381
1996	2143	913	3056	215	149	364
1997	2297	1034	3331	135	141	306
1998	2536	1286	3822	295	376	671
1999	2746	1745	4491	253	521	874

1) 삼육대학교회 운영

1999년에 삼육대학교회(교목실장: 장병호 목사)는 총 10개의 분교회(믿음, 소망, 사랑, 의명, 물리치료학과, 일본어교회, 봉사교회, 임마누엘교회, 사회교육원교회, 디모테교회)와 40개의 학과 안교(1733명), 2개의 장년안교(400명), 1개의 영어안교, 4개의 어린이안교(150명)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² 교회가 10개의 분교회로 나뉘게 된 것은 안식일예배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져 교회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특성화 혹은 학과별로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삼육대학교회가 분교회로 나뉘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2학기부터였다. 긍정적인 신앙의 분위기에서 더 효과적인 학생들의 신앙지도를 위해서 교목실(실장: 한성보 목사)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학생예배와는 별도로 학과별로 교회운영이 가능한 교회들을 분리해서 학과교회로 독립하도록 조정하였다. 그 결과 대강당 학생교회와 장년교인들을 위한 본당교회(담임: 김일목 목사, 장소: 교회당, 교회책임: 권혁용 교수, 인원: 850명) 외에 병설전문대학교회(담임: 김성익 목사, 장소: 다목적관, 교회책임: 정순영 교수, 인원: 270명), 전산사무자동화+음악과교회(담임: 김상래 목사, 장소: 태강초강당, 교회책임: 김영동, 인원: 210명), 재활치료학과교회(담임: 김평안 목사, 장소: 에스라관, 교회책임: 이해덕 교수, 인원: 62명), 산업미술과교회(담임: 고태영 목사, 장소: 행정관, 인원: 55명)가 분리 운영되었다.³ 안식일학교는 학과별로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보고서, 2000년도, 2-15.

²상게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17개 안교가 있었다. 1994년 이후 학생들의 안식일예배 참여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85] 안식일예배 운영 상황(1994~1999)

연 도	분교회수	안교수	참석자수	교목실장
1994	5	17	1447	한성보 목사
1995	6	19	1,300	남대극 목사
1996	6	21	1,600	"
1997	5	25	1,500	조대연 목사
1998	6	30	1,675	"
1999	9	30	1,700	장병호 목사
2000	10	40	1,733	"

1997년에 이르면 분교회가 좀 더 특성화에 맞춰 운영되었다. 총 5개의 분교회가 운영되었는데 제1교회는 믿음교회로 기성 신앙인들이 중심이 되어 경건하고 성숙한 분위기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룹으로 운영되었다. 제2교회는 소망교회로 모든 예배 순서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교회이며, 제3교회는 사랑교회로 학생들을 위한 교회로 대강당에서 열린예배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외에 재활치료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뉴스타트 교회가 제4교회, 직장을 가진 학생들의 신앙을 돕고자 안식을 오후 3시에 모여 예배하는 임마누엘교회가 제5교회로 구분되었다.¹

이렇게 차별화된 예배형식을 따라서 분교회를 나눠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더 효율적인 신앙교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교회는 1999년 들어서 9개로 늘어나는데, 이는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의명교회, 재치교회, 일본어교회, 봉사교회, 임마누엘교회, 사회교육원교회였다. 의명교회는 의명대학이 분리해서 하나의 분교회로 조직된 것이었고, 일본어교회와 사회교육원교회도 새로 만들어졌다. 특별히 봉사교회가 조직되었는데, 봉사교회는 1997년 2학기부터 안식일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무료 점심(우동)을 제공해 주게 됨에 따라 식당에서 우동봉사를 담당할 학생들을 위한 교회였다.² 매 안식일마다 학과별로 우동봉사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동봉사를 맡은 학과의 학생들은 봉사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우동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9년에는 디모데교회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분교회가 운영되었다.

2) 채플제도의 개선

³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4년도, 22.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7년도, 5-40.

²상게서.

학생수의 증가와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관계, 다양한 학과들의 상황들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채플제도에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편에서 1992년 2학기부터 목요일 문화채플 외에 월요일 예배채플의 변화를 통해 대학교육이념 구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런 노력은 1990년대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2학기부터는 졸업학년들의 채플자율화를 추진하였다. 효율적인 채플운동을 위해서 조직된 채플위원회(위원장: 조대연 목사)는 졸업학년의 경우 1학기부터 취업에 나가기 때문에 채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4학년 취업자들에 한해서 채플자율화를 도입했다. 이로써 4학년 취업자들은 2학기 채플에 참석하는 대신 2학기 중간고사 이후 2박 3일간 실시하는 학기말 특별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채플출석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¹

1998년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해서 채플을 운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채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이로써 대학의 경우 주간학과는 오전 10시에 야간학과는 오후 5시 30분에 채플을 운영하고, 전문대학의 경우는 주야간 모두 오후 4시에 채플을 운영하였다.² 특별히 목요일 채플에는 소집단별 채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야간 시간대에 교차로 참석해도 출석이 인정되었다. 아울러 채플 결석자들은 당일 설교분을 도서관 T.M.C.에서 관람을 한 후 확인을 받으면 3회까지는 출석이 인정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하였다.³ 아울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동안에는 채플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T.M.C.보충교육과 주야간 교차출석은 한 학기의 시행을 통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2학기부터는 폐지되었다. 대신에 매주 금요일 1교시(바울관 세미나실)와 5교시(에스라관 310호)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총 3회까지 보충교육을 통해 결석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한편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 1997년부터 바울관에 종교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채플 및 안식일 출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다.⁵

1999년도 2학기부터는 채플의 명칭이 “경건의 시간”과 “공동체의 시간”으로 새롭게 변경되었다. 채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채플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개념 전달이 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용어를 바꾸었다. 경건의 시간(월, 화)은 올바른 신앙의 정립과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학문과 삶, 신앙을 연계

¹삼육학보, 1997년 9월 1일자, 1.

²1998년 추계기도주일부터는 삼육대와 외명대의 기도주일도 분리되어 실시하기 시작했다. 삼육대신문, 1998년 9월 14일자, 7.

³삼육학보, 1998년 3월 16일자, 7.

⁴삼육대신문, 1998년 9월 14일자, 5.

⁵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7년도, 5-41.

하는 가교적인 역할을 지향하는 시간이며, 공동체의 시간(목)은 음악회, 발표회 등 공동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 등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¹

이와 함께 채플을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소규모의 특성화된 순서로 만들기 위해 주간학부는 오전 11시, 야간학부는 오후 4시로 분리 운영하였으며, 보충교육기간은 8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채플문제와 관련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종교상담실에서는 상담만 하고, 출석문제는 대학 교무처와 의명대학 교학처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²

1999년도 말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2000학년도를 위한 채플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좀 더 개선된 계획으로 채플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다. 1999년까지 채플은 2,3,4학년 주간학부는 월, 목 2교시에, 야간학부는 동일 요일 야간 1교시(오후 4시)에 신입생 주간학부는 화, 목 2교시에, 야간학부는 동일 요일 야간 1교시(오후 4시)에, 의명대학은 화요일에는 주간학과 3교시 야간학과 8교시, 목요일에는 주, 야간 모두 8교시에 각각 운영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학 2,3,4학년 주간학부는 월, 수 2교시, 신입생은 동일 요일 3교시, 의명대학은 화, 목 모두 주간 3교시, 야간 8교시에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좌석배치도 학과별 배치가 아닌 수강신청 순서에 의해 컴퓨터로 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어수선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조용한 분위기로 채플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채플 보강의 경우는 매월 1회 일요일로 변경되었고 결석일 2주 내에서만 가능했던 보강을 한 달로 확대시켜 주었다.³

이처럼 채플제도를 매년 조금씩 변경시켜 나간 것은 채플운영에 따른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채플의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대학 채플위원회에서는 채플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채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그로 인해 삼육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의 출현으로 채플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 및 그 이후의 새로운 교육의 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3) 소그룹 수련회

1994년부터 시작된 소그룹 수련회는 본교 학생들의 영적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다. 소그룹이란 대학생활 및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7~12명

¹삼육대신문, 1999년 9월 1일자, 2.

²상계서.

³삼육대신문, 1999년 12월 9일자, 9.

단위로 묶여진 그룹을 말한다. 소그룹 수련회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소그룹리더 연합수련회로 각 학과에서 신앙적인 분위기 조성과 교내 학생전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리더를 양육시키는 수련회를 말한다. 교목실에서는 매년 방학 중에 2회(동계, 하계)에 걸쳐 3박 4일 동안 각 학과의 학생회장, 종교활동부장, 소그룹운영리더와 일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련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하였다.

소그룹 수련회는 공동체훈련, 소그룹 활동(토론회), 성경연구 및 신앙활동훈련, 학생활동 계획 및 발표, 지도자훈련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그룹 리더들을 양성해 왔다. 1994년 6월 24~28일 사슴의 동산에서 첫 번째 수련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2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련회를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영적 지도력이 향상되었고, 참석자들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수련회의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자질을 향상시켜주는 계기가 됨을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대학의 영적 분위기를 조성할 주체로서의 의지를 갖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¹

소그룹 수련회 외에 안교임원 수련회가 각 학과별로 연 2회 진행되었으며,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AY지도자 수련회도 개최되는 등 젊은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수련회들은 대학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학의 이념교육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 선지자학교

소그룹 수련회에 이어 선지자학교가 1995년부터 개설되어 또 다른 영적 지도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선지자학교는 전국의 삼육중고등학교 학생 및 각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선지자 예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신학과 입학울 준비하고 있거나 교회 내에서 영적인 청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하기와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교육시키고 영적인 지도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운영하였다. 선지자학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치, 경제,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이 퇴조되고 비행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가정, 교회와 사회의 앞날이 어두운 이때 신자들의 자녀들과 각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각 교회 학생회 회원들을 악에서 보호하고 균형진 신앙교육을 통해 유능한 지도자로 양성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 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널리 전하여 예수 그리스

¹삼육대신문, 1999년 9월 1일자, 5.

도의 재립을 촉진시키기 위함.¹

선지자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로 신앙교육(영성훈련), 학습교육 및 진로지도, 전도훈련, 봉사교육(가정, 학교, 교회, 사회봉사활동) 등이며 매년 방학을 이용해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삼육대학교 교내에서 진행한다. 선지자학교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각 삼육학교로 돌아가 “한마음 기도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하였으며, 학생들의 변화로 인해 부모와 형제들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학생들은 각 교회의 청소년 리더들로 활동하게 되었다. 1995년 제1기 선지자학교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선지자학교의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다.²

[표 86] 선지자학교 운영상황

기	1기	2기	3기	4기	5기
일정	95년 8월	96년 2월	96년 8월	97년 2월	97년 8월
참가인원	166명	330명	229명	457명	260명
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일정	98년 2월	98년 8월	99년 2월	99년 8월	2000년 2월
참가인원	379명	130명			

5) 교양성경 신앙수련회

1998년도부터는 대학 내에 소위 M.T.문화를 없애고 대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성경 신앙수련회를 실시하였다. 대학 내에서의 M.T.가 왜곡된 대학 문화의 원인이 되자 전국의 대학들이 M.T.를 없애는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삼육대학교 역시 학과별로 진행되었던 M.T.를 없애고 그 대신 신입생들을 위해 교양성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에 1회 신앙수련회를 가지도록 제도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학은 학생 1인당 1만 원의 지원금과 편도 교통편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에 따라 각 학과의 학과장과 학과 담임목사 및 학과 안식일학교 임원들의 노력으로 신앙수련회가 진행되었다.³

신앙수련회는 특별히 1학년 학생들에게 영적인 분위기에 익숙하도록 도움을 주고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영적교육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7년도, 5-41.

²상계서.

³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8년도, 5-32.

제4장 새로운 대학 이미지 창출

(2000~2004)

“미래를 위한 도약의 시기”로 명명한 삼육대학교의 시대는 개교90주년을 향한 기대와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몰아닥친 경제위기 및 곧 도래하게 될 새천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쟁 가운데로 내몰려진 대학가의 현실에 대한 위기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학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학의 갈 길과 살 길을 찾기 위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삼육대학교는 수많은 위기의 요인을 극복하면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삼육대학교가 개교94주년을 맞이하는 서기 2000년은 교내외적으로 수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격동의 시대였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는 역사적 시점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채 세기론적 종말론을 체험해야만 했다. 아시아 금융권에 몰아닥친 외환 위기로 인한 사회적 대공황과 Y2K(Year 2000)와 같은 가상의 공포는 그런 종말론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그 2000년의 시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인류는 다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축제를 준비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¹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와 희망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21세기는 조용히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재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서기 2000년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시기였다. 전 인류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이 세기의 전환기에 재림교회는 교단의 한 세기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증폭된 행정자들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논쟁은 결국 연합회장 탄핵과 조기총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연합회는 정상적인 회기를 6개월 앞둔 2000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1회 총회를 치르게 되었다.²

이 총회에서 삼육대학교 신계훈 총장이 한국연합회장에 피선됨으로써 대학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³ 이로써 1996년부터 삼육대학교 제9대 총장의 직임을 수행하던 신계훈 박사는 한국연합회장이자 삼육대학교 이사장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 신계훈 총장은 4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삼육대학교의 갈 길과 살 길을 개척하였다. 특별히 비전 100주년 중장

¹서기 2000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유석성, “21세기 문명사적 전환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전망,” 교수논총 9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1998), 629-650.

²2000년도에 진행된 재림교회의 조기정기총회와 관련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지남, 재림신문 등 재림교회 공식 매체를 참고하라. “총회속보,” 교회지남, 2000년 6월호, 12-13.

³재림신문, 2000년 5월 24일자, 1.

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가오는 21세기와 개교100주년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다가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부름에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21세기의 대학의 역사와 개교100주년에 대한 소임은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남대극 박사에게로 넘겨졌다.

1. 제10대 총장 남대극 박사 취임(2000. 6)

연합회 총회의 결과로 새로이 구성된 삼육대학교 이사회는 남대극 박사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총장에 선임된 남대극 박사는 2000년 5월 31일 오전 10시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통해 제10대 총장에 취임하였다.¹

1) 제10대 총장 남대극 박사 취임

남대극 총장은 1943년 11월 17일에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태어났다. 1963년 3월 2일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해서 196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3월 2일에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이후 1969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독어독문학 석사과정을 하면서 삼육대학 신학과에 입학해 이듬해인 1968년 12월 28일에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1969년부터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독일어 교관이자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남대극 교수는 1972년 육군대위로 예편한 후 곧바로 삼육대학 전임강사로 부름을 받아 본격적으로 삼육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삼육대학 교무처 학적과장을 맡아 1976년까지 학적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학 행정보직도 맡았고 1978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교수로서의 직위는 1972년 전임강사로 임명된 이후 1974년에 조교수, 1979년에 부교수에 올랐고, 1989년에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로 승진했다.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79년부터 1981년까지 필리핀 원동지회 신학대학원(AIIAS)에서 신학석사(M.A., M.Div.) 과정을 이수했으며, 1983년에는 미국 앤드루스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해 1989년에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경력으로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의 Editorial Resource Board위원(1990~현재), AIIAS Adjunct Professor (1991~현재),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소장(1994~현재), 대총회 Adult Sabbath School Manuscript Evaluation Committee 위원(1994~현재), 한국구약학회 기획위원(1995~1996) 등의 학술관련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교무처장(1981~1983,

¹삼육대신문, 2000년 6월 5일자, 1.

1990~1995), 교목실장(1995~1997) 등을 역임하였고, 1997년부터는 도서관장을 역임하다가 2000년에 총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남대극 총장의 취임과 더불어 삼육대학교는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였다. 특별히 이 시기는 삼육대학교가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과정에서 헤쳐 나가야 할 세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던 때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이에 신임 총장으로서 맞이하는 첫 학기의 교수협의회에서 남대극 총장은 ‘21C 대비위원회’의 발족과 운영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21C 대비위원회’는 “21세기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을 고수하고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주체(교수)와 객체(학생)가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기획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다.¹

신임 총장에 의해서 제안된 ‘21C대비위원회’는 ‘21세기 대비 대학발전위원회(가칭 Forum 21, 위원장: 김재완 교수)로 구체화되어 21세기 첫 해부터 대학의 생존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획활동의 중심에 섰다.² 이런 활동에서 보여주듯이 신임 총장은 직면한 21세기의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여 대학의 생존전략을 찾는 것과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대학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여기고 대학의 행정을 이끌었다.

2) 보직 교수 임명

새로운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대학 운영위원회는 2000년 7월 25일에 2학기부터 대학을 이끌어갈 새로운 보직자들을 임명하였다. 먼저 교무처장에는 최준환 교수가 임명되었고, 박두한 교수와 천성수 교수가 각각 교무과장과 학적과장에 임명되었다. 대학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각종 기획업무를 담당할 기획실장엔 김재완 교수가 임명되었고, 대외협력처장엔 한성보 교수가 유임되었다. 학생처장엔 권오달 교수가 임명되었고, 유광욱 교수가 학생과장을 맡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남대극 교수가 맡고 있던 도서관장은 교무처장으로 수고하던 김봉진 교수가 맡았고, 비영리조직 경영대학원장은 교무처장인 최준환 교수가 겸임하게 되었다.³

특히 2000년 8월 1일부터 박물관과 체육관이 공식 개설됨에 따라 체육관장에는 박종현 교수가 임명되었고, 박물관장은 총장이 겸임하기로 하였다. 박물관 자료를 본 대학에 기증한 김건호 선생에게는 “박물관장대우”의 직함을 주어 박물관 업무를 돕도

¹삼육대신문, 2000년 9월 7일자, 2.

²삼육대신문, 2000년 12월 11일자, 3.

³삼육대신문, 2000년 9월 7일자, 7.

록 했다.¹ 이렇게 선임된 보직 교수들은 2000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입 총장을 도와 대학의 새로운 이미지창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2. 21C대비위원회(Forum 21) 활동 - 생존전략과 발전계획 입안

신임 총장의 비전에서도 이미 나타난 것처럼 21세기의 첫 해에 삼육대학교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새로운 세기에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이 엄중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행정자들은 다각도로 노력하였는데 그 첫 작업이 바로 ‘21C대비위원회’의 발족 및 활동이었다.

2000년 2학기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 남대극 총장이 제안한 ‘21C 대비위원회’는 대학의 생존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된 조직으로 대학 내 각 부처와 학과의 대표 각 1명씩, 학생, 동문, 학부모, 법인 이사, 여성 등 각계 대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구성하기로 제안되었다. 이 위원회는 교내외 각 계층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통합하여 전략을 찾은 후 “대학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여 기획실을 통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음으로써 2001년부터 시행”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2000년 2학기에 한정해서 활동하도록 기획되었다.²

이런 제안과 더불어서 시작된 21C 대비위원회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한 21C 대비 대학발전위원회(약칭 Forum 21, 위원장: 김재완 교수)로 확대 발전되어 삼육대학교의 생존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되었다. Forum 21은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조직개발, 경영관리, 학생지도, 교육서비스, 인력개발 등 5개 분과위원회에 약 5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각종 연구모임, 야외 워크샵, 분과별 토론 모임 등을 가지고 당면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0년 말에 생존전략과 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³

대학발전위원회가 기획한 발전계획안에 담겨진 삼육대학교 당면문제들은 양적 확장에 따른 여과, 학생지도 문제, 대학의 내적 갈등, 부적합한 행정체제, 저조한 사기, 비친화적 정부시책 예상, 대학 간 경쟁 가속화 등이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¹삼육대신문, 2000년 9월 7일자, 7.

²상계서, 2.

³삼육대신문, 2000년 12월 11일자, 3.

한 대안들은 수요자 가치 중심의 질 관리, 교육서비스의 혁신, 인성교육의 내실화, 조직중심의 시스템 개발, 조직 도덕성(Moral) 진작 및 결속, 지속적 성장잠재력 비축 등이었다. 특별히 대안들과 관련하여 삼육대학교가 추진해야 할 10대 전략과제도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조직 개편 및 효율화, 학생서비스 개선, 교육서비스 일류화, 학부제운영 개선, 학생지도 문제의 근본적 대응, 선교 및 봉사활동 강화, 대외협력 강화 및 이미지 개선, 시설운영의 최적화 도모 등이었다.¹

위에 제시한 10대 전략과제를 분류해보면 학교 내실화, 학교 위상강화 및 이미지 개선, 학생복지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발전위원회는 첫 번째 분야인 학교 내실화와 관련해서 경영적 측면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조직개편 및 경영 효율화, 시설운영의 최적화 도모, 인적 자원의 개발을 제안하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생존전략으로는 교육서비스의 일류화, 학부제운영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분야인 학교위상 강화 및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 관련 조직 보강, UI개발 등을 제안하였고, 세 번째 분야인 학생 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생서비스센터를 일차적인 학생 민원 창구화 하고 전결권을 가진 Case Worker를 배치하는 것과 학생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의 확충, 그리고 장학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²

21C 대비 대학발전위원회의 활동은 단기간에 걸친 한시적인 프로젝트였지만 대학 내의 각종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의식을 이끌어내고, 학생서비스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등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의제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다. 특별히 이러한 노력으로 기획실에 대학의 예산통제 기능이 부여되는 등 한시적인 행정상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발전계획 수립 작업 등은 새로운 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도록 여러 의제와 대안들을 모색하게 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

1996년부터 시작된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은 2000년대 들어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새로 임명된 남대극 총장은 새천년을 맞이해 새로운 대학 이미지를 창출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추진

¹상세서.

²상세서.

하였다. 특별히 남대극 총장과 한성보 대외협력처장은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임으로써 구체적으로 활동하였다. 첫 번째 방문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대학 지도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주로 미국 서부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학 동문들 및 관계자들을 만나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호소하였다.¹ 그해 여름방학 기간 중에 두 번째 방문이 이루어졌다.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방문에서 행정자들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두루 돌아 대학의 발전상황과 제2캠퍼스 추진상황 등을 소개하면서 발전기금을 호소하였다.²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기금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발전기금 조성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대학발전기금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일은 2000년 10월 10일 진행된 재산 헌납식이었다. 이날 개교94주년 기념식에서는 은퇴교수인 송숙자 박사가 사후 전 재산 헌납을 약속하는 헌납식이 있었다. 송숙자 박사는 1998년 7월에 1억6천만 원을 이미 대학발전기금으로 기증하였고, 이번에 대한교원 공제회예금 1억8천만 원, 은행예금 1억1천만 원, 주택전세금 1억1천만 원 등 총 5억6천만 원의 전 재산을 사후 유산으로 기탁하였다. 특별히 기증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 평생 뉴스타트사업에 헌신해 왔던 만큼 자신의 기탁금으로 대학 내에 뉴스타트 교육관을 건축하여 뉴스타트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기탁하기로 결정하였다.³ 송숙자 박사는 1956년에 삼육신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국문학과와 가정학과 과정을 이수한 후 서울삼육중학교와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국어 및 가정교사로 18년을 봉사하였다. 1975년에 삼육기술전문학교에 식품영양과가 만들어지면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삼육대학 식품영양학과가 신설되면서 초대 학과장을 역임했고, 퇴임직전에도 학과장을 역임하다가 1998년 2월에 영예롭게 퇴임하였다. 이렇게 42년간 삼육교육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송숙자 박사는 마지막까지 전 재산을 헌납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다.⁴

이렇게 지속적인 발전기금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004년에 이르면 발전기금 총액이 116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1996년 100억 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8년 만에 100억 원을 넘어섰다. 한성보 대외협력처장이 2004년 12월에 제32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발전기금은 총 참여자 1,748명(기관 포함)이 현금 5,588,062,095원, 물품 6,054,654,492원 등 총 13,442,716,587원을 기탁

¹삼육대신문, 2002년 3월 11일, 10.

²삼육동소식, 2002년 9월 12일자, 1.

³삼육대신문, 2001년 10월 25일, 2.

⁴삼육학보, 1998년 3월 16일자, 1.

하였다. 이 모금액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¹

[표 87] 대학발전기금 모금액(1996~2004)

연 도	현 금	물 품	합 계
1996~1999	2,349,146,781	2,142,387,800	4,491,534,581
2000	450,128,364	595,190,000	1,045,318,364
2001	494,696,750	5,000,000	499,696,750
2002	940,951,200	2,000,000,000	2,940,951,200
2003	1,180,660,000	2,979,826,692	4,160,486,692
2004.10	172,479,000	132,250,000	304,729,000
총 계	5,588,062,095	7,854,654,492	13,442,716,587

원래 대학발전기금 목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 회기 동안에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다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차 회기에는 4,491,534,581원이 모금되어 목표액의 95%정도를 달성하였고, 2차 회기에는 8,951,182,006원이 모금되어 목표액의 90% 정도를 달성하였다.² 이렇게 모금된 대학발전기금은 삼육대학교가 21세기의 비전을 실현하고 개교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 및 도약의 밑거름이 되었다. 1996년 이후 삼육대학교는 학생 수의 증가 및 교육 수요의 증폭으로 도약을 위한 재정적 인적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발전기금은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일조하였다.

4. 신앙교육 강화 방안 모색

새로운 세기와 개교100주년(비전 100)³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는 신앙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⁴ 특별히 신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점차로 둔화되고 있는 경향과 주5일 근무제도의 시행에 따른 안식일출석 문제의 어려움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신앙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교양성경과 채플, 토요채플(안식일예배)이 있고, 세부적인 신앙교육 프로그램들로는 기도주일, 선교주일,

¹“삼육대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15.

²상계서, 기2-4, 기2-15 참조.

³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학 발전전략을 “비전100주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1998년 10월에 완성하였으며, 그 후 이 발전전략의 골격을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비전100은 개교100주년을 향한 대학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다.

⁴부임 첫 해에 남대국 총장은 21C를 위한 준비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Forum21 운영, 시설확충과 개선, 특성화된 대학으로의 발전, 북한 선교와 외방선교를 위한 준비, 신앙교육강화 방안 등이었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0년도, 5-3.

절제주간, 소그룹 수련회, 선지자학교 등이 있으며, 학과 및 동아리별로 각종 신앙 지원 활동들이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이념에 따라 엄격한 금연, 금주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런 특별한 교육내용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는 삼육이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삼육대학교의 역사에서 이런 이념적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그 갈등의 양상은 보다 더 공개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1년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안티삼육대학교’ 논쟁이었다.

1) ‘안티삼육대학교’ 논쟁(2001. 5)

삼육대학교의 이념교육과 학생들의 의식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안티삼육 카페’가 개설되면서부터였다. 건전한 비평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개설된 이 카페는 2001학년도 1학기가 개강되기 전까지는 회원이 100여 명도 채 안 되었는데 개강 후 논쟁이 격화되면서 5월까지 5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이 카페에서 주차문제, 흡연문제, 후문 음식점 주류 판매문제 및 음주 후 등교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비방의 차원으로 제기되면서 왜곡된 삼육대학교의 이미지들이 공개화되기 시작했다.¹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공공 저널리즘에 여과 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주간신문 중의 하나인 일요서울은 4월 29일자(제364호) 현장르포에서 삼육대학교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룸으로써 ‘안티삼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르포를 작성한 기자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로 시작된 기사에서 “대자보 없는 대학, 교내서 담배피면 정학”이라고 소개하면서 안티삼육 카페에서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게재하였다.² 이에 재림교회 언론인 재림신문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고, 기사의 내용이 종합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일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³

다음 카페 ‘안티삼육대학교’는 일요서울의 기사를 재생산하여 학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은 건전한 비평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학교를 비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결국 카페의 폐쇄와 운영진의 징계로까지 확대되었다.⁴ 이렇게 해서 안티삼육 카페 문제가 정리되자 학생들은 삼

¹삼육대신문, 2001년 5월 16일자, 3.

²허은정, “삼육대 현장르포,” 일요신문, 2001년 4월 29일자, 24, 15.

³재림신문, 2001년 5월 2일자, 4.

⁴운영진 중 1명은 3개월 근신의 징계를 받았다. 삼육대신문, 2001년 6월 4일자, 7.

육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 등에 주차권문제와 흡연문제를 포함한 여러 복잡한 학내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논쟁의 여진은 당분간 계속되었다.¹

‘안티삼육대학교’ 논쟁은 삼육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이에 대학의 행정자들은 “입시강연회나 입시박람회, 대학홍보 자료 등에 삼육대학교의 특성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² 채플, 금연금주 정책 등과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은 여러 대학들의 건학이념 고수의 사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학이념의 강조가 단지 삼육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안티삼육논쟁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유도해 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간파한 대학 행정자들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삼육대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보다 더 새롭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논쟁의 에너지를 학교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노력가운데는 학생 친화적인 신앙교육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기도주일의 새로운 기획들

21세기 들어서서 삼육대학교는 도전받는 신앙교육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도주일 운영의 새로운 기획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삼육대학교에서의 기도주일의 역사는 거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삼육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봄과 가을에 기도주일을 갖고 신앙적 교훈과 감동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기도주일 프로그램들은 대학 내에 비신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그 의미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학생수의 증가와 시대정신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도주일과 같은 영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도전도 점점 증가되었다. 이에 교목실과 총학생회 종교부는 기도주일에 대한 새로운 기획들을 통해 기도주일이 가지는 고유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사실 이러한 노력들은 21세기를 맞이해 삼육대학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기도주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첫 기도주일은 2000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김영수 목사(대방교회 담

¹삼육대신문, 2001년 5월 16일자, 3.

²상계서.

³김재신牧사는 삼육대학교90년사에서 1960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도주일 일람표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498-500.

임)를 모시고 “살려주는 영, 예수님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기도주일은 종전의 기획과 차별화된 내용은 특별히 없었다. 새로운 기획으로 기도주일의 새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2000년 가을에 개최된 기도주일에서였다. 그해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추계 기도주일은 ACT2000 위성전도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전도 목사인 마크 핀리(Mark Finley)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하였다.¹ 마크 핀리 목사는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It is Written”의 원장으로 첨단 위성장비를 갖추어 세계적으로 선교 프로그램을 이끄는 지도자였다. 그는 한국 재림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ACT2000 위성전도회라는 역동적인 선교 프로젝트의 강사로 초청받아 내한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세계적인 대 전도목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기도주일은 기획 단계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마크 핀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21세기의 희망”이란 총 주제 아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10월 2일, 월), “사랑에 포로됨”(10월 4일, 수), “예수의 얼굴”(10월 5일, 목), “재회를 위한 준비”(10월 6일, 금),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10월 7일, 토) 등의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희망의 소식들을 전해 주었다. 특별히 신앙적 논리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강사의 메시지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³

기도주일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노력은 2001년 봄에 개최된 기도주일에서 그 빛을 발하였다. 2001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총학생회 종교부 주최로 개최한 2001년 춘계 기도주일은 미국에 있는 자매대학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수인 최휘천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다.⁴ 특별히 행사를 주최한 총학에서는 “기도주일”이라는 일상적인 명칭 대신에 “SYU Unique Festival, Spiritual Emphasis Week”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명칭 아래 영적이고 복음적인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최휘천 목사는 “과자 하나드릴까요?”(4월 23일, 월), “미국인이 생각하는 방식”(4월 24일, 화),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4월 25일, 수), “개인과 개인주의”(4월 26일, 목), “한국인의 가슴”(4월 27일, 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4월 28일, 토) 등의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바울사상의 전문가인 그는 “바울의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지론에 따라 신약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을 현대적이면서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진지한 영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⁵

¹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1.

²로이스 C. 윌리엄스, “서울 ACTS2000 위성전도회,” 교회지남, 2000년 11월호, 28-30.

³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1.

⁴삼육대신문, 2001년 5월 16일자, 1.

기도주일에는 강사의 복음적인 설교와 함께 학생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기도반 모임을 통해 대학 교정에서 처음 만나는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들도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은 기도주일 행사 중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들이었다. 특별히 1997년부터는 기도주일 행사 기간 중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해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기도주일 운영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된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연합찬양단의 경배와 찬양 순서에도 있었다. 피아노 외에 전자 악기인 신디사이저 반주와 함께 연합찬양단들이 단상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함으로써 복음적 축제의 분위기를 높여주었으며, 교정 내에서는 다양한 찬양팀들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가스펠 축제를 진행하는 등 영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다소 어색했던 종교행사를 삼육대학교만의 또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21세기의 기도주일은 그렇게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되어갔다.

3) 안식일 출석 자율화 정책(2002)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한 새 이미지 창출을 위한 시도 가운데는 안식일 출석 자율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삼육대학교는 2002년 1학기부터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의 안식일 학교교회 출석을 자율화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학생친화적인 이념교육 정책을 펼쳐나갔다.

안식일 출석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시대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5일수업제였다. 2002년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2천 명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주5일수업제도 가시화되었다. 특별히 당시의 정부 정책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는 교육부문에 주5일수업제가 도입되고, 2007년에 이르면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¹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안식일 출석 의무화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대학은 단계적인 안식일 출석 자율화를 모색하여 신앙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교단 내에서 안식일 출석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가시화되었고, 대학은 교단 내의 각종 여론과 교수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입장 및 견해들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안식일 출석을 자율화하기로 결정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해 나갔다.² 1학년들의 안식일 출석을 유지하게 된 것

⁵상계서, 5.

¹공회경, “주5일 근무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오마이뉴스, 2003년 8월 21일자. <http://english.ohmynews.co.kr/articleview>.

²삼육대신문, 2002년 3월 11일자, 8.

은 삼육교육이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영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안식일 출석 자율화 정책이 실행되자 학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의 반응은 “안식일 출석 자율화를 통해 학우들의 안식일 등교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고 안식일로 인해 생겨났던 출석문제가 사라져서 부담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안식일 출석 자율화로 인해 삼육대학교의 본연의 모습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다.¹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상존했지만 전반적인 갈등의 요소는 크지 않았고 그보다는 이 정책이 가지는 다수의 학우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소수의 신앙인들을 위한 배려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의 신앙교육 방안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창출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 1학년들만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예배가 진행됨으로써 안식일예배 자체의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안식일예배의 형식과 틀을 바꿈으로서 새로운 예배문화가 정착되었다. 학생들은 예년과는 달리 오전 10시까지 등교하였고 안식일학교도 기존의 특별순서 대신에 학과별 교과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안식일예배 역시 열린예배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예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다.²

4) 채플제도의 지속적인 변화

신앙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채플제도의 변화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은 매 시대별로 채플제도의 개선 방안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들어서 채플제도는 크게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채플 분리 운영 및 신입생과 재학생의 채플 분리 운영, 그리고 월요일은 경건의 시간, 수요일은 공동체 시간 등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더 정숙하고 안정된 채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자 채플위원회(의장: 교목실장 장병호, 교무처장 최준환)는 200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채플의 변화를 꾀하였다.

2001년에는 경건의 시간은 종전대로 운영하되, 공동체의 시간(수요일 채플)은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일(대학교) 목요일(의명대학) 중 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은 채플시간 선택의

¹상계서.

²상계서.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건의 시간(월요일 채플) 중 야간 신입생(월 오후 5:30)의 경우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채플을 운영하도록 하였다.¹

2002년도에는 채플과 안식일예배 결석자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됨으로써 채플 미이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전까지는 채플 미이수자들에 대한 메이크업(make-up) 프로그램이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채플 본연의 의도를 살리면서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방학 보충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채플 및 안식일 F학점 대상자들과 지난 학기 중에서 안식일 출석 및 채플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 중에 진행되는 보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에 실시한 메이크업 프로그램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교육 일수는 6~8회 결석자들은 1주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9~10회 결석자들은 2주 교육을 받아야 했고 11회 이상 결석자들은 교육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1주교육 대상자들은 오전 혹은 오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었고, 2주교육 대상자들은 오전과 오후의 교육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의무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² 2002년 2학기가 마친 후 실시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은 1학기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교육을 1~4차까지 실시하였고, 6~8회 결석자는 1주, 9~10회 결석자는 2주, 11~14회 결석자는 3주, 15~19회 결석자는 4주를 교육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³

이렇듯 채플의 운영방법 및 시간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고 채플 미이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메이크업제도를 만드는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실제로 2003년 가을에 총학생회 종교부가 실시한 채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만족도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채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학이념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교목실에서는 2004년 10월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용

¹삼육대신문, 2001년 3월 12일자, 7.

²삼육대신문, 2002년 6월 10일자, 2.

³1차 교육은 2003년 1월 6일-1월 10일, 2차 교육은 2003년 1월 13일-1월 17일, 3차 교육은 2003년 1월 20일-1월 24일, 4차 교육은 2003년 2월 10일-2월 14일에 각각 실시되었다. 삼육대신문, 2002년 12월 16일자, 1.

⁴삼육대신문, 2003년 11월 19일자, 6.

역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효과적인 채플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자들(장병호, 김성익, 이국헌)은 삼육대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이념 및 채플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채플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의식조사 연구를 수행한 후에 채플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¹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채플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채플 인지도 및 정체성 강화, 채플의 성격과 설교내용의 변화, 채플의 환경 개선, 채플운영 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 증대, 채플 출결관리 및 보충교육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선 방안들이 제안되었다.²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2005학년도 2학기 채플부터 포괄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변화된 내용으로는 “경건의 시간”(월)은 학년별로 진행하되 전담 설교자가 담당하고, 시험기간에는 채플을 진행하지 않으며, 조기졸업을 제외한 마지막 등록학기의 학생들에게 목요일의 “공동체의 시간” 채플이 면제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첫째, “경건의 시간”은 학년과 전공계열에 따라서 월요일과 수요일로 나뉘 각 요일 별로 세 곳에서 실시된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해당 요일 3교시에 각각 세 곳에서 진행되는 채플 가운데 학년 및 학과별로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면 된다.

[표 88] “경건의 시간” 채플 운영표(2005년 2학기)

		요일 및 시간	장 소	강 사	주 제
1학년	인문사회예체능	월요일 11시	본당	김갑석/정재신	예수의 생애와 교훈
	자연과학	수요일 11시	본당	김정수/구일회	예수의 생애와 교훈
2학년	인문사회예체능	월요일 11시	다목적관	박창은/오상은	삼육동 순례
	자연과학	수요일 11시	다목적관	윤병인	성경의 예언
3학년 전체		수요일 11시	대강당	김상래	성경과 과학
4학년 전체		월요일 11시	대강당	김유복/김인환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가정

둘째, 기존의 수요일 “공동체의 시간”을 목요일로 옮겨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이전 5회, 이후 5회 등 총 10회에 걸쳐 행사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학과 및 계열에 따라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되었다. 즉 보건복지분

¹장병호 외, “삼육대학교/삼육의명대학의 효과적 채플 운영을 위한 연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연구, 삼육대학교, 2004년 10월.

²상계서, 94-97.

³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3.

야 특성화에 따라서 제3학부 2~3학년생들을 위해서는 대강당에 참여하는 대신 별도의 “보건복지특성화 프로그램” 채플이 운영되었다. 또한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선착순 10명씩을 뽑아서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별 순환제의 “단연 프로그램”은 중전대로 진행되며 제8학기 등록 학생들은 이 채플 프로그램이 면제되었다.

셋째, 채플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채플횟수는 재학기간 전체로 보아 약 30%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주간에는 채플이 실시되지 않았고, “공동체의 시간” 채플이 10회로 줄었으며, 마지막 등록 학기의 학생들에게는 목요채플이 면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보충교육 및 채플성적 기준도 개선되었다. 방학기간에만 실시되었던 기존의 보충교육제도가 학기 도중에도 실시되어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신앙생활지원실의 상담을 거친 후 다양한 방법의 보충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채플 성적 기준도 변화되어 결석횟수에 따라 0회 A+, 1회 A, 2회 B+, 3회 B, 4회 C+, 5회 C, 6회 D, 7회 F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들은 채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입장에 맞춘 채플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식과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상의 변화만으로 채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학 교목실에서는 채플제도의 포괄적인 변화 이외에도 옐로우페이퍼 제도¹의 도입, 편안한 예배 환경을 위한 대강당 의자 전면교체² 등과 같은 채플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별히 채플의 다양화로 인한 여러 운영상의 혼란이 가중되자 교목실에서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합과 더불어서 채플운영을 단순화시켜 전체 학년별로 주 1회만 채플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채플제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매주 월요일에는 3학년(10시)과 4학년(11시)을 위한 채플이 운영되었고, 매주 수요일에는 1학년(10시)과 2학년(11시)을 위한 채플이 운영되었다.³ 채플을 주 1회로 축소하고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학년별로 채플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5)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여러 활동상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1999년도부터 실시된 방학 중 학생예배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영

¹채플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발급되는 페이퍼로 2회 발급 시 1회 결석으로 처리되는 제도. 삼육대신문, 2005년 11월 8일자, 3.

²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5. 공사비로 2억 6천여 만 원이 소요됨.

³삼육대신문, 2007년

적 지도를 위한 예배 및 채플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만 실시되었다. 따라서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대학 교목실에서는 방학 중에 지역교회에 나가지 않는 비신자 학생들과 학과에서 침례를 받은 학생들 및 교내선교 리더들을 위한 방학 중 예배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였다. 최초로 사랑/의명교회로 명명된 이 방학 중 학생예배는 다목적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초기에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가 2002년에 이르면 약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¹

방학 중 안식일예배와 더불어 2000년도부터는 학기 중 금요 청년예배도 실시되었다. 이 금요예배는 각 학과의 안교임원 및 선교리더들을 위한 예배로서 다목적관에서 진행되었는데 1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² 이 금요 청년예배와 방학 중 안식일예배는 후에 대학 내 청년교회(Sahmyook Adventist Youth 교회, 약칭 SAY교회)의 설립의 모체가 되었다.

교내선교 리더들을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들도 1999년 이후로 발전하였다. 교내선교 리더들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내선교활동을 돕기 위해서 안교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학과 학생들과 신학과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과 전도사들로 구성된 교내선교 리더들은 집중적인 성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리더들로서의 양육교육을 받았다. 특별히 2003년도부터는 이들로 구성된 채플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교내선교 리더양육 채플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에서 리더들은 독립된 채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리더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³

이 외에도 캠퍼스 진도회를 위한 선교축제주간(Mission Festival)을 운영하고, 영상선교팀과 사이버 선교팀을 구성해 영상 및 사이버 콘텐츠를 구축하며, 예향찬양선교팀의 운영을 통해 경배와 찬양문화를 이끌었다. 대학의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것이다. 이는 영적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념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대학이 직면한 문화적 갈등 문제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 이런 시도들은 학생들에게 영적 프로그램들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금연금주교육 강화

신앙 및 이념교육 강화 프로그램 가운데는 금연금주교육의 강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안티삼육 사건을 통해서 대학이 직면한 도전 가운데 이 문제가 중요한 내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1999년도, 5-27; 2002년도, 5-17.

²상계서, 2000년도, 5-27.

³상계서, 2003년도, 5-22.

용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도전이 제기되었지만 삼육대학교는 교육이념의 일환으로서 금연금주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다.

삼육대학교는 <학칙> 제9항 제53조(징계처분)에서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고 규정해 놓고, <학칙 시행세칙> 제19장 제 34조(흡연 및 음주)에서 교내 및 학교 공식 행사에서의 음주 흡연 1회 발견과 동시에 무기정학에 처한다고 못 박았으며, 교회에서의 음주 흡연의 경우에도 3개월간의 근신 혹은 학생처장이 명하는 봉사 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였다.¹

이런 학칙을 가지고 흡연 및 음주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가운데 20% 내외는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에서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단연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하였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1999년에 설립된 단연클리닉은 학생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단연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특별히 흡연문제와 관련해 근신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는 한 학기 동안 신입생을 위한 흡연예방 및 단연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2주일에 걸쳐서 총 4회의 신입생 단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신입생을 두과씩 묶어서 4번에 걸쳐 교육을 시켰다. 특별히 단연클리닉의 각종 단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0년도 하기대학에서 설강된 금주 및 금연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이수한 대학원생들이 2주 동안 10~12명의 학생들을 담당해 금연교육을 시키는 소그룹활동도 운영하였다. 이들과 함께 신학과 3, 4학년 학생들 중 자원자들을 모집해 단연클리닉의 소그룹활동을 지원하게 했다.²

2001년도 들어서서는 이런 활동 외에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일 금연학교를 실시하기도 했다.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금연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금연학교가 실시되었다. 금연학교는 2002년에도 계속되었다. 2002년은 유명 개그맨인 이주일씨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회적인 충격과 동시에 금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때였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삼육대학교는 금연교육을 강화하여 흡연으로 인해 1학기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들과 단연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위생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온 5일 금연학교를 대학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2년 5일 금연

¹대학생활안내(2001): 49, 94-95.

²삼육대신문, 2001년 6월 14일자, 3.

학교는 4월 22일부터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단연클리닉 사무실(바울관 1층)에서 실시하였다.¹

한편 같은 해 4월 11일에는 삼육의명대학 총학생회 주최로 금연금주 행사가 있었다. 오후 2시부터 교내 행진으로 시작하여 오후 4시에는 선교70주년기념관 앞에서 술과 담배 모형의 화형식이 거행되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흡연과 음주의 유해성을 알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금연과 금주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금연 및 금주와 관련된 정책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 추구는 삼육대학교를 다른 대학교들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 되기도 했다. 특별히 금연을 학칙으로 제정함으로써 깨끗한 캠퍼스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삼육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맑은 공기를 가진 캠퍼스답게 한국대학신문이 2002년 5월 27일(제420호)에 발표한 제2회 아름다운 캠퍼스 10선에 선정되었다.²

5.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노력

1950년대 삼육신학원 학생들과 재림청년들이 신앙양심의 자유에 따른 집총거부와 안식일준수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고, 1970년대에는 대학 내에서의 군사교육에 따른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겪었던 삼육대학의 학생들 및 재림청년들은 이후에도 이러한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전통을 이어갔다. 1986년에 주민호 학생이 안식일문제로 3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됨으로 이 전통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특별히 1990년대 들어서서는 많은 삼육대학교 학생들과 재림청년들이 신앙양심의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총거부보다는 안식일준수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노력들은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총거부의 신앙전통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었다.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집총문제가 화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군대문제와 신앙양심의 자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던 2001년부터였다. 이 해에 국내의 유력한 시사주간지와 일간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묻혀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진정한 신앙양심의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었다.³ 2001년 1월 한겨레신문이 1,0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¹삼육대신문, 2002년 4월 15일자, 2.

²삼육대신문, 2002년 6월 10일자, 4.

³한겨레신문, 2001년 3월 20일자.

거부자들의 실태를 소개하자 뒤를 이어 여러 언론들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논의에 힘입어 5월 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변호인단을 조직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양심, 종교의 자유와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1960년대에 집총거부로 4년 넘게 형무소에서 복역했던 채의구 목사가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6월에는 국회의원 천정배, 장영달 등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2001년 9월부터는 국제인권기구들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특별히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비인권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10월부터 국내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 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12월에 불교신자인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그 결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2년 들어서 이 문제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민변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제네바 유엔사무국에 제출하였기 때문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의안(2002년 유엔인권 결의안 45)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인권피해사례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2년 2월 4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34개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하였다. 비무장전투신념을 가진 삼육대학교의 관계자들도 이 연대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재림교회의 비무장전투원 신념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 2002년 3월 4일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에서 오만규 교수는 재림교회 비무장전투원 신념과 역사를 소개하였고, 7월 4일에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10월 18일에 “전쟁, 평화, 신학”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 한국기독교학회 제3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기독교사학회의 대표로 “한국의 신앙양심적 집총거부자들과 그 기독교적 비판자들의 신학전통”이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1년 5월 31일에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양심, 종교자유와 군대체복무제를 위한 토

론회”에서는 1994년에 안식일 준수 문제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했던 신학과 정보인 학생이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신앙양심의 자유가 가지는 인권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서도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신학과 학생들이 있었다. 윤영철 학생이 2002년 2월에 군입대후 비무장전투원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해 2년 6개월 형을 받고 투옥된 것이다. 윤영철 학생은 2004년 1월 3일 7개월 감량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2년 여 동안 신앙양심에 따른 신념으로 고통을 겪었다.¹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역시 신학과 임희재 학생이 집총거부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때 34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에서는 임희재 학생의 군사재판에 앞서 소속 사단장과 군사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량이 감소되기도 했다.² 임희재 학생에 이어 신학과 양정로 학생도 집총거부로 육군헌병대에 수감되어 고통을 겪었다. 2005년에는 신학과 이경훈 학생이 집총거부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했으며, 2006년에도 신학과 이동용 학생과 고경덕 학생이 집총거부로 각각 1년 6개월 형과 2년 형을 받아 복역하였다. 박형주 학생도 2006년에 집총거부로 수감되고 안식일문제로 재 구속되는 등 신앙양심의 자유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신앙전통은 2007년에도 이어져 강성현, 강성훈 형제가 역시 집총 거부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였다.³

삼육대학교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여 신앙양심의 자유가 가지는 인권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일 먼저 윤영철 학생과 임희재 학생이 복역 중이던 2003년 5월 28일에 신학과 4층 소강당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이자 성공회대학교 교수인 한홍구 박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신념에 맞는 군복무를 시켜야한다”는 요지의 강의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⁴ 이듬해인 2004년 5월 19일에도 역시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는 국민대 법대교수인 이재승 교수를 초청하여 “양심불복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이재승 교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법명령을 대신하여 양심에 합치하는 법적인 대체수단의 요구원을 의미한다”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양심적인 불복종의 인권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⁵

¹삼육대신문, 2004년 3월 29일자, 6.

²삼육대신문, 2003년 5월 7일자, 6.

³삼육대신문, 2006년 5월 30일자, 1; 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10

⁴삼육대신문, 2003년 6월 11일자, 10.

⁵삼육대신문, 2004년 6월 7일자, 6.

비무장전투원 신념 및 안식일 신앙준수를 위한 신앙양심의 자유를 위한 삼육대학생들의 진지한 투쟁과 신앙양심의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학술적인 노력들은 한국 사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지원활동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변화되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비무장전투 신념에 대한 인권적 가치를 점차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런 변화와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국방부에서는 2007년 9월 18일에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방안을 밝혀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시화되었다.¹ 이 결정은 삼육대학교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신앙전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 쾌거였다.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많은 재림청년들과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고통으로 지켜온 신앙양심의 자유가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6. 학사 및 학생지도의 변화

2000년대 들어서면 학과의 증설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학생들의 실력향상 과 삼육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별히 대학의 특성화전략의 일환으로 삼육엘리트 인증제와 스터디클럽 제도의 도입, 5대 덕목 강화 캠페인 실시 등은 이 시기에 삼육대학교가 추구하던 학사 및 학생지도 방안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1) 상대평가제도 도입

삼육대학교 학사 제도에서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된 해는 2000년 1학기부터였다. 상대평가제이란 숫자나 비율에 상관없이 일정한 학문적 목표에 만족하는 성적을 얻기만 하면 규정된 학점을 주는 절대평가와는 달리 학생들의 석차나 등급을 나눠 학점을 주는 상대적인 학점평가 방식을 말한다. 이는 대학들의 학점 부풀리기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던 제도로서, 대학평가에서 성적산출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도 상대평가를 도입하도록 권장한 것은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교육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대학들의 경우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자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보다 더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

¹삼육대신문, 2007년 10월 19일자, 8.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평가제도 도입을 권장하게 된 것이었다.

삼육대학교 역시 이러한 교육환경에 맞춰 2000년부터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 도입된 상대평가제도에서는 실험실습, 실기, 교육과정 설치학과 의 교직과목 등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의 성적분포 비율이 A+와 A는 10~30%, B+와 B는 20~40%, C+와 C는 20~40%, D+와 D는 10~30%로 규정되었다.¹ 이와 함께 졸업 예정자와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는 대안도 마련하였다. 이는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성적산출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수강한 경우 상대평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었다.² 2001년도에는 이 비율을 조정하여 B 이상은 20~80%(A 이상은 35% 이내), C+ 미만은 20~80%로 규정하여 2003년도까지 이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를 적용하였다.³ 2004년에는 이 비율을 약간 조정하고 일부 과목들에는 절대상대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등 제도상의 변화를 꾀했다. 먼저 일반 전공과목들의 경우 A 이상은 30% 이하, B와 B+는 20~50%, C+ 이하는 30% 이상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정하였으며, 교양성경과목, 실험실습과목, 예,체능계 실기과목 중 전공과목은 위의 상대평가와는 별도로 절대상대평가를 적용하여 B 이상은 20~80%(A 이상은 35% 이내), C+ 이하는 30% 이상이 되게 하였다. 특별히 교직과목, 노작교육, 1학년 성경과목,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상대평가 적용 예외과목으로 정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2005년부터는 교직과목의 경우도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직과목의 경우에도 C+ 이하가 30% 이상이 되어야만 성적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⁵ 그러나 교직과목의 경우 C+ 이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2008년부터는 A이상 30% 이하, B+ 이하 70~100%로 규정해 C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하였다.⁶

상대평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학생들은 학점 취득에 대한 압박감과 미묘한 점수 차이에 따른 위화감 등으로 적응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부추기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특별히 교수들이 소신껏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교육활동의 결과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삼육대학교 요람(2000): 47.

2삼육대신문, 2000년 9월 7일자, 3.

3삼육대학교 요람(2001): 64.

4삼육대학교 요람(2004): 63.

5삼육대신문, 2005년 11월 8일자, 5.

6삼육대학교 요람(2008): 68.

2) 삼육엘리트 인증제 도입(2001)

21세기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인이 되게 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삼육엘리트 인증제(Sahmyook University Certificate of Elite Student System, 일명 Success Program)가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¹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정책적 과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대학별 인증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인증제를 도입하는 대학에는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을 하였다. 이에 삼육대학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게 그 학력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장학증서를 지급하는 엘리트 인증제를 도입하여 삼육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적인 교육의 실용화된 인재상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의 한 단계로 이끌었다.

삼육대학교가 도입한 엘리트 인증제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전까지 영어, 컴퓨터, 사회봉사영역에 정해진 기준을 이수하도록 권장하여 어학능력, 정보활용 능력, 사회적응력을 대학이 인증하고 졸업 후에도 리콜제(Recall System)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 “삼육인 상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 및 대학 홍보, 졸업생들의 취업률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마련된 제도였다.² 삼육엘리트 인증제의 인증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표 89] 삼육엘리트 인증제 내용(2001)

인증범위	내 용	인증명칭
영어분야	· 소정의 영어과정 이수 · 외부공인시험 취득 - TOEFL 550점이상 (CBT-213점이상) - TOEIC 800점이상 - TEPS 650점이상	영어구사능력 인증
컴퓨터분야	· 컴퓨터활용 I,II과목 평점 3.5점이상 · 관련자격증 취득 - 정보처리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전자상거래관리사 - PC활용능력평가700점 이상 - 마이크로소프트인증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인증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1년도, 5-2.

²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4.

³상계서; 삼육대신문, 2001년 5월 16일자, 7.

봉사분야	· 사회봉사학점을 B+이상 이수하고 교내외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 사회봉사학점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인증
전 분 야	3개 부문 인증자	삼육엘리트인증

삼육엘리트 인증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었다. 우선 해외어학연수의 특전이 주어졌는데, 영어인증자 중 TOEFL 580점(CBT 237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EPS 750점 이상인 자로서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8 이상이고 학과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10명을 선발해서 3주간의 해외 자매대학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경비는 삼육대학교가 부담했다. 해외어학연수로 선발되지 못한 인증자들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영어인증자의 경우 TOEFL 580점(CBT 237점) 이상, TOEIC 900점 이상, TEPS 750점 이상 얻은 자에게는 30만 원,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EPS 650점 이상 얻은 자에게는 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컴퓨터 인증자들에게도 20만 원의 특별장학금이 지급되었다.¹

삼육엘리트 인증제가 도입된 첫 해에 인증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수는 영어구사능력 인증 11명, 컴퓨터 활용능력인증 12명, 우수사회봉사인증 1명 등이었다.² 이후 지속적인 제도운영과 더불어 삼육엘리트로 인증을 받은 학생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90] 삼육엘리트 인증 동향(2001-2006)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어구사능력					26	75
컴퓨터활용능력					62	99
우수봉사자					6	8
3개부분인증자						1
총 계					94	183

삼육엘리트 인증제는 2007년부터 ‘SU(秀)-MVP’ 인증으로 개정되었다. 기획실에서는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건학 제2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대학의 비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1세기형 엘리트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SU-MVP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삼육엘리트 인증제를 기초로 해서 창의력과 균형진 인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지로 기획되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¹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4.

²상계서.

3) 스터디클럽 제도 실시

엘리트 인증제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교내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스터디클럽(Study Club) 제도가 2001년도에 입안되어 2002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터디클럽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지도교수를 초빙하여 그의 지도아래 운영되었다. 특별히 취업대비반과 전공학술연구반 등으로 구성된 스터디클럽은 정기적인 클럽활동을 통하여 전공학업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집단 연구활동을 실시하였다.¹ 대학은 스터디클럽에 한 학기당 25만 원씩의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클럽의 활성화를 도와주었다. 2002년 이래로 스터디클럽 활동의 연도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91] 스터디 클럽 연도별 상황

년도-학기	클럽수	참여인원	지원금(원)
2002-1	81	810	20,250,000
2002-2	81	810	20,250,000
2003-1	77	780	19,250,000
2003-2	46	460	11,500,000
2004-1	83	643	20,750,000
2004-2	46	460	11,500,000
2005-1	74	672	18,500,000
2005-2	87	651	21,750,000
2006-1	97	794	24,250,000
2006-2	88	788	22,000,000

4) 5대 덕목 강화 캠페인(5정운동)

취임 후 1년 동안 특별히 학습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여러 제도들의 도입을 구상했던 남대극 총장은 제2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삼육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2001년 9월 5일에 일명 “5정운동”으로 불려진 “5대 덕목 강화 캠페인”을 발표하였다.² 삼육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 교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운동은 인성교육의 기본 덕목인 정결(淨潔), 정돈(整頓), 정숙(靜肅), 정직(正直), 정조(情操)의 5대 덕목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5대 덕목 강화 캠페인 추진위원회(위원장 권혁용 교수)를 구성하고 이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이 들어갔다.

권혁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5정 운동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5대 덕목 강화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1년도, 5-2.

²상계서.

³삼육대신문, 2001년 9월 12일자, 1.

정결(淨潔): 깨끗한 캠퍼스의 유지와 아름다운 환경 조성.

정돈(整頓): 정리정돈과 질서 및 예절교육의 강화.

정숙(靜肅): 복도, 벤치 등에서 조용한 대화와 도서관 실내정숙, 예배 및 채플 분위기 조성.

정직(正直): 부정, 부패, 부조리의 척결과 정직한 시험, 과제 수행 및 근면, 정직, 성실의 품성 함양.

정조(情操): 성도덕 타락 방지 및 순결교육의 강화, 건전한 사교풍토 조성.

위의 내용들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생활 주변을 정리 정돈하며,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기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성간의 예의와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5정운동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함으로써 인격과 덕목을 갖춘 삼육인을 길러냄으로써 삼육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에 게시하고 홍보용 전단과 책갈피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사진 전시, 영상물 제작 보급 등을 통해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추진위원단들은 2001년 9월 15일에 어깨띠를 두르고 구내 및 후문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휴지줍기 운동을 펼쳤고, 16일에는 교수 산상기도회를 끝내고 제명호에서부터 정문까지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범을 보였다. 같은 해 10월 축제기간에는 신학과 여학생회에서 5정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5정운동 추진위원회는 2001년 11월을 정결, 정돈의 달로 선포하였고, 이에 총학생회 문화부에서는 11월에 정결주간을 설정해 5정운동 확대에 참여하였다.¹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2002년 3월을 정숙의 달로 설정하고 정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한 달 동안 강의실과 복도, 도서관 등에서 정숙을 기하고 규칙을 지키며, 채플과 예배시간에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때와 장소에 따른 핸드폰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5정운동의 정숙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숙한 시간과 공간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택하여 바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진행하였다.²

5정운동의 전개로 가시적인 변화들도 나타났다. 총무과 직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2주 1회 직접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으며, 의명대학 교무처에서는 강의실 청소를 맡은 근로학생들을 잘 지도 관리하여 깨끗한 강의실 만들기에 앞장섰다. 예언의 신 연구원에서는 유리창 청소, 화분 비치, 비품 정리정돈에 힘쓰며, 특히 5정운동 관련 예언의 신 권면들을 발췌하여 이 운동을 예언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

¹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4.

²삼육대신문, 2002년 3월 11일자, 11.

였다. 의명대학 광고정보과에서는 졸업작품 제작 시 5정에 관련된 주제를 삽입하도록 권유하고 5대 덕목 실천 모범생을 시상하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테크노경영학부에서는 게시판에 5정운동 사진 게시물을 부착하고 사무엘관 2층 화장실 및 강의실에 화분을 비치하여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¹

이러한 5정운동의 사례들은 메아리가 되어 삼육동 전체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교단 내로 확대되었다. 이에 본 교단의 언론인 재림신문은 한 사설을 통해 “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운동인 ‘5정 강화 캠페인’은 삼육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삼육초등고등학교에서도 전개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운동”으로 소개하면서 교단적 차원의 운동 전개를 호소하기도 했다.² 5정운동은 삼육교육의 기본인 전인교육의 핵심 교육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삼육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삼육대학교가 강조하는 전인교육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적 과제 중의 하나였던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5) 교수학습개발센터(CTL) 설립과 튜터링프로그램 도입.

학사 및 학생지도를 위한 대학의 특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가 설립되었다. 2003년 10월 9일에 개원식을 통해서 설립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들에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한 교육 지원시설이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대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우리 대학의 실정과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개발하고 그 외에 교수학습과 관련된 제도들을 연구함으로써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업무를 주관하였다.

특히 교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교수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교수법 자료 제공, Teaching Tips 제공,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강의촬영 및 분석, 강의콘텐츠 개발 지원 등이 있으며,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학습양식 진단검사 서비스, 학습상담, 시험 잘 보는 법, 리포트 잘 쓰는 법, 학생 튜터링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³ 이 외에도 정보서비스로 도서대여, 비디오, CD, DVD 등의 자료 대여, 교육매체 사용 지원, 뉴스레터 발간 등을 제공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개원 이듬해인 2004년 8월 30일에 학생 튜터링프로그램

¹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4.

²재림신문, 2001년 10월 31일자, 2.

³삼육대신문, 2004년 9월 16일자, 1.

(Tutoring Program)을 시작하였다. 튜터링은 학생들이 서로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공부의 향상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특정과목을 잘 하는 학생 튜터(tutor)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다른 학생들(tutee)에게 도움을 주고자 서로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학습을 돕는 시스템이다. 튜터는 학부 3학년 이상 해당 과목 성적우수자(A 이상),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자 및 대학원생 중에서 모집되었고, 튜티(tutee)는 학부 1, 2학년 학생과 편입생이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튜티는 한 달에 2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였고 튜터는 월 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¹

개설 첫 해인 2004년에는 토익과목을 중심으로 음악학과의 화성학, 경영학과의 마케팅, 신학과의 헬라이어, 화학과의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생명과학과의 일반생물학, 식물해부학, 유전학, 원예학과의 원예장식론, 환경디자인학과의 캐드(CAD) 등이 개설되었는데 총 16명의 튜터와 36명의 튜티가 지원하였다.²

이 제도는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인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캘리포니아(UC Berkeley), 예일 대학교 등에서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한림대학교, 동서대학교 등에서 각 대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다. 삼육대학교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제되어 있는 지적 수준을 높이고, 선후배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한 면학분위기와 선배들의 리더십 개발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1회 참석자들은 98%, 2회 참석자들은 93%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능력 향상과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³

6) 새로운 학부제 도입(2004. 3. 1)

새천년 들어서 새로운 학과들의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러 학과들이 학과의 성격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 좀 더 발전적인 학과로 거듭나는 노력을 추구하였다. 2000년 3월 1일부로 재활치료학과가 물리치료학과로 개명되었으며, 2001년 3월 1일에는 생물학과가 생명과학과로 개명되었다. 2002년 3월 1일에는 인문학부가 영미어문학부로 개명되었으며, 테크노경영학부는 학부를 해체하여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과학과로 다시 분할되었다. 음악교육학과는 음악학과로 개과되었다. 이로써 음악학과는 교육학과로서의 성격을 벗고 보다 전문적인 음악학 전공학과로 변신하게

¹상계서.

²상계서.

³삼육대신문, 2005년 9월 27일자, 5.

되었다. 아울러 언어교육원은 국제문화교육원으로 개명되면서 어학교육을 넘어서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발전하였다. 2004년 3월 1일부로 기독교 상담학과가 상담학과로 개명되면서 학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로써 상담학과는 기독교상담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일반상담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상담교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의 변신을 꾀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학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학과들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서 안정된 학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학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0년에 폐지하고 개별단위 학과로 분리했던 제도를 다시 학부제로 묶는 새로운 행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19개 학과 또는 전공영역을 3개 학부로 묶었다. 제1학부는 신학과, 영미문학부,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상담학과, 음악학과, 제2학부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원예학과, 응용동물학과, 컴퓨터과학과,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제3학부는 간호학과, 약학과, 식품영양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학과로 구성하였다.¹

특별히 각 학부에 행정지원실을 두어 학교 행정을 학부체제로 전환하였다. 제1학부는 학부장에 하홍팔 교수, 행정실 직원에 이곤철 선생, 제2학부는 학부장에 이동섭 교수, 행정실 직원에 유영상, 문애경 선생, 제3학부는 학부장에 이숙연 교수, 행정실 직원에 손희섭, 김진영 선생이 각각 선정되었다.² 이렇게 구성된 학부제는 2006년에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7. 제2캠퍼스 사업 추진

새천년 들어서 삼육대학교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제2캠퍼스 설립이었다. 제2캠퍼스 설립은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었던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학 유치에 뜻을 두고 있던 남양주시의 필요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외협력처(처장: 한성보)에서는 2001년 2월에 남양주시에서 대학 유치의 뜻을 두고 호평동에 대학 부지를 마련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해 4월 11일 대학운영위원회에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된 안건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학의 관계자들 및 이사회 지도자들이 3차에 걸쳐서 부지를 답사한 후 5월 14일 운영협의회에 제2캠퍼스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하여 10일 후인 24일에 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연합회 차원의 제2캠퍼스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³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1.

²삼육동소식, 2004년 2월 12일자, 2.

다음날인 5월 25일에 대학운영협의회에서는 실무차원의 제2캠퍼스 설립연구위원회¹를 구성하였으며, 28일에는 제2캠퍼스 설립연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2캠퍼스 부지 구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부지구입을 결정하였다. 이후 연구위원회에서는 교단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과보고 및 제2캠퍼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후 연합회 행정위원회로부터 설립추진을 결의받았다(6월 7일). 이런 과정을 통해 토지 매수에 착수하였다.

제2캠퍼스 부지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가격은 53억 원(116,219평)으로 합의되었다. 대학은 이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진입로 개설 문제를 두고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진입로 공사 53억 원(최초에는 73억 원) 중 대학이 총 공사비의 20%를 지원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1년 9월 26일에 제2캠퍼스 소위원회²에서 부지 구입비 53억 원 중 계약금으로 10%를 지불하기로 결의하고, 10월 5일 한국연합회 소회의실에서 땅 주인 측과 부지 구입을 최종 계약하기에 이르렀다.³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10월 17일에 개최된 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87, 608, 609번지(116,219평)를 53억 원(진입로 공사비는 제외)에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제2캠퍼스 사업을 승인하였다.⁴ 그 후 10월 30일에 대학은 총장 명의로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조의뢰 공문(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 5개년 계획서 등을 첨부)을 남양주시에 접수시켜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남양주시에 제출한 제2캠퍼스 설립 5개년 계획서에 따르면 제2캠퍼스로 이전이 예상되는 학과 및 신설학과와 부속기관으로는 보건복지계열, IT계열, 대학원, 사회교육원, 유치원, 영어학원 등이었으며, 연도별 캠퍼스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았다.⁴

- 2001년 토지매입 완료
- 2002년 진입로 및 캠퍼스 내 도로 개설(운동장 및 상하수도 공사)
- 2003년 강의실, 행정관, 식당 및 매점 건립

³제2캠퍼스 연구위원회는 총장을 의장으로 해서, 김종문, 박동승, 엄보석, 이동영, 권혁우, 홍명관, 한성보, 정순영, 김재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성보,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진행과정 및 보고,” 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7.

¹제2캠퍼스 설립연구위원회는 의장에 총장, 부의장에 대외협력처장, 서기에 기획실장, 위원에 권오달, 윤충여, 최준환, 이기호, 장용선, 안금영, 정순영, 오만규, 이숙연, 홍순명, 한상경, 김광규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계서.

²제2캠퍼스 부지 계약은 땅 주인측(손수명, 이규일, 함영주)과 대학측(남대극, 한성보, 김성태, 이선, 김종문, 전정권, 이명규) 사이에 이뤄졌다. 상계서.

³학교법인삼육학원 이사회의사록, 2001년도, 47, 48.

⁴삼육대신문, 2001년 12월 3일자, 7.

- 2004년 남녀 생활관 및 생활관 식당 건립
- 2005년 소강당 및 학생복지관 건립
- 2006년 강의실 및 과학관 건립

이런 일정과 더불어 제2캠퍼스의 개교는 삼육대학교가 개교은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으로 예정되었다.¹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되었다. 그래서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남대극 총장과 한성보 대외협력처장은 2차례에 걸쳐 미주교회를 순회하고 미주 교우들을 대상으로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미주 동문들을 대상으로 ‘삼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부지의 일부(46,096평)가 학교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진입로 및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로써 기존의 캠퍼스조성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2001년에 완성 예정이었던 부지매입은 2003년에 가서야 완성되었다. 대학은 2003년 4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명의 이전을 마침으로써 부지를 완전 매입하게 되었다. 이때 매입한 토지는 임야 70,123평(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87번지 외 2필지)이었으며, 금액은 총 39억2천만 원이었다.³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했지만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제2캠퍼스 조성은 여의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학부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598번지 4,188m²)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부지는 소유주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20일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구입하여 그해 11월 30일에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부지 구입은 일단락짓게 되었다.⁴

부지 매입 이후에도 제2캠퍼스 조성은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부지를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2캠퍼스 추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2캠퍼스로의 이전학과 선정 및 캠퍼스 특성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지 못한 채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2년 10월에 대학 운영위원회에서는 삼육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2캠퍼스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결의하여 기획실에

¹상계서.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4.

³세부 매입 내용은 산 87번지 229,757m², 608번지 1,031m², 609번지 618m², 산 85-1번지 18,078m²였으며, 등기가 완료된 시점은 2003년 6월이었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3년도, 5-3; “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16.

⁴이로써 제2캠퍼스 부지는 총 253,672m²(76,735평)가 되었다.

제2캠퍼스 운용계획안을 마련토록 위임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기획실에서는 2003년에 제2캠퍼스 운용에 따른 연구를 통해 특정학과 이전 대신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중심 캠퍼스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어 교육센터, 사회교육원 등을 2006년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계획안을 작성 발표하였다.¹

그러나 이 제2캠퍼스 운용계획안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건학 제2세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제2캠퍼스만의 단독 전략을 입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학은 제2캠퍼스 조성 계획을 새로운 대학 비전과 함께 수립하기로 하고 개교100주년에 즈음한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제2캠퍼스 사업은 좀 더 신중한 계획 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수정되었다.

8. 교육시설의 확충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 발전기금 마련 프로젝트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은 전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삼육대학교는 2004년까지 총 116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가운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71억9천7백만 원에 이른다.² 대학은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각종 대학운영자금을 동원하여 21세기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건축 및 시설들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건축된 건물들과 대학 시설들로는 남녀 생활교육관과 식당, 온실, 동물사육관, 외국인사택 등이 있다.

1) 학생회관 증축(2002. 3. 27)

1985년 완공된 학생회관은 약 20여 년 동안 삼육대학교 학생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수의 증가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01년 4월 20일에 기공식을 갖고 증축공사에 들어갔다.³ 학생회관은 최초에 학생수에 맞게 면적이 축소된 채 지어졌다. 따라서 학생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증축작업에 들어간 학생회관은 11개월 만인 2002년 3월 27일에 약 450평 규모의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넓어진 학생들의 공간으로 확대되었다.⁴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3년도, 5-27.

²상계서, 기2-4.

³삼육대신문, 2001년 9월 12일자, 7.

⁴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5-1.

학생회관이 증축된 이후 9월부터는 학생들을 위한 공동휴게실 공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13일에 개관행사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았다. 학생공동휴게실은 학생회관 2층에 50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이 시설을 통해서 방송 뉴스나 학교 홍보용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TV로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곡된 복음성가, 클래식이나 가곡에 한하여 음악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 휴게실 내에는 신문과 교양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자판기, 컴퓨터 등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¹

학생회관의 증축으로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동아리 방들(4층)이 마련되었으며, 슬기샘, 안경점 등의 편의시설들도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과 의명대학의 총학생회 사무실 및 대의원사무실, 여학생회 사무실 등도 마련됨으로써 학생활동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2) 온실 준공(2002. 11. 14)

21세기 들어서서 첫 번째로 신축한 건물은 온실이었다. 원예학과와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생물학과 등 식물 및 원예 작물들을 재배 관리할 수 있는 실습실로서의 현대식 온실을 짓기 위한 기공식이 2001년 3월 14일에 행정관 옆 제1과학관 뒤편에서 거행되었다. 이 건물은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인 2002년 11월 14일에 준공되어 새로운 실습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²

철근 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조의 경사 슬라브식 3층 건물(연면적 1,148.69m²)로 지어진 온실은 1층은 교육연구시설 및 온실(814.31m²)로, 2층과 3층은 교육연구시설(214.07m²와 120.31m²)로 약 10억 원의 재정을 들여 건축하였다.

3) 남녀 생활교육관 및 식당(2003. 9)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건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남녀 생활교육관과 생활관 식당 건축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육대학교의 교육시설들은 발전해 왔지만 기숙사는 1950~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1987년에 남녀 생활관을 새로 지어 학생들이 특별한 불편사항 없이 생활관을 사용하였지만 과거에 지어진 기숙사 건물들이 여전히 신학숙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학은 새로운 생활관 건축을 숙원 사업으로 선정하고 생활관 및 생활관 식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2002년 8월 10일에 시화사와 동명사, 9월 10일에는 백합사와 장미사를 모두 철거함으로써 새로운 생활관 건축에 돌입하게 되었다.³

¹삼육대신문, 2002년 11월 15일자, 1.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5-1.

새로운 남녀 생활교육관은 2002년 3월 1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건축의 규모는 남생활교육관 1,259평, 여생활교육관 1,259평, 생활교육관 식당 520평으로 설계되었다. 생활교육관의 자리는 남학생용은 시화사와 동명사가 있던 자리에, 여학생용은 백합사와 장미사가 있던 자리에 3층 규모로 건축되며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약간 대칭되게 배치되었다. 그리고 생활교육관 식당은 남생활교육관과 선교90주년기념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 건축물들의 건축허가는 2000년 9월 23일에 받았으며, 2002년 3월 11일에 시온 건설(대표: 홍두식)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14일에 기공식을 갖고 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생활교육관 관련 건물들은 2003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완성되었다.¹ 건물의 규모는 시온관으로 명명된 남생활교육관은 총면적 3,921.79m²(1,186.34평)의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라브 3층 건물로 지층 832m², 1층 1,034.67m², 2층 1,027.56m², 3층 1,027.56m²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건물 내에는 4인실의 방 65개와 3개의 손님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인원은 260명이었다. 예텐관으로 명명된 여생활교육관 역시 동일한 규모와 디자인으로 건축되었으며 구조는 4인실의 방 69개로 총 27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생활교육관 식당은 총면적 1,716.02m²(579.09평)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2층 건물로 지층 568.1m², 1층 591.39m², 2층 556.53m²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식당은 1, 2층 포함해서 총 522명의 수용이 가능하였으며, 1층은 기숙사 학생 식당, 2층은 교직원 식당으로 운영되었다.

새로 지어진 생활교육관과 식당은 규모도 크고 최신 설비를 갖춘 생활관으로 전국의 대학 생활관들에 비해 손색이 없는 건물로 지어졌다. 최신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은 물론 세탁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건물이었다. 이러한 생활교육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삼육대학교는 21세기 대학교육의 비전을 더욱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학생 생활교육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기존의 기숙사들은 새로운 목적에 따라 활용되었다. 우선 여기숙사로 사용하던 브니엘관은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향학목회자들의 숙소로 활용되었으며, 남기숙사로 사용하던 살렘관은 신학과 학생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활용되었다.

4) 동물사육관 준공(2004. 2. 13)

온실에 이어 응용동물학과의 실습장인 동물사육관 공사가 2003년 11월 1일에 기공식과 함께 시작되어 2004년 2월 13일에 준공되었다.²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라브

³삼육대신문, 2001년 9월 12일자, 7.

¹삼육대신문, 2003년 10월 6일자, 1.

²“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2.

1층 건물 198m²(60평)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의 건축비는 약 1억5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5) 기타 건축 및 시설 확충

대학의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00년대 들어서 계속되었다. 2000년에는 정문 앞 대학부지에 삼육주유소(160평)를 건립해 2001년 2월 5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갔다.¹ 2001년도에는 후문 밖에 있는 노후한 사택들을 증개축하여 2002년까지 총 218평의 사택들을 새롭게 수리하였다.² 2001년 7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시장: 고건)가 8억 원의 예산으로 세워 준 삼육대육교가 준공되었다. 이 육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교”로 인정받았다.³ 2002년에는 대강당 설비공사와 도서관 냉난방공사, 구 대학원 건물 수리 등을 통해 교육시설을 보수하였다.⁴

2003년에는 에텐관 뒤쪽 총장관저 입구에 기혼자 생활관을 지어 현재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 사택으로 활용하였다. 이 생활관공사는 2004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내 광케이블 관로공사를 증설하였으며, 제1, 제2과학관의 전기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동장 조명공사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⁵

6) 스쿨버스 확충과 무료운행 실시

2003년도 1학기부터는 스쿨버스를 확충하고 무료운행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스쿨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때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16일부터 혼잡한 등교시간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석계역에서 학교 도서관 앞까지 스쿨버스가 운행되었다. 첫 운행 당시에는 석계역에서 8시 40분에 한 대의 스쿨버스가 학교까지 운행되었고 요금은 100원이었다.⁶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이용이 활발해지자 오전 8시 40분과 8시 45분에 각각 1대씩 2회 운행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스쿨버스의 운행 횟수는 1989년에 3회, 1990년 2학기부터는 6회로 각각 증편되었다.⁷ 그러나 이때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스

¹삼육대신문, 2001년 3월 12일, 7.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1년도, 5-1.

³상계서.

⁴“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11.

⁵상계서, 기2-11, 기2-12.

⁶삼육학보, 1988년 5월 31일자, 1.

⁷삼육학보, 1990년 9월 6일자, 1.

쿨버스를 운행하였고, 하교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하교시간의 스쿨버스 운행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1996년부터는 오후에도 정기적으로 하교 스쿨버스를 운행하였다.

1995년에 이르러 스쿨버스는 4대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1대는 유치원 전용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버스는 3대가 운행되었다. 특별히 2대는 석계역으로 운행하였고, 1대는 영어학원생들을 고려하여 위생병원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러나 구청의 허가 등의 문제로 1995년 9월 26일부터는 3대 모두 석계역으로만 운행되었다. 아울러 1996년도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4대의 스쿨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¹ 그러나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등교길의 혼잡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스쿨버스 운행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졌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버스 확충, 효율적인 운행체계 확립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수송부에서는 버스 기사들 간의 무전 교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수송하도록 하고, 배차 간격도 1995년부터 종전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스쿨버스 요금은 최초 100원에서 약간씩 인상되어 1997년에는 300원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250원에서의 인하를 요청하였지만 학교는 배차 증차, 오후 운행 등의 편리를 제공하는 대신 요금은 그대로 동결하기로 해 스쿨버스 요금은 300원을 유지하게 되었다.² 대신에 1996년 8월 31일부터는 안식일에 한 해서 스쿨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기로 결정하여 스쿨버스 무료화의 첫 시작점이 되었다. 이로써 매 안식일 12시에 3대의 스쿨버스가 대강당에서 석계역까지 무료로 운행되었다.³

2000년대 들어서서 스쿨버스 운영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된 것이었다.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 중 83.2%가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일 이용하는 비율도 49.2%에 이르렀다. 이렇게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등교시간 대에는 스쿨버스가 만원을 이루어 지각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스쿨버스 운영을 위해 부득불 버스노선 변경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학생처에서는 2001년 1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설문을 하여 등교시간에는 화랑대역까지만 운행하고 하교시간에는 석계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스쿨버스 노선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⁴ 이와 더불어 그해 9월 3일부터 버스요금을 종전 300원에서 250원

¹삼육학보, 1995년 9월 28일자, 3.

²삼육학보, 1997년 3월 12일자, 3.

³삼육학보, 1996년 9월 11일자, 7.

⁴삼육대신문, 2001년 6월 4일자, 1.

으로 인하하였다.¹

이런 과정과 더불어 2003년에 이르러 스쿨버스 무료화를 전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학교는 스쿨버스를 9대로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등하교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학기부터 스쿨버스 요금을 완전 무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요구한 등록금 인하 대신에 스쿨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기로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 학생처장이었던 권오달 교수의 노력이 있었다. 이 결정과 더불어서 학교는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스쿨버스 운행 수익금을 학교 예산의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대신 등록금을 원안대로 인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왔다.²

이 결정과 더불어 스쿨버스 운행 제도가 확립되었다. 오전에는 화랑대역 5번 출구와 학교를 왕복 운행하는데, 7시52분부터 10시까지 4분 간격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오후에는 석계역 4번 출구 승강장과 학교를 왕복 운행하는데, 12시부터 8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8시 15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평일 10시 30분, 금요일 3시 30분, 토요일 9시 50분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스쿨버스 운행에 따른 제도를 확립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9. U.I. 선포식(2002. 11. 11)

새천년 들어서 삼육대학교가 추구한 핵심 목표인 새로운 대학 이미지 창출은 새롭게 만들어진 U.I. (University Identity)를 선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U.I.란 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통일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서 개교 100주년을 앞둔 삼육대학교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였다. 이에 대학은 대내적으로는 대학의 정체성을 다짐으로써 학교이념을 확고히 하며, 구성원들 간의 단결력을 고양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대학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체계적이며 능동적으로 전달하여 장, 단기적으로 대학의 위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U.I.를 제작 선포하게 되었다.³

대학 내에서 U.I.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에 대학 행정자들은 대학의 로고와 심벌이 시대적으로

¹삼육대신문, 2001년 9월 12일자, 7.

²삼육대신문, 2003년 3월 26일자, 7.

³삼육대신문, 2002년 11월 15일자, 1.

뒤떨어지며 초기에 설립된 학과들만이 반영된 형태로서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대학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U.I.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인식 아래서 1차적으로 1997년 6월부터 약 2개월 간 대학의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공모전에서는 교내 관계자들 및 숙명여대 안정인 교수, 영남삼육 전종범 선생, 연합회 전정권 목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출품작들을 심사하였는데 당선작은 뽑지 못한 채 우수작 1편(박도순, 삼육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성신여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가작 2편(정은주-충북 단양교회, 성시호-경기 안산교회)만을 시상자로 선정하였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 가작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씩이 수여되었다.¹

이 공모전을 통해서 비록 당선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학의 U.I.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삼육대학교는 1967년에 클라임스 박사가 도안한 배지를 로고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로고는 신학과와 농업교육학과와 가정교육학과 3과 만이 존재할 때 그 학과들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삼육대학교의 이미지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하루 속히 새로운 로고 및 심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었다.

이 필요에 부응해 대학 운영위원회는 2001년 5월에 U.I.추진위원회(위원장: 안금영 교수)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U.I. 제작 작업에 착수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외부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삼육대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포함하는 심볼마크, 지정 서체, 지정 색상 등의 기본 디자인과, 각종 응용디자인이 포함된 U.I.를 1년 6개월의 기간을 들여 작업하여 완성한 후 2002년 11월 11일 11시에 대망의 “New U.I.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상징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² 새로 지정된 U.I.는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고유한 창학이념을 드러내고 삼육인의 다양한 요구와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삼육대학교의 얼굴로 제시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내었다.

U.I.의 표현 이미지는 삼위일체적 구도로 완전한 지, 영, 체 등 삼육교육의 이념을 상징하는 세 개의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타원들은 생명을 간직한 형상인 씨앗의 모양을 이룬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미래적 삼각형 이미지는 대학의 교훈인 진리, 사랑, 봉사의 큰 빛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영원한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중심에서 뻗어 나오는 밝은 청색은 생명 탄생과 자연친화를 상징하며, 바깥쪽으로 짙어지는 청색은 전통적이며 전향적인 삼육대학교의 교육 의지를 미래지향적인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이 청옥색은 원대한 이상 곧 하나

¹교회지남, 1997년 11월호, 47.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3-3, 5-20.

님의 율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삼육인이 입어야 하는 예복, 즉 순종의 의상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체의 원형이 만나 이루는 세 꼭지점의 삼각형제는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통한 전인교육을 형상화하고 있다.¹

이렇게 창출된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U.I.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삼육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의 가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함께 드러내 주었다. 이 새로운 U.I.를 선포하면서 남대극 총장은 “21세기에도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잘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하여 새로운 U.I.를 제정하였으므로 이것에 조화되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²

이날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진행된 U.I. 선포식은 현대 감각에 맞춘 감동적인 기획과 콘셉트로 진행되어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더욱이 새롭게 제안된 U.I.가 가지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대학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게 해 주기에 충분했다. 오전 11시에 진행된 선포식에 이어 12시에는 정문에서 새로운 교표 제막식도 거행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는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10.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전략 방안 마련

대학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U.I. 제작이 외적인 핵심 과제였다면 내적인 과제는 대학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새천년 들어서면서 이미 남대극 총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21 대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대학의 생존 전략과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00년 2학기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21C 대비위원회(일명 Forum 21)는 한시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위원장으로 수고하던 김재완 교수(기획실장)가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종결하였다. 이후 기획실장에 임명된 김광규 교수는 대학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2년부터 기획팀과 더불어 새로운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1) ‘2003~2010 중장기발전계획’(2002)

삼육대학교가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발전전략으로는 1998년 10월에 입안된 ‘Vision

¹삼육대신문, 2002년 11월 15일자, 1.

²상게서.

100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었다. 기획실에서는 이 발전계획안을 재검토한 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우선 2002년 5월 '제2기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7월에 그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발전전략(안)은 2002년 8월 전체교수협의회에 보고 및 심의를 거쳐 내부적인 합의를 얻은 후 그해 10월에 대학 행정협의회의 검토 및 심의를 통과한 후, 12월에 이사회(대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¹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전전략은 '2003~2010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명명되었다.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매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하여 2004년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 발전계획에서 삼육대학교는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입각해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국제적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상위 15% 이내 대학"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 성실하고 정직한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1인 1외국어 교육으로 국제화 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수요자 중심의 실용학과 교육을 통해 취업률 제고를 지향하는 대학, 보건복지 교육을 통해 최고의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대학"을 4대 발전목표로 제시하였다. 특별히 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성화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인성교육, 보건복지 교육, 국제화교육, 실무형인재교육이 바로 그것이었다.² 삼육대학교는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라서 본격적인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특성화전략 추진

대학 중장기발전전략이 마련됨에 따라서 전략에 나타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특성화전략 추진팀이 구성되었다. 대학 행정협의회에서는 2002년 11월 19일에 중장기발전전략에서 제안된 4대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남대극 총장, 간사: 김광규 기획실장)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특성화전략 추진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³

[표 92] 특성화전략 추진위원회

특성화분야	팀 장	위원들
인성교육	김상래	교목과장, 최경룡, 박정양, 최순남
보건복지교육	김평안	사회봉사단팀장, 양재욱, 정수목, 신성례
국제화교육	이종근	ICEC부장, 최수동, 고원배, 손애리
실무인재형교육	김종은	교무과장, 부문종, 오덕신, 허의남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5-20.

²삼육대학교 기획실, 2003-2010 중장기발전계획, 2002, 27-30.

³삼육동소식, 2002년 11월 28일자, 2.

이 특성화전략 추진팀은 2003년 11월 14일에 있었던 행정협의회에서 조정되었다. 우선 인성교육분야의 팀장이 이경순 교수로 변경되었고, 위원들에는 김상래, 김은배, 박두한, 서경현 교수가 각각 선정되었고, 보건복지교육분야의 위원들로는 정종화, 이숙연, 김영숙, 이재구, 오복자 교수로 조정되었다. 국제화교육분야의 위원들은 이기갑, 최수동, 고원배, 손애리, 박정양, 권영순 교수로 조정되었고, 실무형인재교육분야의 위원들은 정재훈, 부문중, 오덕신, 유광옥 교수로 조정되었다.¹

특성화전략 추진위원회는 각 분야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별히 각각의 특성화분야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특성화전략 추진을 위해 기획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03년 12월 4일에는 특성화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성화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기획실장 김광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설명회에서는 각 분야의 팀장들이 특성화 추진 발전목표와 운영방침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실무형인재교육 특성화추진팀(팀장: 김종은 교수)은 해외인턴교육, 기업체 현장교육, 인턴십교육 학점화, 삼육외국어학원과의 연계교육 등을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였고, 국제화교육 특성화추진팀(팀장: 이종근 교수)은 교수의 국제화, 학생의 국제화, 외국인학생서비스, 학생 봉사 및 자매대학교류 등의 추진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인성교육 특성화추진팀(팀장: 이경순 교수²)은 예절교육, 봉사활동, 노작교육의 활성화, 불암산 지킴이, 서어나무 군락보호, 도토리 사랑운동 등을 추진 사업계획으로 발표하였고, 보건복지교육 특성화추진팀(팀장: 김평안 교수)은 보건복지관련 6개 학과와 연계한 보건복지교육, 보건복지연구소운영, 사회봉사의 추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사업계획으로 발표하였다.³

대학의 중장기발전전략에 따른 세부적인 특성화전략 추진은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발전에 있어서 핵심 에너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과 세부사업 추진으로 삼육대학교는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였다.

3)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2002)

대학의 특성화전략은 대학 비전창출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교육부 지원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대학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삼육대학교 역시 특성화전략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성화 지원사업이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쟁력을

¹삼육동소식, 2003년 11월 27일자, 2.

²삼육동소식, 2003년 12월 11일자, 1.

³상계서.

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별히 대학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화·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모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특성화하는 일에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¹

정부의 대학교육 특성화 관련 정책이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은 1994년이었다. 그 해 2월에 출범한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모색하면서 “교육의 다양화 방안”을 서울대 장희익 교수에게 연구하도록 위임하였다. 이후 1996년 4월에 출범한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과제를 마련하였는데 이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대학특성화 정책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실적과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에 특별재정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BK21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지역혁신 특성화지원사업,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²

‘특성화 우수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삼육대학교 역시 2002년도에 이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는 2002학년 재정지원사업의 제2분야인 ‘자체 교육개혁 실천분야’에 지원하여 전국 198개 대학교 가운데 22개교만을 선발하는 서류심사에 통과함으로써 현장평가를 받게 되었다.³ 현장 평가는 7월 19일에 실시되었는데 조중빈 교수(국민대)를 단장으로 한 7명의 평가단이 대학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삼육대학교가 선택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주제는 “지·덕·체 삼육전인교육 구현 프로젝트”(SUPER PROJECT: Sahmyook University Perfect Education Reformation Project)로 늘 강조해 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위원회(위원장: 김광규)는 채플, 5대 덕목 강화 캠페인, 노작교육, U2Can Music Project, 삼육엘리트 인증제, 스터디클럽, 국제화교육, 정보화교육, 소그룹 수련회, 뉴스타트 건강교육 등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⁴

이 프로젝트로 삼육대학교는 ‘2002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이 결과는 조선일보 8월 16일자에 보도되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2개 분야에서 총 31개 대학이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삼육대학교는 제2분야의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⁵

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정책자료 제73집(2004): 82.

²상계서.

³삼육동소식, 2002년 7월 26일자, 1.

⁴상계서.

⁵조선일보, 2002년 8월 16일자. 제1분야는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분야’였고, 제2분야는 ‘자체 교

2002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삼육대학교는 6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이 자금으로 대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영성, 지성과 건강교육 등을 증진시키는 곳에 재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4)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2004. 9. 17)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 들어서서는 ‘교육개혁우수사업’을 ‘특성화우수사업’으로 개편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으로 지원정책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수도권 대학 전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던 정책이 이제는 정부가 평가하는 특성화우수대학에 한해 지원금을 몰아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¹ 따라서 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삼육대학교이 특성화전략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삼육대학교는 4개의 특성화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2003년 특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3년에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삼육대학교는 6월 13일에 보건복지특성화를 통한 전인교육의 구현을 위한 ‘플러스알파(Plus Alpha) 프로젝트’를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다. 이 해에 특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한 대학은 모두 121개로 이 중 41개교가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는데 삼육대학교 역시 그 심사를 통과하여 현장평가를 받게 되었다. 현장평가는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고, 7명의 평가단이 대학을 방문하여 실사를 벌였다.² 현장평가 위원들은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교육부가 지방대학 우선지원 정책을 추구하였고, 본 대학 자체로도 법인의 적극적인 투자의지 결여가 단점으로 작용해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는 못했다.³

그러나 이 과정은 소중한 경험이 되어 이듬해인 2004년도 특성화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정사업은 수도권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총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는 수도권 지역의 72개 대학 중에서 68개 대학이 참가하였는데 삼육대학교는 “국가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략을 위한 전문 케어

육개혁 실천분야였다.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17.

²평가단은 이진호 교수(연세대)를 평가위원장으로 하여 송승환 교수(동서대), 백승규 교수(순천향대), 손진상 교수(안동대), 황규호 교수(이화여대), 허용부 교수(천안대), 이세준 교수(호남대) 등 7명으로 구성되었고, 본 대학에서는 김광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평안 교수, 천성수 교수, 정종화 교수, 오복자 교수 등이 현장 평가를 준비하였다. 삼육동소식, 2003년 8월 21일자, 2.

³상게서.

매니저(요양관리사) 양성사업”을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제안하여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사업 평가결과는 9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68개 지원 대학 중 27개 대학이 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 부문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융합기술 핵심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과제를 제출한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중소규모 대학 부문에서는 본 대학을 포함한 16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는 2005년 6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11억 9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되었다.¹

대학은 이번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였는데, 이 팀에는 김영숙 교수를 팀장으로 오복자 교수, 이재구 교수, 정재훈 교수, 정종화 교수가 참여하였고, 보건복지연구소 소장인 김평안 교수와 제3학부장인 이숙연 교수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²

삼육대학교가 제출한 전문 케어 매니저 양성사업이란 지역 자립생활과 장기 요양보호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수요자의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 조정, 자원의 개발 알선, 계획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케어 매니저(요양관리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략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서 본 대학이 수립한 ‘비전100 중장기발전전략’ 이래로 계속 추진해왔던 보건복지특성화의 핵심 사업이었다. 삼육대학교는 이 사업 프로젝트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케어 매니저 전공과정 개설 및 트랙(track)형의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기반 중심의 산학협동연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케어 매니저를 원하는 제3학부 학생의 경우 이 과정을 위해 관련 타 학과의 수업을 수강해야만 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방향들이 설정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서 제3학부의 학생정원을 2005년 10명 감축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했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인 케어 매니저 전공과정(40명)을 신설하여 2008년까지 60명의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도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3학부 6개 학과(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은 이 사업을 통해 전문 케어 매니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학생들의 취업률 증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결과도 낳게 되었다.³

¹삼육대신문, 2004년 10월 14일자, 21.

²삼육동소식, 2004년 9월 17일자, 1.

³상계서.

이 실적으로 인해 삼육대학교는 보건복지 특성화대학으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년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2005년 사업에도 지원을 해 2년 연속 보건복지분야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역사 시대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각종 대학 평가와 그 결과

21세기 첫 시대의 삼육대학교의 역사는 평가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여러 종류의 평가 및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들은 대학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된 2004년까지의 삼육대학교의 평가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학문분야 평가, 대학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평가, 언론평가, 2주기 대학종합평가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학문분야평가(2001, 2002)

본 편의 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평가인정제 및 종합평가인정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대학들은 평가를 통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였는데 대학평가인정제는 학문분야평가, 종합평가 인정제는 대학종합평가를 통해서 각각 인정여부를 결정짓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에 따라서 1998년도에 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후 2004년 2기 대학종합평가를 받기 전에 학문분야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와 관련된 학문분야평가는 1997년도에 간호학분야와 약학계열분야에서 평가를 받은 이후, 2001년도에 교양교육분야, 2002년도에 사회복지분야, 2004년도에 생물생명분야의 평가를 각각 받아야만 했다.¹

2001년 학문분야평가의 교양교육분야 평가는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로 진행되었다. 교양교육분야의 총 6개 영역(교육목표영역, 교육과정영역, 교수영역, 수업 및 평가영역,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여건영역, 개선 노력 및 발전계획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본 대학은 “우수대학” 인정의 평가 결과를 받았다.²

2001년의 학문분야 평가는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등급을 적용하였다. 이전까지의 학문분야 평가는 최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인정, 불인정만을 평가했지만 2001년

¹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 안내의 연도별 실시현황을 참고하라. <http://eval.kcue.or.kr>.

²삼육대신문, 2002년 3월 11일자, 1.

도 학문분야 평가 대상인 교양교육분야는 ‘최우수’(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65~80점), ‘개선요망’(65점 미만) 등으로 등급화하였는데 삼육대학교는 ‘교육기본 시설 및 지원여건’ 영역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 종합결과 “우수”대학으로 인정을 받았다.¹

2002년도에는 학문분야 평가로 사회복지분야의 평가가 있었다. 특별히 설립 후 6년이 지나 3회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48개 대학의 사회복지분야 평가로 실시되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1월 28일에 4명의 평가위원과 1명의 대교협(대한교육협의회) 수행원 등 총 5명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맞이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 영역에서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대학 인정을 받았다.² 특히 학생 및 교육성과(취업 및 진학)영역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수업영역 등에서는 “우수,” 교수영역에서도 “우수”를 각각 받았다.³

평가 후에는 지적된 몇 가지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우선 학과 교수들의 시수가 너무 많아 일주일에 9학점으로 시수를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신학관 104호에는 임상사회복지 상담실을 설치하였다. 상담 공간, 컴퓨터 시설, 한쪽에서는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one-way 거울 등 첨단시설을 갖춘 이 상담실은 임상상담은 물론이고 영상물제작, 교재제작, 인터넷 강의 등이 가능한 전용공간으로 설치되어 사회복지학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⁴

2004년에는 생명과학과 학문분야평가가 진행되었다. 2004년 12월 2일에 진행된 생명과학과 평가는 5명의 평가단(위원장: 이원근 명지대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⁵ 평가결과 평가대상 75개교 가운데 삼육대학교는 ‘인정’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의 결과를 보면 ‘최우수’가 2개교, ‘우수’가 14개교, ‘인정’이 58개교, ‘개선요망’이 1개교였다. 삼육대학교 생명과학과는 ‘교육여건 및 지원체계’ 영역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소 평가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인정’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⁶

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2003. 12.16)

¹종합평가로 ‘최우수’는 동서대, 성균관대, 이화여자대, 천안대, 한양대 5개교였으며, ‘우수’는 삼육대, 경희대, 서울여대 등 62개교, ‘보통’은 서강대, 숙명여대 등 93개교, ‘개선요망’은 한국교원대 등 4개교였다. 상계서.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5-21.

³“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기2-17. 서울대, 이화여대, 성공회대 등 3개 대학이 ‘최우수’를 받았고, 삼육대, 서울여대를 비롯해 23개 대학이 ‘우수,’ 20개 대학은 ‘보통’을 받았다. 숭실대와 광주대는 불합격 평가를 받았다. 삼육대신문, 2003년 3월 26일자, 7.

⁴상계서.

⁵삼육동소식, 2004년 12월 17일자, 2.

⁶삼육대신문, 2005년 4월 7일자, 1.

2003년에 본 대학은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를 받았다. 이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장애우들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서 전국 20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였다. 이러한 평가 방침에 따라서 삼육대학교는 그해 12월 16일에 평가를 받게 되었다.

평가단은 평가위원장인 김원경 교수(한국체육대학)를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선발영역(4점), 교수 및 학습영역(31점), 시설 및 설비영역(65점)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단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데 삼육대학교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시설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¹ 특별히 삼육대학교는 특성화전략 중 하나가 보건복지특성화임을 내세워 장애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가의 결과는 2004년 2월 4일자 중앙일보에 “장애학생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그 결과에서 삼육대학교는 장애학생 복지지원 우수대학으로 판정받았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전국 208개 대학교의 복지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개된 이 기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90점 이상) 판정을 받은 대학은 나사렛대와 대구대 등 2곳이었으며, 삼육대를 비롯해 14개교는 ‘우수’(80점 이상), 31개 대학이 ‘보통’(65점 이상) 판정을 받았으며, 139개교는 ‘개선요망’(65점 미만) 판정을 받았다.²

이 평가에서 삼육대학교는 전국대학교 종합순위 9위에 올랐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삼육대학교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3) 각종 언론들의 평가

이 시기에 삼육대학교는 각 언론들의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2003년 9월 24일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삼육대학교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중앙일간지로는 유일하게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1994년에 첫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에도 10회째 대학평가를 실시하여왔다. 삼육대학교는 1994년에 종합 9위, 1997년에는 18위를 차지했으며, 이번 2003년도에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³

¹삼육동소식, 2003년 12월 18일자, 2.

²삼육동소식, 2004년 2월 12일자, 2.

중앙일보 9월 23일과 24일, 그리고 29일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삼육대학교는 교수확보율 (5위, 82.0%), 장학금 수혜율 (7위, 45.3%), 학생당 장학금 규모(5위, 397명), 외국인 교수비율(6위, 13.3%), 교수 당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수 (2000~2002년까지 3년간의 실적 6위, 0.95%)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¹ 이런 우수한 결과로 인해 중앙일보 9월 24일자 16면에는 교육여건·재정부문 항목에서 큰 글씨로 “삼육대 외국교수 10% 넘어”라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기도 했다.²

같은 해 말에는 스포츠서울이 주관하는 “2003 소비자 신뢰도, 인지도, 만족도 확인 P.T.S Top Brand 프로젝트”에서도 삼육대학교가 종합대학 톱 브랜드에 선정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평가 결과는 중소기업청, 각 지방 자치단체, 포털 사이트, 대한매일, 스포츠서울의 DB협조를 얻어 스포츠서울과 여성월간지 Queen, 학계, 소비자 등이 심사한 것이었다.³

이번 평가결과를 발표한 스포츠서울은 “석학들로 포진-뿌리 깊은 사학명문”이라는 제목으로 삼육대학교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규모와 특성화분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도서관 24시간 개방 등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5정운동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교육 등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학생 유치 등의 국제화와 세계화 정책과 21세기 대책위 구성을 통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추구 정책 등도 보도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켜주었다.⁴

한편 2004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에서 삼육대학교는 소규모 대학 분야에서 8위에 올라 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2004년 9월 20일 중앙일보에 발표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삼육대학교는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 70개교 가운데 포항공대, KAIST, 한국항공대학 등에 이어 8위에 올랐다.⁵ 이 외에도 9월 23일자 기사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학과, 사회복지학과, 토목공학과 등 3개학과 분야에 대한 교수연구, 교육여건, 재정시설, 평판도 등 4개 부분을 평가하였는데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교수연구부문 8위, 재정시설 부문 7위 등 두 개 부문에서 우수대학교에 오르는 평가를 얻었다.⁶

³삼육동소식, 2003년 10월 2일자, 1.

¹삼육대신문, 2003년 10월 6일자, 1.

²중앙일보, 2003년 9월 24일자, 16.

³삼육대신문, 2003년 11월 19일자, 7.

⁴삼육대학교 외에도 건설, 제조,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 육아, 여성, 레저,스포츠, 식음료, 금융, 건강, 생활관련 상품 및 기업 등 각분야에서 여러 업체들은 톱 브랜드로 소개되었는데 LG생활건강, 삼성의료원, 현대모비스 등이 톱 브랜드로 선정된 대상들이었다. 스포츠서울, 2003년 10월 27일자.

⁵중앙일보, 2004년 9월 20일자, 1, 14.

⁶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 9.

이러한 일련의 언론평가 보도들은 삼육대학교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삼육대학교는 5천 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 좋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임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대학으로서의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4) 2주기 대학종합평가(2004)

삼육대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2004년에 실시된 2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잘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에 삼육대학교는 1998년 제1주기 평가를 받은 후 7년째 되는 해인 2004년에 2주기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본 편의 제1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매 7년마다 대학운영의 인정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학 행정자들은 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경험을 살려 2주기 평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우선 2002년 3월에 2주기 대학종합평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2003년 3월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처음에는 대외협력처장인 조치웅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6개의 영역의 책임자와 실무교수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준비위원회 1영역(경영·재정)은 권혁용 교수·오덕신 교수, 2영역(발전전략)은 김광규 교수·전우민 교수, 3영역(교육·사회봉사)은 장병호 교수·박두한 교수, 4영역(연구·산학협동)은 최준환 교수·부문중 교수, 5영역(학생·교수·직원)은 권오달 교수·서경현 교수, 6영역(교육여건·지원체제)은 한성보 교수·김남정 교수가 각각 책임자와 실무자로 위촉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5년에 실시될 대학원종합평가에 대한 연구 및 실무위원회의 변경이 있었는데 연구위원은 강진양 교수와 손애리 교수가 양재욱 교수와 이석민 교수를 대신하여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실무위원은 안승일 선생과 황선희 선생과 진경 선생이 박운수 선생과 최규식 선생과 주성현 선생을 대신하여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류재성 선생도 실무위원에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원종합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로 발전전략위원회(위원장: 약학과장, 위원: 신학과장, 생명과학과장, 물리치료학과장, 간호학과장)와 평가위원회(위원장: 기독교교육학과장, 명지원 교수, 음악학과장, 화학학과장, 영어영문학과장)도 구성되었다.¹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2주일 후인 3월 24일에 “2004학년도 대학종합평가 대상 대학 자체평가연구위원장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간담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회는 각 대학 자체평가연구위원장들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여 대학종합평가 일정을 확정하였는데 삼육대학교는 2004년 7월 23일까지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9월 6일부터 현지방문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결정되었다.² 이와 함께 2005년에

¹삼육동소식, 2003년 3월 13일자, 2.

종합평가가 예상되었던 대학원이 대학과 함께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대학에서는 2003년 5월에 지금까지 분리해서 운영하던 자체평가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본격적인 평가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성된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93] 2주기 대학종합평가 대비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연 구 분 야	
		학 부	대학원
위원장	이종근	총괄(종합평가)	
간 사	조치웅(학 부) 신 숙(대학원)	실무총괄(연락, 조정)	
위 원	오덕신	대학 경영 및 재정	
	전우민	발전전략	발전전략
	강진양	및 비전	및 비전
	박두한	교육 및	교육, 학사 및
	명지원	사회봉사	논문지도
	김일옥		
	조치웅	연구 및	연구영역
	신 숙	산학협동	
	서경현	학생 및	대학원생 및
	손애리	교수·직원	교수·직원
	김남정	교육여건 및	교육여건 및
	유구용	지원체제	지원체제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2004년 9월 17일에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현지방문 평가를 받게 되었다.¹ 박국태 교수(한국교원대)를 단장으로 한 평가단은 대학소개 및 시설물 관람 이후 본격적으로 6영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심사하였다.² 대학종합평가 결과는 2월 21일에 발표되었는데 종합적으로 85.93%를 받아 ‘인정’을 받았다. 2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는 4단계의 배점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최우수’는 95%이상, ‘우수’는 90%이상, ‘인정’은 70%이상, ‘개선요망’은 70%미만으로 평가되었다.³ 각 영역별 평가 점수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⁴

²삼육동소식, 2003년 4월 10일자, 1.

¹삼육동소식, 2004년 10월 15일자, 1. 평가단은 박국태 교수(한국교원대)를 단장으로 하여 1조(대학경영 및 재정경영 영역, 발전전략 영역)의 박국태 교수와 권근원 교수(서경대), 2조(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학생 및 교수·직원 영역)의 이석주 교수(동신대)와 구본영 교수(성결대), 3조(연구 및 산학협동 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의 정준기 교수(홍익대)와 조현치 교수(남부대)로 구성되었다.

²삼육동소식, 2004년 10월 29일자, 1.

³삼육대신문, 2005년 4월 7일자, 1.

[표 94] 2주기 대학종합평가 결과(2004)

영역구분	점수(%)	등 급	비고 (1주기 개선사항 반영)
대학경영 및 재정	85.00	인 정	반 영 됨
발전전략 및 비전	89.60	인 정	반 영 됨
교육 및 사회봉사	92.42	우 수	반 영 됨
연구 및 산학협동	73.19	인 정	반 영 됨
학생 및 교수직원	87.56	인 정	반 영 됨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88.69	인 정	반 영 됨
총 점	85.93	인 정	

교육 및 사회봉사영역에서의 ‘우수’ 등급은 대학의 교육정체성 확립과 질적 향상, 교육과정의 우수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발전전략과 비전영역에서는 현재 중장기발전계획과 특성화정책들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정확보도 추진 중인 것이 인정을 받았다.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영역에서는 1주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 및 산학협동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산학연 성격의 체계에서 추진된 실적이 미비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구여건 역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¹

종합적인 평가는 ‘인정’ 수준이었지만 총점 85.93%라는 결과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결과였다. 이번 평가를 받은 40개 대학교들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는 4곳이었고, 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는 14곳이었다. 나머지 22개교가 인정 등급을 받았는데 삼육대학교 역시 그 등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 및 사회 봉사’ 영역에서 ‘우수’를 받은 것 외에 자연계의 ‘교수 당 연간 국내학술지 논문수’와 예체능계의 ‘교수 당 연간 국제학술지 논문수’ 및 ‘재학생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등의 지표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²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삼육대학교는 앞으로 7년간 보다 더 발전하는 대학으로 변모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2. 삼육의명대학의 역량강화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서 삼육의명대학 역시 삼육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전 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병설전문대학은

4상계서, 2.

1상계서.

2상계서, 1.

20세기 마지막 시점에 삼육의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후 많은 학과의 증설, 교육시설 및 여건 확보, 대학과의 분리 독립체제 구축 등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21세기를 맞이한 삼육의명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내실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학과의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삼육의명대학은 1999년에 7개 학과(주야간 총 9개 학과)를 신설 인가를 받으면서 총 25개 학과(주, 야간 구분)에 1,220명의 입학정원을 가진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의명대학은 학과들의 명칭변경 및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변화되었다. 우선 1999년 11월 4일에 인터넷네트워크과(야간 40명) 신설을 인가 받고, 대신 전산정보과(야) 40명의 정원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총 26개 학과에 입학정원은 1,220명을 유지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11월 3일에는 인터넷네트워크과를 인터넷과로 변경 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산정보과(주) 40명의 축소와 산업디자인과(야간 40명)를 폐과하고 대신 인터넷과(주간 40)와 아동미술과(야간 40명)의 신설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학과수는 늘어났으나 입학정원은 여전히 1,220명을 유지하였다. 2001년 10월 29일에는 자동차과(주) 40명을 축소하고 식품과학과(야간 40명)를 폐과했으며, 대신에 식품과학과(주간 40명)와 관광일어통역과(야간 40명)를 신설 인가를 받았다. 아울러 전산정보과를 컴퓨터정보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총 27개 학과(16개 학과)에 입학정원은 10명이 축소된 1,210명이 되었다.¹

한편 2001년 9월 17일에는 유아교육과와 건축설계과가 3년제 과정으로 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업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² 이와 함께 사회교육원에 학점은행제로 아동미술학 전공(미술학사, 2002년 4월 1일)과 아동학 전공(문학사, 2003년 3월 1일) 과정을 신설하여 2년제 졸업자들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³ 학점은행제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대학과정이 아니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원 등에 신설된 학점은행제 과목을 수강하여 일정한 학점을 채우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로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서 삼육의명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매학기 20학점씩 이수하면 3년 6개월 만에 미술학사 및 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80학점을 모두 인정받아 필요한 전공학점(60학점)과 교양학점만 이수하면 2년 안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학위를 취득한 자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0년도, 5-33.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1년도, 5-32.

³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2년도, 5-54.

일하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의명대학은 이러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두 과의 학사과정을 신설하였고, 2002년에는 의명대학 아동미술과 2001년 졸업생(주미현)이 미술학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과의 신설 및 정원 조정, 학점은행제 신설 등을 통해서 의명대학이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산학협동협약을 통한 실무교육 강화

삼육의명대학은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강화시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교과과정을 연구 개편하고 우수한 산업체와 산학협동협약을 맺어 활발한 협력관계를 추구하였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학협동협약은 2004년 통계로 대학과 맺은 업체가 15곳에 이르렀으며, 학과와 업체 간의 산학협동체결 상황은 총 411곳에 이르렀다. 특별히 15곳의 협력업체 중 9개 업체는 1억9천724만 원의 연구과제(1999년 이후)를 의뢰하여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¹

특히 2003년부터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경기도와 함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주)오리엔트 외 6개 업체에서 2억1천197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7명의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하여 2개의 의장등록 신청과 5개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주)한일농원을 비롯한 7개 업체에서 2억2천920만 원을 지원받아 7개 과제를 진행하였다.² 이렇게 진행된 연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5]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과제(2003)

사업년도	사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경기도 지원금	기업 지원금	개발 과제수	참여인력	기 타
2003년	211,967	111,875	47,100	52,992	7	35명	의장등록 3건
일련 번호	과 제 명					참여 기업명	참여교수
1	젓소에서 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기술의 산업화 방안					(주)오리엔트	이상진
2	음이온을 이용한 생활도자기(기능성)개발 및 제작					거보 세라믹스	주미경
3	원형곤포사일리지 해체기 개발					세신 바이오텍	홍성호
4	PDA용 전자의무차트 시스템 개발					(주)디지털 삼육	주현식
5	양주별산대탈과 국기 태권도를 응용한 문화관광상품 및					예립조형	전종범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A-10, 기2-A-11.

²상계서, 기2-A-8.

	교육용 교재 디자인 개발	연구소	
6	2"X4"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거용 목가구의 한국적 모델개발	조은자리	홍순명
7	사용자 편리성 증대를 위한 신모델 생수용기 제품 디자인 개발	(주)크로바 케미칼	김성운

[표 96]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 연구과제(2004)

사업년도	사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경기도 지원금	기업 지원금	개발 과제수	참여인력	기 타
2004년	209,204	91,000	65,900	52,304	7	32명	
일련 번호	과 제 명					참여 기업명	참여교수
1	한국전통 건조육(육포, 보푸라기) 제품 개발					(주)한일농원	민병우
2	항생제성 장질환용 정장제 개발을 위한 한국형 비피더스 유산균의 분리 및 개량					(주)셀 바이오텍	최성숙
3	Platform Frame 양식목조주택의 벽체와 전통한식 목조주택의 지붕구조를 결합한 한국적 목조주택의 모델개발					(주)나무와 사람들	홍순명
4	CNC 고속 가공기의 선진국형 제품디자인 개발					(주)하림기공	김성운
5	젖소에서 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기술의 산업화 방안					(주)한일사료	이상진
6	AC POWER SOURCE 통신 제어시스템 개발					(주)APC 코리아	조양현
7	2"X6" 원목을 이용한 무공해 실내건축 소재개발 및 적정 모델 개발					(주)신흥기업	이태은

이와 함께 전문직업모듈(Expert Module, EM)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을 실무형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였다. 전문직업모듈이란 의명대학이 2001년부터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으로 각 학과별로 전문직업모듈 분야를 설정 지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취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명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1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하였는데 활성화된 전문직업모듈은 다음과 같다.¹⁾

[표 97] 전문직업모듈(EM) 내용(2004)

계열	학과	EM명	분 야	지도교수
자연과학	동물자원과	Embryo	생명공학 및 인공수정 연구	이상진
		Dairy Power	사료개발 및 젖소능력 검정사업	홍순명
공 학	식품과학과	Bakery.com	식품실습 제조 및 연구	민병우
		WCDI	영양사 자격 취득	최성숙
	컴퓨터정보과	Dimension Space	3D 프로그램 연구	주현식
		ON-DEV	소프트웨어 개발	신동근

¹⁾“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A-11, 기2-A-12.

	인터넷과	PDRC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 및 실습	김성완
		Net Master	인터넷신기술연구	조양현
		WEB-Pro	정보처리기사대비	김정숙
	자동차과	Body Repair	자동차수리 실무 능력 향상	장우종
		자차사랑	자동차 전기분야 연구	신종열
		Ignition	자동차 제작 및 대회출전	최선순
	산업디자인과	Fancy Camp	팬시디자인 연구	고태영
		Illust Camp	일러스트디자인 연구	박유선
		Character Camp	캐릭터디자인 연구	전중범
		Photo Camp	사진연구	조수연
	건축설계과	DAD	디지털건축그래픽작업 연구	정광호
		SODA	건축구조계산 연구	류수현
		AR	건축설계 및 모형 연구	이태은
	광고정보과	AD-PUT	출력기술 연구	김성운
		메타4	영상편집기술 연구	김영안
		날자컴	웹페이지 광고제작	서정미
		PIN	사진영상기술 연구	이한석
예 능	아동미술과	아해놀	유아용세라믹디자인 연구	주미경
		아이, Eye, I	아동미술교육 연구	김용선
		아름다운세상만들기	벽화그림 그리기	임종성
	음악과	소리	음악감상반	임형준
		Ensemble	음악연주회	임봉순
인 문	유아교육과	CATCH	유아영어교육 연구	이기호
		요술손가락	손가락 인형극	이유진
		Step by Step	유아의 영어학습 방법 연구	최지영
		아이들세상	사회복지관 봉사	김정미
	아동복지과	아이사랑	입양문화홍보 및 봉사	신지연
	관광영어 통역과	Hotelier	실무영어능력 향상	장용선
		Visit KOREA	관광통역영어 실습	김용성
	관광중국어 통역과	여행동무	여행사 실무 및 가이드중국어	함현자
		HSK	중국어능력시험 대비반	김낙철
	관광일어 통역과	MANABI	관광안내통역	민병진
		하끼하끼일본어	일본어 능력시험 준비	이상복
	유통경영과	e-samas2001	전자상거래 관리자	조광현
		세일즈프론티어	유통업체 판매 및 물류 관리	박철주
전산회계연구회		전산회계 연구	정태석	

3)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삼육의명대학은 1999년에 유아교육과의 특성화 프로젝트가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후 2001년과 2004년에도 동물자원과가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재정을 지원받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1년도에 동물자원과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경기북부지역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대학은 2억 원의 특성화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¹⁾

2004년에는 “젓소에서 한우 생산을 위한 발생공학 기술과 수정란 이식기술의 산업화”라는 프로그램으로 2004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3년간 총 20억4천만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다. 동물자원과 이상진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지원한 이 프로그램은 식품과학과, 인터넷과, 유통경영과에서 8명의 교수진과 11명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이상진 교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물로서 이 교수는 지난 1995년 체외수정란 이식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002년 10월에는 최초로 젓소에서 건강한 한우를 분만하기까지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경기도, 충남, 충북지역의 13개 사업장에서 112두의 젓소가 총 119두의 한우를 생산함으로써 축산 농가들로부터 우수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¹

전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됨으로써 삼육의명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서 지명도를 얻게 되었으며, 지원된 자금으로 최신식 기자재를 확보하고 강의실을 현대화하는 등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² 아울러 수정란 이식기술의 산업화를 가속하기 위해 수정란 이식센터 설립과 사이버 강좌를 통한 e-Learning System 구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첨단교육과 재교육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³

4) 유아교육과 평가 ‘최우수’ 학과 선정

특성화사업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도 의명대학 유아교육과가 ‘최우수’ 학과로 평가를 받아 의명대학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교육인적지원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 유아교육과는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이 평가는 전국 73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환경(교수, 시설, 재정, 지원체계) 영역과 교육운영 및 교육성과(교육목표, 특성화, 교육과정, 강의, 학생지도 등) 영역으로 나누어 자체평가보고서와 현장실사 결과로 이루어졌다. 이 평가에서 삼육의명대학 유아교육과는 강릉영동대, 경남정보대 등 전국 7개 대학과 함께 두 영역 모두 최고등급인 A+를 받았는데 서울권에서는 유일한 A+등급을 받은 것이었다.⁴

교육인적지원부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학과평가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1주기는 1999년부터 2003학년도까지 실시되었으며, 2주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되

1“삼육대학교 보고,” 한국연합회 제32회 총회보고서, 2004년도, 기2-A-1.

1삼육의명대학신문, 2004년 10월 12일자, 1.

2첨단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3월 24일에 바울관 3층에 유비쿼터스실(Ubiquitous Room)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강의를 실현하게 되었고, 지역민 교육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상계서.

3상계서.

4재립신문, 2004년 12월 15일자, 3.

었다. 1주기 학과평가에서는 학과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평가의 목표를 두었으며, 2주기 평가에서는 전문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학과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이런 평가목표에 따라서 의명대학의 유아교육과는 가장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학과라는 사실을 교육수요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5)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회봉사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삼육의명대학은 2002년 10월 24일에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초대 단장에 홍순명 교수를 선임하였다. 삼육의명대학 사회봉사단은 “전문대학의 풍부하고도 기술적인 지원을 사회가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대상 또는 지역에 전문적 봉사를 통해 지원하므로 교수와 학생들의 전공지식 함양은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빈민촌, 구치소, 고아원, 독거노인 등을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인 인간교육을 성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창단되었다.¹

이렇게 사회봉사단을 창단한 이후 그해 11월에 한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교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사회봉사를 위한 자발적인 전공 및 교양봉사 과목을 개설하여 봉사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본격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월곡동 달동네 봉사와, 의정부 교소도 봉사, 노원 월계4동 복지관 봉사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월곡동 달동네 봉사를 위해서 사회봉사단은 월곡동에 봉사센터를 개소하고 그 지역에 무료집수리, 무료급식, 무료미용, 무료진료봉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봉사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봉사센터는 종로쪽방지역과 신림난곡지역, 송파거여지구, 노원마을 및 각 수해지구에서 집수리 등의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도움이 역할을 하였다.

2004년 5월 29일에는 의정부교도소 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학협정을 체결하였다. 삼육의명대학은 당시 법무부가 선진 교정행정을 위해서 분야별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과 교도소 교화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자들의 다양한 교육과 교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정체결로 삼육의명대학 교수들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종교교화 및 상담, 외국어, 컴퓨터, 음악, 교화시설 환경, 여재소자 대상 교육, 의료분야 등에 있어서 질 높은 강의와 봉사활동을 제공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삼육의명대학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한층 고양되었다. 이

¹대학요람, 삼육의명대학, 2003, 241.

²삼육의명대학신문, 2005년 5월 26일자, 6.

활동은 비단 의명대학뿐만 아니라 삼육대학교의 사회봉사 이미지를 구축해 주었다. 그래서 2006년 대학통합과 함께 삼육대학교는 해외봉사단 파견, 월곡동 봉사센터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믹스와 뉴시스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2006년 대한민국 사회책임(SR) 경영대상에서 인권(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¹

6) 제7대 박동승 학장 취임(2004)

삼육의명대학이 삼육대학교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박동승 박사가 제7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973년 삼육기술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된 삼육의명대학의 역사 속에서 헤일리 교수가 초대 학장을 역임한 이후 제2대부터 제5대까지는 삼육대학교의 학,총장이 전문대학의 학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에 들어서서 제6대 학장으로 정순영 교수가 취임하면서 삼육대학교와 분리 행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순영 학장은 2000년 3월 1일에 학장직을 유임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 삼육의명대학은 8년간 대학을 이끈 정순영 학장의 후임으로 신임 학장의 선임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학 이사회에서는 박동승 박사를 학장으로 선임하였다. 박동승 박사는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수고하던 중 학장에 선임되어 그해 3월 2일에 대강당에서 학장 취임식을 갖고 제7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박동승 학장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서 출생하여 1974년에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후 대전삼육중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하여 삼육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서울삼육중고등학교로 전임해 1982년까지 교사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중인 1981년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에 일선교회로 사역을 나가 1985년까지 금호동교회를 담임하다가 향학 목사로 원동지회 신학대학원(AIIS)에 가서 1986년 신학석사(M.A. & M.Div.)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필리핀 크리스천 대학교의 유니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해 1988년에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를 받은 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면서 삼패리교회, 예문교회, 동중한대학생선교교회 등을 담임하였으며, 2000년 연합회 총회에서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에 선임되어 재림교회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을 이끌던 중 2004년 3월 1일부로 삼육의명대학장에 선임되었다.²

박동승 학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에서 열거한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유아교육과 최우수 평가, 유비쿼터스실 오픈, 의정부교도소와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관학협

¹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4.

²삼육의명대학신문, 2004년 4월 29일자, 1, 3.

력체결, 중국 빈하이 대학교(Binhai College), 베이징고려직업기술학원 등과의 자매결연 등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2006년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 간의 통합을 이끌었다. 이로써 삼육의명대학은 박동승 학장의 시대와 함께 교육사업의 한 매듭을 짓고 통합대학교라는 새로운 역사적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3. 대학원의 발전

정부는 2003학년도부터 대학원 학과 신설조건 등을 강화하는 등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공표하였다. 이에 삼육대학교 대학원도 국내외적인 추세에 맞춰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도 현재 대학원에는 석사과정 8개 학과(인문사회계열-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자연계열-약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생물학과, 물리치료학과, 예능계열-음악학과) 박사과정 3개 학과(인문사회계열-신학과, 자연계열-약학과, 물리치료학과)에 99명의 재직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학전문대학원 43명, 경영대학원 5명, 보건복지대학원 54명 등 총 201명의 재학생들이 있었다.¹ 이 중 보건복지대학원은 2001년에 석사과정 2개 학과(인문사회계열-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자연계열-보건학과 보건교육학전공, 천연치료학전공)를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어 새로운 특수전문대학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²

삼육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급변하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은 곧 구속이라는 이념적 기반위에서 생명보전과 회복이라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감과 동시에 학문적 분야에서 최고의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목표를 새롭게 하면서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갔다.³ 특별히 대학원 각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학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⁴

대학원 설치된 지 22주년을 맞이하는 2003년도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은 여러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대학원 발전을 모색하였다. 우선 모든 대학원생에게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타 연구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50%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장학금제도를 두어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원자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수업과 주말수업, 주중 강좌의 축소, 여름 내지 겨울방학을 이용한 특별강좌, 재택강좌 및 독자적 연구 강좌의 폭 확대 등이 바로 그 사례들이었다.

¹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3년도, 5-37, 5-44, 5-49, 5-51.

²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삼육대학교 보고서, 2001년도, 5-31.

³삼육대신문, 2003년 10월 6일자, 5.

⁴대학원의 학과별 중장기발전계획은 다음의 자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상계서.

이런 탄력적 운영은 이미 전국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제도들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대학원은 더 많은 학생들이 학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학·석사를 연계하는 연계과정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하였다. 이는 학부 4학년 학생들이 중 성적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2003년도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외국인들을 위한 일요일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교육학과의 경우는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학생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삼육대학교 대학원에는 미국, 남아프리카, 필리핀, 인도, 호주 등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¹

한편 대학원은 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과 대학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원생 전용 생활관 및 대학원 전용건물을 확보하였다. 대학원생 전용생활관은 남녀생활관이 신축됨에 따라 구 여학생 생활관으로 사용하던 브니엘관을 리모델링하여 마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혼자들이 대학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종합행정관인 백주년기념관 건립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을 대학원 전용건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2007년 10월에 백주년기념관이 완공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원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2004년 9월에 진행되는 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특별히 대학종합평가에서 대학원평가는 21세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독자적인 특성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여 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삼육대학교 대학원 고유의 특성을 진작시키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교수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평가에 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 교육영역, 학사 및 논문지도 영역, 연구영역, 대학원생 및 교수 직원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별로 자체평가를 통해 준비를 갖추었다. 대학원 역시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에 대비해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훨씬 경쟁력 있는 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였다.

¹상계서.

제5장 대학 통합과 발전전략 수립

(2005~현재)

2004년 4월 5일자 한국대학신문에는 “개교 100주년,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한다”라는 특집기사로 고려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소개되었다. 특히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삼육대학교가 인성교육, 보건복지교육, 국제화교육, 실무형 인재교육 등 4개 분야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여 삼육대학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또한 삼육대학교가 “최근 각종 대학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1백 년 전통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2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장애복지지원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언론사가 선정한 소비자 신뢰도, 인지도, 만족도에서 종합대학부문 톱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 이 기사는 삼육대학교가 대외적으로 달라진 위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96년 개교90주년을 맞이하여 10년 후에 있을 개교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삼육대학교는 “갈 길과 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학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도약의 시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향해 역사가 진전함에 따라 대학은 이제 괄목할만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새롭게 변화된 이미지와 더불어 개교100주년을 향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 100년사에서 그 마지막 준비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합이라는 대의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제 우리는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으로 여는 미래”라는 타이틀 아래 역사를 정리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을 맞이하기 2년 전에 본 대학의 운영주체인 한국재림교회가 선교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역사를 창출하였다. 2004년은 한국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째 되는 해였다. 이에 한국연합회(회장: 전정권 목사)는 선교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3년 11월에 전국 위성전도회를 시작으로 2004년에 5개 합회 어린이, 청소년연합 야영회, 각 지역교회 지구별 신앙부흥회 및 전도회 등 교회 본연의 사업들을 선교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기념행사들을 개최하였다. 일정별로 보면 10월 30일과 31일에 리틀엔젤스회관과 본교 대강당에서 세대별 기념음악회가 개최되었고, 11월 3일에는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KBS홀에서 열렸다. 11월 3일과 4일에는 삼육대학교 다목적관에서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었고, 5일에는 류제한 의사 추모비 건립 기념예배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¹한국대학신문, 2004년 4월 5일자, 9; 교회지남, 2004년 6월호, 75.

묘소에서 열렸다. 그리고 11월 6일에 선교100주년 기념식 전야축제가 서울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체조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본 대회인 선교10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11월 7일에 같은 장소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재림교회는 선교 제1세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교 제2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열었다.¹

한국 재림교회 선교100주년은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을 예비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선교10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자축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상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삼육대학교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그 소임은 2005년에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된 서광수 박사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다.

1. 제11대 서광수 총장 취임(2005)

2004년 12월 22일 연합회에 강당에서 모임을 가진 삼육대·삼육의명대 신임 운영위원회는 4년 9개월의 임기를 마친 남대극 총장에 이은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영남합회장으로 수고하던 서광수 박사를 선출하고 삼육의명대학장은 박동승 박사를 유임하였다. 이로써 서광수 박사는 2005년 3월부터 삼육대학교 총장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다.²

신임 서광수 총장은 1943년에 대구시 침산동에서 출생하여 1969년에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영남삼육중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되면서 삼육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2년까지 영남삼육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임 기간 중 1969년에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한 그는 1973년부터 강사로 삼육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975년에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여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 해 삼육대학의 전임강사로 정식부름을 받고 교수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1986년까지 삼육대학의 조교수 및 부교수로 활동하였다. 특별히 1977년부터 1984년까지는 삼육농업전문대학의 원예과 과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삼육대학과 삼육농업전문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던 그는 1986년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으로 선임되어 1995년까

¹편집실, “한국선교 제2세기로 출발,” 교회지남, 2004년 12월호, 6-15.

²교회지남, 2005년 2월호, 52.

지 9년간 재림교회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한편 이 시기에 목사 안수를 받고(1989. 1) 안수목사가 되었다. 교육부장의 소임을 마치고 일선교회로 사역의 길을 나선 서광수 목사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잠실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다가 2000년 제31회 총회에서 부산위생병원 원장으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였다. 2004년에 영남합회 총회에서 합회장에 피선되어 영남합회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삼육대학교 총장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다.¹

총장에 선임된 서광수 박사는 2005년 3월 7일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총장 이취임식을 통해서 제11대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식에서 서광수 총장은 삼육대학교가 한 세기 동안 이룩해 온 고유한 도덕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고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²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행정을 이끌 보직자들도 새롭게 선임되었다. 우선 처·실장의 인사 변경으로 교무처장 이기갑 교수, 학생처장 유광욱 교수, 사무처장 및 대외협력처장 조치웅 교수, 교목실장 김상래 교수, 기획실장 박두한 교수가 각각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었다. 이어서 예언의신 연구원장에 하홍팔 교수, 산학협력단장에 천성수 교수, 대학원장/신학전문대학원장에 김기곤 교수, 대학원 교학부장에 김현희 교수, 대학원과정 신학과장에 남대극 교수, 보건복지대학원장에 이숙연 교수가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었고, 나머지는 유임되었다. 이와 함께 제1학부장에 장병호 교수, 제2학부에 이동섭 교수(유임), 제3학부에 이경순 교수가 각각 선임되어 새롭게 대학 행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³

2. 주목받는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삼육대학교는 여러 매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국대학신문사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캠퍼스 10선’에 2002년과 2003년에 연속해서 선정되는 등 자연친화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의 이미지로 주목받았다.⁴ 아름다운 캠퍼스 선정과 관련해서는 2005년에도 역시 10대 캠퍼스의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삼육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특별히 한국대학신문은 2005년 5월 2일자 기사를 통해서 “자연의 미

¹삼육대신문에 게재된 약력을 참조하였음. 삼육대신문, 2005년 3월 2일자, 2.

²상계서.

³삼육동소식, 2005년 1월 28일자, 2. 삼육대신문, 2005년 3월 2일자, 1.

⁴2002년 5월 27일자와 2003년 5월 26일자 한국대학신문에 삼육대학교가 아름다운 캠퍼스 10선에 연속 선정되었다. 삼육대신문, 2002년 6월 10일자, 4; 삼육동소식, 2003년 6월 19일자, 1.

를 곱게 간직한 캠퍼스”로 소개하면서 특별히 적송 숲과 벤치, 어우러진 쉼터, 교문 진입로 등이 아름다우며, 제명호는 제1명소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100년 동안 금주금연정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캠퍼스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소개하였다.¹

2005년 11월 7일에는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전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학 숲 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다.²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캠퍼스로서의 명성을 쌓은 삼육대학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자체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향상됨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는 21세기 들어서 실시된 여러 평가들과 중앙일보 평가에서 나타났으며 2005년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1) 각종 평가들

2005년 4월에는 헤럴드경제가 주관하는 제1회 ‘엘리트 이코노미스트 상’ 선정에서 삼육대학교가 대학부문을 수상하였다. 이에 4월 28일 헤럴드경제 신문은 ‘Herald Biz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 기획특집으로 삼육대학교를 소개하였다. 그 기사는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소식을 전하면서 내실 있는 영어 교육과 4대 특성화사업 등을 소개하여 삼육대학교의 발전적인 모습을 전했다.³

2005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는 삼육대학교가 사립대 교육 질적 평가에서 전국 19위에 올랐음을 소개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곳 중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 111곳을 대상으로 ‘질적 부문’과 ‘재정 부문’을 합쳐 내린 종합평가에서 삼육대학교는 ‘질적 부문’ 상위 19위에 올랐다. 삼육대학교는 등록금 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실험실습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순수취업률,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을 고려한 ‘질적 부문’에서는 이렇게 A등급을 받았지만 ‘재무부문’평가, 그리고 ‘질적 부문 및 재무 부문’ 합산 종합 평가에서는 상위 30위 안에 진입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⁴ 그러나 이런 결과들은 동북아권 보건복지분야 중심대학으로 성장하여 국내 상위 15%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앞세운 삼육대학교로 하여금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합 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2) 대학 내 문화시설 확충

아름다운 캠퍼스를 더욱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제공하

1한국대학신문, 2005년 5월 2일자; 삼육대신문, 2005년 5월 30일자, 1.

2교회지남, 2006년 1월호, 76.

3헤럴드경제, 2005년 4월 28일자; 삼육대신문, 2005년 5월 30일자, 1.

4조선일보, 2005년 9월 26일자; 삼육대신문, 2005년 9월 27일자, 1.

기 위한 작지만 알찬 노력들이 2005년에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20일에는 도서관과 바울관 사이에 문화광장이 오픈되었다. 원래 이곳에는 2000년에 ‘전 캠퍼스의 테마파크 조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새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음과 악취 등 새장 관리의 어려움과 학생활동 참여공간의 필요성 등이 맞물려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미기로 하고 같은 해 8월 3일에 공사를 시작해 9월 20일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게 되었다.¹ 이 문화광장 중앙에는 삼육대학교의 U.I.가 새겨졌고 주변으로 넓은 문화공간들이 마련되었으며, 주변으로는 공원, 벤치, 작은 분수대 등이 설치되어 아름다운 쉼과 대화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대학교 총학생회는 ‘도서관 옆 문화공간,’ 또는 ‘바울관 앞 문화광장’ 등으로 불리던 이 광장을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솔로몬광장’으로 명명하였다.²

솔로몬광장이 오픈되기 전인 9월 12일에는 스쿨버스 승강장 옆, 구과학관건물 뒤편에 ‘숲속의 오후’라는 이름의 카페가 오픈되었다. 삼육의명대학 식품과학과 민병우 학과장과 학과 학생들의 주도아래 만들어진 이 카페는 식품과학과 학생들이 식품가공 및 구매유통이라는 교과를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³ 이처럼 학과 실습의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었지만 카페의 운영과 분위기 모두 참신하고 의미 있게 진행됨으로써 캠퍼스 내의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허브차, 후로즌 요구르트, 피자 등 건강하고 깨끗하게 조리 및 가공된 식품들을 즐기면서 대화와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카페의 규모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8개가 준비되어 총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오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였다. ‘숲속의 오후’는 그 이름처럼 참신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되었다.

2005년 2학기부터는 학생회관 바로 맞은편에 여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Woman's Lounge’(여학생수면실)가 오픈되어 여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여학생수면실이란 여학생들의 수면부족이나 주기적으로 겪는 생리 시 몸이 좋지 않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꾸며 놓은 장소이다. 여성부 신성례 교수와 총학생회 여성복지부 안우리(상담 4) 부장이 여름방학 동안 준비해 온 이곳은 여학생들의 비율(61%)이 상대적으로 높은 삼육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편의시설을 고려하던 중 마련한 곳이었다. 여학생수면실에는 2층 침대 2개와 큰 소파 하나가 구비되어 있고, 바닥은 전기온열시설로 되어 있어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누구나 쉬고 싶을 때 문

¹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7.

²삼육대신문, 2005년 9월 27일자, 7.

³상계서.

앞에 놓인 방명록에 서명만 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삼육대학교 안에 설치된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었다.¹

3)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노원구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인 삼육대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특별히 대학은 노원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더 확보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노원구와 함께 “노원 어린이 영어교실”을 신설하였고, “과학노원어린이 체험교실”도 운영하였다.

삼육대학교와 노원구가 연합하여 마련한 “노원구 어린이 영어교실”은 폐쇄된 삼육대학우유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삼육대학우유를 생산하던 대학식품은 재정적자로 2004년 문을 닫게 됨으로써 한 세기 동안 삼육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은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식품 사업을 위해 마련되었던 공간은 리모델링을 거쳐 2005년 3월 2일부로 노원 어린이 영어교실로 바뀔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노원 어린이 영어교실은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하고 노원구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삼육대학교는 우유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전용강의실 10개와 소극장 등을 갖춘 “영어교육관”으로 만들고, 삼육주니어외국어학원에서 개발한 영어교육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16명의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30명의 강사로 이루어진 교수진을 갖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²

영어교실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상설 어린이 영어교실로 2달을 1회씩으로 하여 1년에 총 5~6회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1회에 10개 반 20명씩 총 400명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비는 45,000원이었다. 이 교실에서는 말하기(Conversation), 단어습득(Word), 응용훈련(Practice), 발음(Phonics), 복습(Review) 등으로 진행되며 수준이 높은 어린이의 경우 포커스(Focus), 읽기(Reading), 고전동화(Classic Tales) 시간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수업에는 학부모 초청, 구연동화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학습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 상설 영어교실 외에도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캠프식 영어학습 프로그램과 해외 체험 연수 등도 실시하였다. 특별히 삼육대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인프라 및 해외 자매대학들과의 연계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된 수준 높은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린이 영어교육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³

¹상계서.

²삼육대신문, 2005년 3월 2일자, 6.

한편 이 영어교실 건물은 다니엘관으로 명명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학의 ICEC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삼육대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어학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이 특성화된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노원구청과 함께하는 노원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역시 지역사회에 대학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과학체험교실은 매 방학기간 동안에 개최되었는데 제천시 노목에 있는 별새꽃돌자연탐사관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과학체험교실은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야외수업(1박2일)과 실험교육(2일)으로 진행되었다. 과학체험교실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영재들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시켜 국가의 대들보로 자라게 하는 데 있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학체험교실에는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제법 높았는데 2006년에는 5: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¹

3. 특성화사업 재선정과 그 결과(2005)

삼육대학교는 2004년에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1억9천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2005년 특성화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에도 신청하여 또 다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총 56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2005년 6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12개, 중소규모 18개 등 총 3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4년간 390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 삼육대학교도 포함된 것이었다.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에 지원받은 케어 매니저 양성과정 프로젝트를 좀 더 전문화한 "보건복지 통합교육 기반의 한국형 케어 매니저(Power Silver 사회준비)"란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² 이로써 삼육대학교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케어 매니저 양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은 고령화사회가 심화될수록 전문적인 케어 매니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전문 케어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보건복지 교육

³상계서.

¹삼육대신문, 2006년 9월 14일자, 6; 교회지남, 2006년 3월호, 76.

²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2.

프로그램, 보건복지 교육정보센터, 어학프로그램 제공 등 케어 매니저 전공과정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¹ 특별히 특성화사업 선정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요구되었고 이로써 2005년의 학생 정원을 10명(경영학과 2명, 경영정보학과 1명, 원예학과 1명, 환경원예디자인학과 2명, 식품영양학과 1명, 사회복지학과 2명, 생활체육학과 1명) 감원하였다. 그리고 제2기 특성화사업단(단장: 이숙연 교수)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보건복지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성화사업단은 2005년 8월 25일에 삼육대학교 보건복지 최첨단강의실(에스라관 2층)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제2기 특성화사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 날에는 2004년에 추진한 제1기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노인용품 전시관을 개관하는 개관식도 열렸다. 이 전시관은 실버(Silver) 사회의 다양한 복지용품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보건복지 특성화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²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된 특성화사업은 사업 추진 3년차인 2007년에 진행평가 심사에서 불합격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케어 매니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하고 말았다.

4. 통합삼육대학교의 출범(2006)

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세기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고 미래 대학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단연 대학(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 통합이었다.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학 간의 통합 논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와 관련 대학들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삼육대학교 역시 대학입학 지원자수의 격감으로 인한 대학의 미충원 비율을 해결하고, 치열한 대학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정책 기조에 힘입어 대학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³

1) 통합논의의 배경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은 한 재단에 소속되어 같은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도 두 행정체제로 분리 운영되었다. 이렇게 행정이 분리된 것은 1996년부터 정부가 대학의

¹상계서.

²삼육대신문, 2005년 9월 27일자, 2; 교회지남, 2005년 10월호, 50.

³삼육대신문, 2005년 5월 30일자, 5.

총장이 전문대학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전문대학장을 임명하도록 지도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이 분리되자 고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대학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관리부서가 인적자원개발부로 통합 단일화됨에 따라 정부는 대학들 간의 행정조직 단일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은 이런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 아래 통합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¹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이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행정단일화와 경영합리화 효과는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대학통합으로 시설 공유를 통한 신규 건축계획 조정, 교직원수의 감소, 등록금 수입의 증가, 실험실습 기자재의 공동활용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 대학의 이론중심 교육과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의 결합에 따른 실무형인재교육 특성화의 효과적인 추진, 행정단일화에 따른 교내 행사 단일화와 조직의 안정화, 홍보 예산의 통합, 발전전략 체제의 단일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이 21세기 규모의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를 갖춰야만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교육 제2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발전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대학통합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 통합 추진 및 승인 과정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고 양 대학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합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을 미룰 수는 없었다. 특별히 2021년에 이르면 대학 입학정원이 20여만 명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는 대학통합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의식이 공유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의에 뜻을 같이하게 되면서 대학통합은 가시화되었다.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은 2005년 3월 1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학통합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결의에서 임명된 추진위원들은 삼육대 총장, 삼육의명대학 학장, 양 대학 처·실장 8명, 김광규 교수, 이경순 교수, 장용선 교수, 임형준 교수 및 추천받은 직원 2명, 연합회 교육부장, 임춘택 이사, 삼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삼육의명대학 총동문회장,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장, 삼육의명대학 총학생회장 등 22명이었

¹상계서.

다.¹ 이 위원회와 더불어 산하에 통합추진실무연구팀을 구성하였는데 기획실장, 산학협력처장, 부문중 교수, 이강성 교수, 정재훈 교수, 송창호 교수, 정광호 교수, 조광현 교수가 선임되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및 추진실무연구팀을 조직한 후 4월에 대학통합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학통합 작업에 착수하였다.

통합추진실무연구팀은 통합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마친 후 7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인 허가를 기다리게 되었다.²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동일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 간의 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승인은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9월 14일 사립대학교 통폐합 심사를 위한 현지방문심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승인을 기대하였다.³ 그러나 9월 25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간 통합승인 발표에서 삼육대학교의 통합승인은 유보되었다. 당시 통폐합을 신청했던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은 모두 승인 결과가 나왔으나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 간의 통합은 몇 가지 요인으로 승인이 유보되었다. 승인이 유보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통합에 따른 구조개혁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사 확보율과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통합승인 불가가 아닌 유보였기 때문에 대학은 곧바로 부적합 요인들을 개선하여 다시 한 번 통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⁴

대학통합추진위원회는 우선 교사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교사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서둘러 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내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체로부터 증자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통합 유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 후 한 달 안에 통합 재신청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재신청과정에서 통합심사위원회의 입장을 돌아서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해시킨 것에 있었다. 당시 통합유보 결정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는데 김진원 재무실장이 통합에 대비해 2~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재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심사위원회의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 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통합 유보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어 그 결과 2005년 12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두 대학 간의 통합이 행정적으로 완결되었다.⁵

1삼육동소식, 2005년 3월 25일자, 1.

2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1.

3삼육동소식, 2005년 9월 20일자, 1.

4삼육대신문, 2005년 11월 8일자, 1.

5교회지남, 2006년 1월호, 76; 삼육대신문, 2005년 12월 7일자, 1.

3) 통합대학의 내용들

통합승인과 더불어 삼육대학교는 2006년 신입생부터 통합대학교로서의 학생 모집을 하게 되었다. 통합승인 유보 등으로 다소간 시간이 지연된 점은 있었지만 승인 결정을 예상하고 신입생 모집을 병행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통합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이유는 통합승인을 얻은 뒤 열흘 후인 12월 12일 오후 5시에 서울·경기지역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들을 초청해 ‘삼육대학교 통합 및 정시모집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대학교가 출범하는 2006년 입시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¹ 이렇게 해서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에 통합삼육대학교를 무리 없이 출범시키게 되었다.

두 대학 간의 통합으로 인해 삼육대학교의 위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입학 정원이 1천9백60명에서 1천2백42명으로 7백18명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학과가 4년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5천 명 내외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는 국내의 대학들 중 5천 명 내외의 중간 규모를 가진 종합대학교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대학통합에 따른 편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²

[표 98] 대학 통합에 따른 편제의 변화

구 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감 축
학사조직	삼육대: 3개 학부제 의명대: 16개 학과제	4개 단과대 제도	
모집단위	삼육대: 1개학부, 17개학과 의명대: 16개 학과 합계: 34개	8개학부 13개학과 합계: 21개	13개
입학정원	삼육대: 780명 의명대: 1,180명 합계: 1,960명	삼육대: 770명 의명대: 472명 합계: 1,242명	718명
편제정원	5,720명(1)	5,088명(2)	632명
(1) 편제정원(현안): 삼육대학교 780명X4년=3,120명, 삼육대학교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80명, 삼육의명대학 1,180명X2년=2,360명, 삼육의명대학 3년제 160명 (2) 편제정원(조정안): 1,242명X4년=4,968명,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80명, 5년제 건축학과 40명.			

대학 통합으로 학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학 전체를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의 4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고, 각각의 대학 내에 포함된 학과들은 9개 학부와 12개 학과로 나누었다. 이는 대학 3개 학부와 의명대학 16개 학과의 학사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교회지남, 2006년 2월호, 76.

²삼육대신문, 2005년 9월 1일자, 1.

[표 99] 학사조직 개편안

단과 대학	통 합 전		통 합 후			
	삼육대	의명대	모집단위	세부전공	모집인원	소계
인문 사회 대학	신학과		신학과		40	368
	영미어문학부	관광영어	영미어문학부	영어영문학 영미언어문화	118	
		관광일어 관광중국어	동양어학부	일본어 중국어	60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유통경영과	디지털 경영학부	재무회계 유통마케팅 경영정보	100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유아교육학과		50	
보건 복지 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50(20)	320
	약학과		약학과		50(20)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50(10)	
	식품영양학과	식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50	
	생활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50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40	
	상담학과		상담학과		30	
과학 기술 대학	응용동물학과	동물자원과	동물과학부	동물자원학 동물생명공학	60	354
	원예학과 환경원예디자인		환경원예 디자인학부	원예학 환경원예디자인	75	
	화학과		화학과		40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40	
	컴퓨터과학과	컴퓨터정보과 인터넷과	컴퓨터학부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컴퓨팅	90	
		자동차과	카메카트로닉스		40	
문화 예술 대학	음악학과	음악과	음악학부	성악 관현악 피아노 작곡	70	200
		건축과	건축학과		40	
		광고정보과 산업디자인과 아동미술과	예술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술컨텐츠	90	
소계	18	16	21		1,242	1,242

4) 통합대학교의 발전 전망

통합과 더불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행정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였다. 그동안 인적, 시설적 인프라 및 행정시스템이 이원화되었지만 통합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학교 운영의 일원화가 가능해졌다. 행정

관, 실습실, 특성화 룸, 학생복지시설 등의 시설 인프라에 있어서 통합 전에는 한 캠퍼스 내에 두 개의 시설이 필요하였지만 이제 하나의 시설로 단일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채플, 기도주일, 안식일예배를 포함한 종교행사와 축제 등 학생회 행사들이 역시 단일화되어 학사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통합의 긍정적인 결실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내적인 요인들로 나타났다. 즉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확대와 이미지 재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가 바로 그 결과였다. 통합대학교의 출범으로 삼육대학교는 편제정원 5천 명 수준을 유지하는 중간 규모의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학과 수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학부제 운영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단과대학체제로 대학의 행정을 개편하여 종합대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중심의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무형인재교육 특성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통합에 따른 해결 과제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새로 신설된 학과들의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동안 2년제 수준에서 운영되던 학과들이 4년제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 학과들의 교육과정을 4년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통합 후 의명대학 잔여 학생들의 졸업 등 학생관리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삼육대학교는 통합과 더불어 발생하게 될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통합대학의 출범과 더불어 신입생들을 모집한 후에 대학통합의 긍정적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다. 가장 두드러지게 개편된 조직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3학부제를 4개 단과대학으로 바꾸어 단과대학 체제의 행정을 확립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삼육대학교의 조직은 교목실, 기획조정실, 인력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직속기구와 교무처, 학생지원처,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 본부조직, 단과대학들로 구성된 대학조직, 그리고 대학원 조직 및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학조직은 통합 첫 해에 4개의 단과대학 체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약학과와 신학과는 그 학과의 특성상 독립대학으로 출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학과는 2007년 9월 3일에 약학대학으로, 신학과는 2008년 3월 1일에 신학대학으로 분화되어 총 6개의 단과대학 체제가 되었다.¹

이 외에 대학 내 각 기구들의 역할이 조정되었다. 우선 학생들의 학사업무는 행정지원실에서 대학부속기관인 학생서비스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학사와 관련된 업

¹삼육대학교 요람(2008): 12.

무들(각종 고지서, 증명서 발급, 장학금 및 융자 안내, 수강신청 관련 업무, 유학 및 해외여행 관련 업무 등)과 일반 재무업무 등이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사업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¹ 아울러 기존의 커리어개발센터(취업정보실)와 교수학습개발원을 인력개발원이라는 한 부서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인력개발원은 교수들의 교수법 지원과 연구, 학생들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 교내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개편되었다. 학생서비스센터와 인력개발원의 기능 확대와 함께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연구진흥실과 대학발전기금을 관장하는 대외협력처와 교내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입출국을 포함한 우리대학의 국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문화교육원 등의 기구는 인력보충 등을 통해 전보다 더 기능이 강화되었다.²

조직개편과 함께 발전전략의 추진도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 통합 이행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전전략의 추진과제는 교사(校舍)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해 100주년기념관, 음악관, 뉴스타기념관, 박물관, 국제교육관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했으며, 교수채용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신입교수들을 충원하였다. 이렇게 통합에 따른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삼육대학교의 발전에 대한 전망은 밝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전망은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 주었다.

5. 제2건학을 위한 발전전략(SU-MVP2010+) 수립(2006)

통합 원년인 2006년에 개교100주년을 맞이한 삼육대학교는 제2의 창학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삼육대학교의 발전전략은 1998년에 수립된 ‘Vision100 중장기발전전략’을 기초로 해서 2002년에는 ‘2003~2010 발전계획,’ 2006년 1월에는 ‘Mission100 발전계획’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특별히 2006년 8월에는 ‘Mission100 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통합대학교의 시작과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제2의 창학 정신을 선언하기 위해 구상된 삼육대학교 미래전략 계획인 ‘중장기발전전략 MVP2010+’(이하 MVP2010+)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발전전략은 교수 및 직원 공청회를 통해 2006년 9월에 개교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비전선포식에서 공표됨으로써 삼육대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전략이 되었다.

MVP2010+의 추진 배경은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가진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는

¹학생서비스센터가 주관하던 학사업무는 2008년에 다시 교무처로 이관되었다.

²삼육대신문, 2006년 3월 29일자, 2.

허브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여, 학문과 신앙이 통합된 기독교교육의 전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성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보건복지 특성화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해 최우수대학으로 성장하고, 교육환경 변화와 제정약화에 대처할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었다. 이러한 추진 목적과 추진 방향에 맞춰 연구된 중장기발전전략은 구체적인 미션과 비전과 목표와 함께 SU-MVP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확립되었다.¹⁾

대학의 약어를 SU(Sahmyook University의 약자)로 채택한 삼육대학교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적 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여러 자금 조달 방법을 고려하는 한 편, 학생교육 부문에서 “SU(秀) MVP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²⁾ “SU(秀) MVP인증 프로그램”이란 삼육엘리트 인증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세움분야에서 인성교육과 보건복지교육을, 키움분야에서 국제화교육과 실무형 인재교육을, 나눔분야에서 사회봉사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제시된 조건을 이수한 학생들을 학교가 인증함으로써 높은 미션(Mission)과 넓은 비전(Vision)과 깊은 열정(Passion)을 소유한 믿음직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된 삼육대학교의 학생중심 교육제도를 말한다.

인성교육 분야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작 참여, 채플 참석, 단연단주 교육 이수 및 실천 및 서약, 기타 기본 소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어교육은 토익, 토플, 텡스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거나 SDA외국어학원의 4~6단계 이수,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의 급수시험 합격해야 하며, IT교육 분야에서는 MOS, PCT쪽에서의 일정 수준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교육은 전공별 자격증 취득이나 외부수강 또는 학업성적에 있어서 3.5~4.2의 평점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인증서는 2급, 1급, 최상급 등 3단계로 나뉘며, 2등급은 장학금 30만원, 1등급은 50만원, 최상급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발전전략의 핵심인 특성화전략은 연구 분야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화 분야와 실무형인재양성 분야와 사회봉사분야로 나누어서 수립되었다. 우선 연구 분야로서 보건복지 특성화전략은 차세대 건강사회를 이끄는 보건복지 분야 R&D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특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삼육 밸리(Vally)를 조성하고, 보건복지산업육성 클러스터의 조성 및 연구 활성화를 추구하

¹⁾삼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SU-MVP2010+”에 관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제작한 각종 전략 기획서에 잘 들어 있다. 중장기발전전략(2006), 삼육대학교 발전계획서(2006) 등을 참고하라.

²⁾SU MVP 인증 프로그램이란 삼육엘리트 인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 프로그램으로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삼육엘리트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며, 보건복지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하며, 보건복지대학원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략들을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삼육대학교의 보건복지특성화 사업인 CM (Care Manager)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더 조직적으로 구축해 나감으로써 관련 학과들의 육성과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삼육대학교의 특성화전략의 핵심내용이 되었다.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 창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삼육대학교가 세운 이 발전전략은 결국 학생, 교수, 교육환경, 특성화 분야 등에서 더블 업(Double-Up)의 성장을 달성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꿈과 미래를 담고 있는 핵심 계획이 되었다. 이 발전전략은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을 위한 삼육교육이념을 경쟁력을 갖춘 교육이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이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삼육대학교는 구체적인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건학 제2세기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6장 개교100주년과 대학의 미래

(2006~현재)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06년은 삼육대학교가 삼육의명대학과 통합하여 새롭게 통합 대학교의 역사를 시작한 해이자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두 가지 의미만으로도 2006년이 삼육대학교의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 해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특별히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삼육대학교의 역사는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개교100주년을 맞이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 몇몇 대학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가 개교100주년(2005)을 맞이했고, 숙명여자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삼육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개교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개교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삼육대학교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와 더불어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2006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해에 이 땅에서 100년의 역사를 지나온 삼육교육의 영광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기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한 세기 동안 쌓아온 교육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제2창학이라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21세기 엘리트 허브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¹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삼육교육 100년의 역사 정립, 삼육교육의 정체성 확립, 21세기 삼육대학교의 비전 제시, 삼육대학교의 이미지 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발전 방향 모색 등의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²

100주년이라는 시점이 “뒤를 돌아다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은 그 의미를 살려 100년 동안 진행해 온 삼육교육을 평가하고 나아가 제2창학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³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되어 진행되었는지, 나아가 기념사업을 통해 삼육대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그 역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¹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서, 삼육대학교, 2006년, 11. 이하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자료를 통해서 구성되었다.

²상계서, 12.

³남대극, “개교100주년 기념의 진정한 의미,” 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1.

1.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정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조직된 때는 2004년 5월 25일이었다. 대학 행정협의회에서 조직되어 발족한 준비위원회는 그해 6월 2일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초안을 작성한 후 토론과 협의를 거쳐 7월 12일에 종합기획(안)을 작성하였다. 이 기획안은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보고서’의 모태가 되었다. 종합기획(안)을 작성한 후 기념사업 추진 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준비위원회를 거쳐 11월 12일에 2차 준비위원회에서 제위원회를 승인하고 활동현황을 점검하는 등 기념사업 준비 원년에는 기획 및 조직 등의 기초작업만을 수행하였다.

기념사업 준비 2년이 되는 2005년부터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들에 착수하였다. 우선 사업의 기초가 되는 엠블렘 및 표어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기념사업 계획들을 확립한 후 개교100주년을 향한 본격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엠블렘 및 표어는 2005년 3월 15일에 공모에 들어가 그해 9월 10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엠블렘은 100주년을 상징하는 ‘100’자에 삼육대학교의 UI를 적용하여 삼육교육이념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철학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이 임하는 상황을 연출한 “빛과 비둘기”의 합성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 엠블렘은 김성운 교수팀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엠블렘 및 표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준비위원회는 6월 23일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 명칭을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바꾸고 본격적인 기념사업 추진 작업에 착수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각계(정치계, 관계, 교육계, 재계, 언론계, 재단)의 리더들로 구성된 고문위원과 자문위원(이사장, 동문회장)의 지도 아래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총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서기) 외 각부처실장들과 산학협력단장, 김광규 교수, 남대국 교수, 장용선 교수, 최준환 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2005년 9월 10일 엠블렘의 확정과 더불어 기념사업 전반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각 분과별 세부계획들을 검토하였다. 기념사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세부 분과위원회로는 비전선포준비위원회, 기념행사준비위원회, 기금조성위원회, 기념관건립위원회, 기념예배준비위원회, 학술위원회, 개교100년사편찬위원회, 학생행사준비위원회, 홍보위원회가 있었다. 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별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0]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회	명 단
고문위원	· 정치계: 김영숙 국회의원, 정봉주 국회의원 · 관 계: 서울시장,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노원구청장, 각부서 장관 · 교육계: 각 대학 총장 · 재 계: 기업대표이사 · 언론계: 한국일보 사장, 경향신문 사장, EBS 사장, 내일신문 사장 등 · 재 단: 북아태지회 회장
자문위원	이사장, 동문회장
추진위원회	· 위원장: 총장, 서기: 기획조정실장 · 위 원: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 교목실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김광규, 남대극, 장용선, 최준환
추진팀	· 팀 장: 기획부장, 서기: 기획팀장 · 위 원: 고충기, 권오철, 김논중, 박명덕, 박순향, 배홍진, 신동석, 장귀녀, 장성일
비전선포 준비위원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 원: 김성익, 김현철, 김현희, 이강성, 이재구, 천성수, 최성숙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 위원장: 사무처장 · 위 원: 사무부처장, 교목부장, 학생지원부장, 총무부장, 김영숙 남여생활관장
기금조성 위원회	·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 위 원: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산학협력단장
기념관 건립위원회	· 위원장: 사무처장 · 위 원: 사무부처장, 대외협력부장, 관리팀장, 이태은, 이숙연
기념예배 준비위원회	· 위원장: 교목실장 · 위 원: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신학과장, 교목부장
학술위원회	· 위원장: 대학원장 · 위 원: 단과대학 선임학부장, 교무처장, 신학연구소장
개교100년사 편찬위원회	· 위원장: 교무처장 · 위 원: 권오달, 남대극, 오만규, 이경순, 이창호, 장병호, 정순영 김재신, 유형환
학생행사 준비위원회	· 위원장: 학생지원처장 · 위 원: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학생지원팀장, 총학생회장(삼육대/의명대)
홍보위원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 원: 박정양, 이정식, 김성운, 김영안, 임봉순, 조광현

추진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에 우정국으로부터 개교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승인 받고 본격적인 기념우표 제작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9월 10일에 엠블럼을 확정하고 기념사업 및 분과별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 개교99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10월 10일에 대학 정문에 개교100주년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기념사업 준비 3년차이자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06년을 맞

이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월 9일에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념사업 추진팀을 구성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주관할 주관 부서들을 최종 확정하였다. 추진팀은 2월 14일에 1차 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사업계획 발표 및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였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작성 완료된 것은 2006년 4월 10일이었다. 추진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지 일주일 후인 4월 17일에 종합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수정 보완하여 6월 5일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 계획에 따른 기념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종합계획이 제시한 기념사업의 테마는 기본교육이념에 부합되고, 특성화교육에 어울리는 미래지향성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열린 의미를 담아 “더불어(Double-Up) With You”로 정했다. 즉 “세계와 더불어”(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삼육인과 더불어”(동문, 재학생, 예비 삼육인 화합의 장), “지역사회와 더불어”(지역사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대학)를 중심 테마로 하여 기념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¹

2.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용

기념사업은 크게 중점사업, 기념사업, 향례사업, 단위사업 등 4가지 사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중점사업이란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념사업이란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특별행사 및 사업들을 말한다. 향례사업이란 매년 대학의 행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행사를 개교100주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단위사업은 학생, 학과, 각종 동문회 등 소규모로 추진할 사업들을 말한다. 각 사업 분야별 기념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1]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중점사업 내용

행사명	기 간	장 소	주관부서
개교100주년 기념관 건축	2006. 7~ 2008. 8.	삼육대 (엘리야관)	대외협력처
삼육대학교 100년사 출판	—	—	교무처
비전선포식— Korea Leader Forum(후원의 밤)	9월 14일	메리어트 호텔	기획조정실
학부모 초청음악회	10월 9일	대강당	기획조정실
Home Coming Day	10월 8일	삼육대	총동문회
개교 100주년 기념식	10월 10일	사무엘관 앞	사무처

¹삼육대학교 기획조정실,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서울: 삼육대학교, 2006), 16.

세계 SDA대학 총(학)장 초청 포럼	10월 10일	국제세미나실	대학원
----------------------	---------	--------	-----

[표 102] 개교100주년 기념사업-기념사업 내용

행사명	기 간	장 소	주관부서
개교100주년 영상자료집	4월~11월	-	기획조정실
개교 100주년 화보집	4월~11월	-	출판부
EBS-TV “청소년콘서트”	5. 17	-	기획조정실
전국 고교 미술대회	6. 15~16	삼육대	예술디자인학부
개교100주년 기념교회 개척	6. 10	수락산교회	교목실
D-100일, 성경필사 및 100일기도회	7월	대학교회	교목실
해외선교단 파견	7. 11~ 8. 1	우간다 몽골 중국	신학과,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
오주영 초청 음악회	9. 9~10	대강당	기획조정실
기념 하프 마라톤 대회	10. 1	대운동장	대외협력처
예술디자인학부 교수작품전	10. 4~10	인사아트센터	예술디자인학부
역사 사료전시회	10. 9~13	박물관	박물관
기념우표 전시회	10. 9~13	신학관4층	사무처
기념우표 발행	10. 10	-	기획조정실
운산로 명명식	10. 11	제명호 입구	교목실
창조과학세미나	10. 10	대학교회	지구과학연구소
보건복지 국제세미나	10. 12	국제회의실	산학협력단
개교100주년 기념예배	10. 14	대학교회	교목실
대총회장 방문	10. 15	-	교목실
계척분교 초청예배	10. 21	대학교회	교목실
성경사본 역본전시회	11. 1~11.		

[표 103] 개교100주년 기념사업-항례사업 내용

행사명	기 간	장 소	주관부서
춘계기도주일	5. 8~13	대강당	교목실
총장배 전국 중교 동아리 농구대회	7. 12~19	체육관	생활체육학과
전국 음악 콩쿨	9. 7~8	대강당	음악학부
총장배 유관기관축구대회	9. 24	운동장	사무처
직원 추계기도주일	9. 25~29	바울관 세미나실	교목실
총장배 게이트볼 대회	10. 3	운동장	사무처
비빔밥 기네스 도전	10. 10	솔로몬광장	총학생회
총장배 테니스대회	10. 15	테니스장	사무처
총장배 건강수영대회	10. 22	수영장	사무처
총장배 배드민턴대회	11. 5	체육관	사무처

[표 104]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단위사업 내용

행사명	기 간	장 소	주관부서
-----	-----	-----	------

외국 유명학자 초청세미나 - 게이오 대학교수	3. 22	신학관	디지털 경영학부
춘계학술대회 -2006(사) 한국응용약물학과	4. 22	국제세미나실	보건복지 특성화
국제심포지엄-노인수발보장제도	5. 1	코엑스	산학협력단
국제학술세미나-2006간호춘계학회	5. 3	국제세미나실	간호학과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된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들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역사 및 정체성사업, 문화이벤트사업, 비전선포 및 기념행사, 학술세미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분류에 따라서 기념사업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역사 및 정체성사업

역사 및 정체성사업은 삼육대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100년의 역사를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1) 춘계기도주일(5. 8~13)

2006년 춘계기도주일은 개교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특별한 기도주일로 진행하였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춘계기도주일은 삼육대학교/의명대학의 주간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김상래 목사(교목실장)가, 야간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최경천 목사(교목부장)가 강사가 되어 진행하였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 5:6),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눅 12:57),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6),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6),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행 1:11)라는 매일의 주제를 놓고 학생들에게 말씀의 향연을 베풀었다.¹

설교 말씀과 더불어 교내선교부의 기억절 암송, 연합찬양팀의 솔밭찬양, 삼육대학교 열린청년예배의 헌혈행사, 단연클리닉의 단연캠페인, 동아리연합회의 신앙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신앙 행사들이 함께 진행됨으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2) 수락산예배소 창립예배(6. 10)

¹삼육대신문, 2006년 5월 30일자, 11.

6월 10일 안식일에는 수락산예배소 창립예배가 거행되었다. 수락산예배소는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기념 개척교회 프로젝트에 따라 서중한합회, 노원지역교회, 새로남교회 등과 협력해서 세워지게 되었다. 서중한합회는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지역에 개척사업을 추진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던 중 대학의 개척교회 프로젝트와 힘을 합쳐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의성오피앙 3층 건물을 구입하고 수락산예배소를 최종 개척하게 된 것이었다. 수락산예배소는 30여 평의 아담한 예배당과 다목적관으로 꾸며졌으며, 7호선 전철역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져 있어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의정부시 장암동과 수락산 지역 내에서 선교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창립과 함께 김인환 목사를 예식담임으로 하고 김형준 학생전도사를 파견하여 3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교회는 향후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목회실습교회로 활용할 전략도 수립되어 있었다.¹

3) 해외봉사단 파견(7. 11~8. 1)

매년 하기방학 때마다 파견되었던 해외봉사단 활동이 2006년에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신학과, 예술디자인학부, 건축학과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세계와 더불어”라는 테마에 맞추어 진행된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해외봉사단 파견활동은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타르, 우간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신학과의 경우 재림교단 내에서 세계선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ShareHIM (예수를 나누자는 의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과와 신학전문대학원생으로 해외봉사대를 조직하여 우간다에서 2인 1조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예술디자인학부에서는 간호학과와 연합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한 교회에서 1주일간 봉사활동을 하였다. 활동은 주로 현재 어린이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와 페인팅 등의 아트스쿨 운영,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료봉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축학과에서는 몽골 유목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지에서도 학과 및 신앙그룹 단위의 봉사대 활동이 진행되었다.²

4) D-100일 기도회(7. 2)

2006년 7월 2일 일요일, 삼육대학교의 교직원, 대학교회의 교우들,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교100주년 D-100일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던 대학의 구성원들은 공식적인 개교기념일을 100일

¹재립신문, 2006년 6월 28일자, 7.

²삼육대신문, 2006년 9월 14일자, 5.

앞두고 함께 모여서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학의 영적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다.¹

D-100일 기도회에 이어 7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0일 기도회를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 동안은 동서중한합회에 속해 있는 각 교회들이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0일은 삼육대학교의 전 임직원들이 릴레이 새벽기도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목실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² “다시 읽는 신명기 - 하늘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매일 새벽 6시에 문을 연 이 새벽기도회는 신학과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해 신명기의 각 장별 강해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대학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³

아울러 100주년을 100시간 남겨둔 10월 6일부터 행사당일인 10일까지는 1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를 전개하였다. 100년 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 삼육교육은 10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그 한 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기도가 필요하였다. 이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대학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연합을 다짐하고, 나아가 아낌없는 봉사를 통해 성공적인 10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헌신을 서약하는 시간이 되었다.

5) 추계기도주일(9. 25~30)

추계기도주일에 이어 추계기도주일 역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기도주일은 최경천 목사(삼육대학교)와 김인철 목사(삼육의명대학)가 각각 강사로 나서 “보물섬”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강사들은 기도주일의 설교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인생의 보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였다. 특별히 기도주일 순서지에는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 Gallery”가 실려 학생들에게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말씀과 함께 솔밭찬양, 헌혈릴레이, 어울림 정기공연 등 지속적인 영적 행사들이 진행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은혜와 기도의 향기를 전달해 주었다.⁴

한편 직원들을 위한 추계기도주일이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선진들의 믿음 따른 우리들의 재림신앙”이란 주제로 김상래 목사에 의해 진행된 ‘추

¹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48.

²재림신문, 2006년 7월 19일자, 7.

³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3.

⁴상게서.

게직원기도주일'은 매일 아침 8시에 바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직원들을 기관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봉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결심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경험하였다.¹

6) 역사 사료 전시회(10. 9)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자료 및 사진 전시회가 개교기념일 전날인 10월 9일에 도서관 지하 1층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삼육대학교 100년의 발전사를 사진으로 정리하여 시대별로 전시하였다. 전시된 자료에는 20년대 초기의 의명학교의 전경과 1947년 11월에 제임스 리 목사와 이여식 목사가 엄씨통씨와 함께 지금의 오얏봉에 올라 현대학 부지를 가리키는 사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² 전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삼육교육의 10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삼육대학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발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서적, 화보, 출판물, 유물 등도 사진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어 역사의 향기를 풍성하게 맞볼 수 있는 전시회가 되었다. 이 전시회가 열리는 날 개관행사에는 삼육대학교의 터전을 잡고 삼육신학원을 이끌었던 제임스 리 목사가 함께 참여해 그 역사적인 의미를 더해 주었다.

7) 100주년 감사예배(10. 14)

개교기념일이 있던 주간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10. 14)에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는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홍명관 목사(이사장)와 서광수 목사(총장)를 비롯해 삼육대학교회 성도들과 재학생, 국내외로부터 개교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내외빈과 동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00주년 감사예배는 예향찬양선교단의 경배와 찬양과 더불어 진행된 안식일학교와 대학찬양단의 찬양과 더불어 시작된 설교예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설교예배는 한국연합회장 홍명관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로 진행되었다.³

특히 설교예배가 진행되기 전에 필사성경 봉헌식이 진행되었다. 봉헌된 필사성경은 200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당교회 신자들과 교수, 교직원, 신학생, 청년예배, 상담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362명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나누어 기록한 것이었다. 성경필사대회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교목실(담당:박재만 목사)에서

¹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75.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4.

³상계서, 7.

주관한 행사로서, 성경통독표를 이용해 성경을 필사자의 수로 나눈 후 3번의 회수 기간을 통해 최종 필사내용들을 회수하여 책으로 묶었다.¹ 이렇게 해서 묶여진 필사성경을 100주년 기념예배 때 봉헌하게 된 것이었다. 성경필사대회는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제2세기 교육사업 역시 말씀에 기초해서 추진하겠다는 서약과 다짐의 의미로 진행된 행사였다.

8) 운산로 명명식 및 기념비 제막식(10. 14)

100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된 후 제명호 입구에서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운산로”를 명명하고 기념비를 제막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재림교회의 선교 및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특별히 삼육동의 터전 마련에 기여한 고 이여식 목사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삼육대학교는 대학터전마련 기념사업으로 초기 터전 마련의 공을 세우고 삼육신학원 원장으로 봉사한 제임스 리(한국이름: 이제명)를 기념해 대학 호수를 제명호로 명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명호로 오르는 길을 제임스 리와 함께 대학 터전을 마련한 이여식 목사의 호를 따서 “운산로”(雲山路)로 명명하고 기념비를 세웠다.² 이를 통해 삼육동에 대학 부지를 마련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또 하나의 뜻 깊은 기념물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이날 운산로 명명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여식 목사의 삶과 봉사를 기리는 평전인 “묵묵한 외침”이 김상래 교수에 의해 출간되기도 했다.³ 이 책은 운산로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지침서로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9) 개척 분교 초청예배(10. 21)

개교100주년 기념예배에 이어 10월 21일 안식일 오후 3시에는 대학교회에서 “개척 분교 초청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이 예배에는 삼육대학교가 삼육동에 터를 잡은 이래 학생들의 분교활동 및 대학의 적극적인 개척활동 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초청되었다. 삼육대학교가 이곳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시작한 이래 개척한 교회는 갈매교회, 덕송리교회, 사능중앙교회, 삼안리교회, 새로남교회, 송능교회, 쌍문동교회, 용현교회, 임송호수교회, 중계동교회, 천성교회, 청학교회, 태릉교회, 하계교회, 수락산교회 등이었다. 대학은 개척교회의 성도들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 대학과 더불어 시작하여 오늘의 성장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찬

¹삼육대신문, 2006년 9월 14일자, 6.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4.

³김상래 편, 이여식 목사의 삶과 봉사: 묵묵한 외침을 참고하라.

양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¹

10) 성경사본, 역본 전시회(11. 1~11)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역사 및 정체성 분야의 또 다른 전시회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학관 4층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사본, 역본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과 특별 제작된 여러 성경을 비롯하여 유대인의 두루마리 성경, 가장 오래된 구약사본 중 하나인 알렙포 사본(The Aleppo Codex), 구약 전체가 보존된 최고의 사본으로 일컬어지는 레닌그라드 사본(The Leningrad Codex) 등 남대극 교수가 소장한 성경 역본 및 사본 500여 권이 전시되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대한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세기에 기록된 영어와 독일어 사본, 필름 1장에 성경 66권 전체를 담은 마이크로필름 성경 등 대한성서공회가 보존 중인 희귀자료들도 전시되었다. 아울러 전시된 성경 가운데는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필사본 및 개인 필사본 등도 있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²

11) 삼육대학교100년사 편찬(2008)

역사 및 정체성사업 분야의 일환으로 삼육대학교100년사 편찬사업도 추진되었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대학의 100년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 도약의 시기로 나아갈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년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개교10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집필자 선정 등의 문제로 100년사 편찬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100년사 편찬이 미뤄진 것은 지난 개교9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삼육대학교90년사’가 이미 출판된 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100주년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100년사 정립이 필요성을 간파할 수 없게 되자 대학은 2008년에 개교100년사 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다시 100년사 편찬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2008년 5월 초에 재구성된 개교10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이기갑 교수)는 1차 회의에서 집필자로 이국헌 목사를 선정하고 100년사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³ 편찬위원회는 5월 중순에 2차 회의를 통해 집필자가 제안한 집필 기획안을

¹재림신문, 2006년 11월 1일자, 5.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7.

³재구성된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교외 인사들을 배제한 채 재구성되었다. 재구성된 편찬위원회는 이기갑 교수(위원장), 남대극 교수, 정순영 교수, 권오달 교수, 이경순 교수, 장병호 교수, 이창호 교수, 이국헌 목사(집필자)로 구성되었다.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인 집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기획안에 따라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근대교육의 개척(1906~1931), 수난 속에 뿌리내린 삼육교육(1931~1949), 대학의 체제 구축 및 정체성 확립(1950~1966), 확장 및 발전의 시대(1966~1991), 미래를 위한 도약(1992~현재) 등 다섯 시대로 나누어 본격적인 역사서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히 편찬위원회는 각 시대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매 시대마다 함께 내용들을 교정하는 등 협력사역을 통해 100년사의 내용들을 가다듬었다. 이런 작업과정을 통해 2008년 12월에 삼육대학교100년사가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100년사의 집필작업은 이미 출간된 삼육대학교90년사(집필자: 김재신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출간 작업 자체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100주년의 열망이 사라지기 전에 100년사가 출간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출간된 대학100년사를 토대로 삼육대학교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4. 문화 이벤트사업

역사 및 정체성 분야의 사업과 더불어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업은 문화 이벤트사업이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 이벤트사업은 크게 음악행사, 스포츠행사, 기타 행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각종 음악행사

개교10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문화 이벤트사업은 5월 17일에 EBS 특집방송으로 진행된 청소년 음악회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삼육대학교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과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방송이 주최한 “청소년 콘서트, 아름다운 날들”을 후원하여 청소년 복지를 위한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별히 이 행사는 EBS 교육방송의 특별방송으로 편성 반영됨으로써 개교100주년을 맞이한 삼육대학교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9월 7~8일 이틀 동안 대학 국제회의실과 다목적관 등에서는 전국 고교생과 일반인 총 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육대학교 전국 음악콩쿨”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특별히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여 더욱 더 풍성한 음악축제가 되었다. 피아노,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 이 콩쿨에서 피아노 부문은 염혜정(소명여고) 양, 성악 부문은 손아람(원주삼육고), 작곡부문은 홍민지(서울삼육고) 양이 1등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삼육대학교 음악콩쿨이 끝난 다음 날인 9월 9일 저녁에는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독주회”가 열렸다. 오주영 씨는 재림교인으로 5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해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세계 3,0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미시건주 국제음악캠프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음악 신동이었다. 이후 도로시 딜레이 교수와 강효 교수의 추천으로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LA 필하모닉, 헝가리안 솔로리스트 챔버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미국 카네기 홀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한 무대에서는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초청독주회는 한국 순회연주 도중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연주회였다. 오주영 씨는 1시간 30분 동안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 ‘카르멘 판타지’ 등 세계적인 명곡과 쇼팽의 ‘녹턴’ 등 주옥같은 곡들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선보여 대강당을 가득 메운 3천여 명의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호평과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¹

기념 문화이벤트 중 음악행사의 피날레는 개교100주년 기념식 전야제로 진행된 ‘학부모초청음악회’로 장식되었다. 10월 9일에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개교100주년 기념음악회는 개교100주년의 영광과 기쁨을 학부모들과 함께 하기 위한 특별음악회로 기획되었다. “어게인 100 콘서트”(again 100 concert) 명명된 기념음악회는 본 대학 작곡과 박정양 교수가 작곡한 100주년 기념서곡인 교양시 “탄생”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서울대학교)와 박정원 교수(한양대학교), 베이스 김요한 교수(명지대학교), 테너 김철호 교수(삼육대학교)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특별히 음악회의 사회를 KBS 열린음악회 진행자인 김정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우리소리꾼 장사익 씨의 특별 공연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반주는 김영언 교수가 지휘하는 삼육대 오케스트라가 맡았고, 피아노는 서행철 교수가 직접 맡아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음악회가 개최되어 참석한 3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²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에 시작된 학부모초청기념음악회는 이후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 매년 “SU Concert”란 명칭으로 개교기념일을 즈음해서 진행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또 다른 하나의 문화전통이 수립되었다.

2) 스포츠 행사

2006년엔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스포츠 행사들도 진행되었다. 이

¹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2.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3.

행사들은 매년 진행되어져 온 행사들도 있었고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진행된 것도 있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에 진행되는 모든 스포츠행사들을 개교100주년 기념행사로 특별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기념스포츠 행사는 총장배 전국 중고 동아리 농구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7월 12일~19일까지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농구대회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삼육대학교가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로서 2006년에는 개교10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하였다. 중등부 15개팀과 고등부 27개팀 등 총 42개팀에서 6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중등부는 중원중학교, 고등부는 대진고등학교가 우승하여 영예의 총장배를 안았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대회를 후원한 KBL 전 자랜드의 황성인, 최명도, 전훈중, 표필상 선수가 참석하여 각종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냈다.¹

9월 24일에는 유관기관 초청 총장배 축구대회가 열렸다. 삼육대학교 교직원축구회가 주관하고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SDA삼육외국어학원, 삼육식품이 후원한 이 대회는 삼육대학교팀과 노원구 관내 4개 유관기관팀들(노원구청,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남양주시청)이 참가해 오전 오후로 나누어 풀리그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전반전만, 오후에는 후반전만 진행되는 독특한 방식의 풀리그로 진행되는 독특한 방식의 대회에서 우승은 활발한 공격력을 앞세운 노원구청팀이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홈구장의 이점을 살린 삼육대학교팀이 차지하였다.² 이 행사는 지역 내의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계기를 창출하였다.

10월 1일에는 삼육대학교와 북서울 마라톤클럽이 공동 주최한 제4회 북서울 하프 마라톤대회가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노원구, 중랑구, 남양주시 등 지역주민과 마라톤 동호회원, 지역교회 교인, 교직원 등 남녀노소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마라톤 대회는 삼육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 태릉로를 따라 원자력병원로, 공릉터널, 은행사거리를 지나 별내면을 거쳐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하프’코스, 운동장에서 출발해 선경아파트 앞에서 반환하여 돌아오는 ‘10km’코스, 운동장에서 출발해 서울여자대학교를 되돌아오는 ‘5km’코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원경찰서와 노원모범운전자회가 교통정리 등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였다. 이 행사는 북서울 마라톤클럽이 진행하는 행사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치해서 삼육대학교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총장배 게이트볼 대회, 총장배 테니스대회, 총장배 건강수영대회, 총장

¹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53.

²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4.

배 배드민턴 대회 등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스포츠 분야의 행사로 개최되었다. 게이트볼 대회는 10월 3일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서울시의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와 경기도의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등 10개 시군구에서 약 500여 명의 생활체육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참석하였다. 테니스대회는 10월 15일에 교직원 테니스장과 한국삼육고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다. 기관사역자 및 동문 초청으로 진행된 테니스대회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었는데 2006년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0월 22일에는 제5회 총장배 건강수영대회가 삼육대학교 체육관 수영장장에서 거행되었는데 250명이 출전하여 상급, 중급, 초급, 실버급(50세 이상) 등으로 나뉘서 총 98개임을 진행하는 등 역대로 가장 규모가 큰 수영대회가 되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체육관 주경기장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다. 4회 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에는 70여명이 참가하여 2인 1조의 복식경기 풀리그로 진행되었다.¹

이상의 스포츠 행사들은 대부분 연례행사로 진행되어 오던 것들로 2006년에는 개교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3) 기타 문화행사

음악행사와 스포츠 행사 이외에 몇 가지 문화이벤트들이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전국 고교미술 실기대회와 예술디자인학부 교수작품전, 기념우표전시회 등이 바로 그런 행사들이었다.

전국고교미술 실기대회는 6월 15일~16일 양일간 체육관, 실습실 및 대학 교정 전역에서 개최되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술분야의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신입생 입학전형과 연계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인재 육성의 기회로 삼고자 예술디자인학부에서 개최한 이 실기대회는 석고소묘, 정물수채화, 풍경(수채화, 유화), 수묵담채화, 발상과 표현, 캐릭터, 정밀묘사 부문으로 나누어서 개최되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는 모두 1,116명의 고교생이 참석하여 미술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예술디자인학부 교수들이 함께 연 교수작품전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있었다. “Space100”이라는 작품전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작품전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로 마련되었다. 교수들은 공간(space)이란 아무 것도 없는 허공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장소이며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좌석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Space100”을 구상하였다. 이 작품전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교수 5명과 미술콘텐츠 전공교수 4명의 작품들이 선 보였는데 수채화, 수묵화, 금속예술 등의 장르에서 약 20여 점이 전시되었다.²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

¹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4.

대학교의 통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예술디자인학부는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핵심 학부가 되기 위해서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이처럼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 다른 문화 행사로는 개교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그 기념으로 우표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신학관 4층 소강당에서 열린 우표전시회는 대한우표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역사 100년의 여정을 밝아온 우표들을 비롯하여 수학, 과학에 관한 우표 등 다양한 우표들을 볼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별히 2005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우표전시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각종 우표전시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전시회의 수준을 높였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우표도 전시되어 개교100주년 기념행사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었다. 기념우표는 삼육대학교를 대표하는 건물 중의 하나인 신학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수고한 교양교직과 이정식 교수는 공로패를, 우표수집에 도움을 준 우정사업본부장, 100주년기념우표 디자이너, 우취인연합회 회장 등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¹

10월 10일 낮 12시에는 이색적인 문화행사 중의 하나로 ‘세계 기네스 도전 초대형 비빔밥’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했다. 솔로몬광장에 만들어진 이 초대형 비빔밥은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합 원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비빔밥 콘셉트를 가지고 4,732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하여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도전이 진행되었다. 기존 기록은 전주시가 2004년에 만들었던 2004인분이었기 때문에 세계신기록 도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삼육대학교와 의명대학교 총학생회는 세계신기록 도전을 위해 지름 4.5m, 높이 1.3m의 비빔밥 용기를 만들어 삼육대학생 3,516명과 의명대학생 1,216명을 합친 총 4,732명에 도전하였다.² 이날 한 번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신기록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대학의 통합과 개교10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기념하는 매우 뜻 있는 이벤트가 되어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5. 각종 학술 포럼 및 세미나

해마다 각 학과와 연구소별로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들을 개최하여 왔듯이 2006년에도 항례적인 여러 세미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교100주년을 맞이

²상계서, 6.

¹상계서, 3.

²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9.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세미나들도 개최되어 삼육대학교의 특성화된 학문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개교100년을 맞이해 특별한 기획으로 추진된 포럼 및 세미나의 내용들로는 세계 재림교회 대학 총(학)장 포럼,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 보건복지 국제세미나, 국제신학포럼 등이 있었다.

1) 세계 재림교회 대학 총(학)장 포럼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는 동일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삼육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재림교회 대학의 총(학)장들이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초청되어 특별한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24개국 34개 재림교회 대학의 총(학)장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10월 10일 오전에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00주년을 축하한 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제세미나실에서 “21세기 SDA 대학의 역할과 사명”(The Mission and Role of Adventist Colleges and Universities for 21st Century)이란 주제로 특별한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 총(학)장 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재림교회 대학 총(학)장들은 21세기를 맞이한 SDA대학의 역할과 국제화된 세계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를 나누었다. 앤드리어슨 박사(N.-E. Andreasen, 앤드루스대 총장), 워런 쉉턴 박사(Warren Shipton, 미션대 총장), 체크-야트 폰 박사(Chek-Yat Phoon, 북아태지회 교육부장), 김상래 박사(삼육대 신학과 교수) 등은 발표자로 나와서 SDA 대학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갈 삼육교육의 이상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 주었다.¹

이번 포럼을 총 주관한 남대극 박사는 “SDA교회의 영혼구원의 삶과 같이 SDA대학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젊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서로의 지식과 인력 교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수립하자”라고 호소함으로써 세계 재림교회 대학 간의 연합을 강조하였다.²

2)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

지구과학연구소의 기획으로 실시된 개교100주년 기념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는 10월 11일 대학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이번 행사에는 아트 채드윅(A. V. Shadwick) 박사, 티모씨 스탠디쉬(Timothy Standish) 박사 등 창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이 초청되었으며, “진화론이

¹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117.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3.

아닌 창조과학”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국 남서부삼육대학교의 아트 채드워 박사는 “삼엽충의 신비,” 대총회 지구과학연구소의 스탠디쉬 박사는 “분자생물학에 있어서의 디자인” 등의 강연을 통해 수준 높은 학문적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며, 북아태 지회 지구과학연구소장 최종걸 교수는 “동일과정설은 아직도 유효한가?”를 통해 지질학적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 편 중국 장춘교회의 김영화 선생은 “공산 사회에서의 창조과학”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에서의 창조론 사역의 가능성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창조론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

국제학술대회인만큼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강사들의 답변들도 있었다. 특별히 스탠디쉬 박사의 “분자생물학에 있어서의 디자인”과 관련해 “지적설계이론”의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수준 높은 대회가 되었다.

3) 보건복지 국제세미나

10월 12일에는 과학관 지하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복지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개교100주년을 맞아 삼육대학교의 특성화사업에 초점을 맞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역복지와 케어 매니저 양성을 위한 학문적인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일본사회산업대학교 오하시겐시쿠(大橋讓策) 교수, 본 대학 김영숙 교수, 천성수 교수, 조미숙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사회복지학과 손애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서 오하시겐시쿠 교수는 “새로운 사회복지로서의 지역복지와 커뮤니티 소셜 워크”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 선진국인 일본의 지역복지와 커뮤니티 소셜 워크에 대한 전망을 소개해 주었다. 이어서 김영숙 교수의 “노인수발보험과 재가노인 사정도구 개발,” 천성수 교수의 “욕구에 근거한 지역보건복지계획,” 조미숙 교수의 “노인학대와 케어 매니지먼트”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²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 특성화분야에서 대학의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삼육대학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이 특성화분야와 관련해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을 학문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더욱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상황에서, 그에 따른 특성화전략인 케어 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발표가 이루어져 대학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¹상계서, 6.

²상계서, 6.

4) 국제신학포럼

10월 12일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에서는 신학과, 신학전문대학원, 신학연구소, 선교와사회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국제신학포럼이 개최되었다. “재림교회신학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개교100주년을 맞아 계획된 특별한 국제 학술대회로 신학생들과 한국교회의 신학적 발전에 기여한 행사로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깊었다.

유동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포럼에서 미국 라시에라 대학교의 총장인 게러티(Lawrence Geraty) 박사는 “고고학과 재림교인, 암몬족속”이란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프랑스 살레브 대학교 총장 리샤르 레만(Richard Lehmann) 박사는 “구약에 언급된 남은교회의 모티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삼육대학교의 김성익 박사(신학과)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상황화 신학과 선교”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¹⁾

이 국제신학포럼은 한국 재림교회가 선교100주년을 넘어서고 삼육대학교가 개교10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새로운 신학적 발전을 모색하던 한국 재림교회 신학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다. 강사들은 개교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초청된 세계 재림교회 대학 총(학)장들 가운데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 선별되었다. 이는 개교100주년을 통해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6. 비전선포식 및 기념식 행사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는 개교100주년 ‘비전선포식’과 ‘기념식’이었다. 2006년을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해로 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모든 사업들은 결국 지나온 1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 새롭게 시작되는 제2세기 교육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 마련된 것들이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개교기념일인 10월 10일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다.

1) 비전선포식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발전전략을 선포하는 “비전선포식 및 후원의 밤” 행사는 9월 14일에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개최되었다.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수립한 MVP2010+ 발전전략에 따른 삼육대학교의 제2세기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 미래 삼육교육의 발전을 위한 후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특별 이벤트

¹⁾상세서, 6.

에서 삼육대학교는 “글로벌 엘리트 허브대학”으로서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교육 특성화 패러다임을 공개하였다. 김영숙 국회의원, 정봉주 국회의원, 이노근 노원구청장, 박명훈 경향하우징 대표 등 정·재계 및 학계 인사를 포함해 삼육대학교 교직원 및 동문들 6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신영일 KBS 아나운서와 김선미 재림마을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비전선포식”과 2부 “후원의 밤”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¹

1부 “비전선포식”에서 서광수 총장은 “미션(Mission)과 비전(Vision)과 열정(Passion)을 가진 미더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의 꿈을 제시하면서 MVP2010+발전전략을 통하여 더블 업(Double-Up)의 발전목표를 이뤄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천이 담긴 7개항의 ‘비전선포문’을 낭독하여 삼육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공식 선포하였다. 그 비전선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비전선포문

한 세기 동안 숭고한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구현해 온 삼육대학교는 오늘 개교100주년에 즈음하여 ‘MVP2010+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가진 글로벌 엘리트를 양성하는 새로운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 01 삼육대학교는,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기독교 교육의 전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02 삼육대학교는, ‘MVP2010+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엘리트 허브 대학을 구현한다.
- 03 삼육대학교는, ‘SU(秀)MVP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생들을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겸비한 미더운 지도자로 성장시킨다.
- 04 삼육대학교는, ‘특성화 1-5-1전략’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 05 삼육대학교는, ‘MVP2010+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교수연구, 학생교육, 교육환경분야에서 더블 업(Double-Up)의 성장을 이룬다.
- 06 삼육대학교는, ‘ISO 9001’을 근거로 한 경영합리화의 추진과 수익의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 07 삼육대학교는, 고유한 교육이상을 가진 대학으로서 우리 민족의 구원과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2006년 10월 10일

이 비전선포문은 전 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삼육대학교의 중장기발전전

¹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1.

²삼육대학교 개교100주년 기념화보집, 17.

략인 ‘MVP2010+ 발전전략’을 기초로 해서 마련된 것이었다. 비전선포와 홍명관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박두한 기획실장에 의해 발표된 삼육대학교 중장기발전전략에 위의 비전들이 담겨져 있다. 삼육대학교는 이 발전전략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미래 교육의 특성화를 창출해 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2부에서 진행된 후원의 밤에서는 다양한 음악 순서로 꾸며졌으며 홍보대사 위촉과 학교발전 기금모금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희암 인천전자랜드 농구팀 감독, 텔런트 친구 씨(삼육의명대 동문), 시인 자운영 씨, 신영일 아나운서, 김여진 YTN 앵커, 학생대표 이미화(영미어문학부 3년) 등 6명이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와 함께 거행된 기금모금 시간에는 학교발전기금에 참여한 강진숙 집사와 고 전은옥 여사의 기부사연이 소개되어 감동을 주었다.¹ 이날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서 수억 원의 발전기금이 모금되기도 했다.

2) 개교100주년 기념식

비전선포식이 미래의 전략을 제시하는 행사였다면 개교100주년 기념식은 지난날의 영광을 돌아보면서 10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경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사였다.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신영일 아나운서와 김여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사무엘관 앞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린 기념식은 “창조주 신앙과 예수 재림의 복된 기별”이라는 건학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세계 자매대학 총(학)장 등 학계 인사와 정관계 인사, 교계 지도자 및 동문들과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²

세계 여러 대학과 나라들의 깃발 150여 개가 입장하는 기수단과 내외빈의 입장을 시작으로 개막된 행사에서는 서광수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홍명관 이사장,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심태섭 동문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삼육대학교의 100년의 역사를 영상을 통해 보면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새기는 100주년 히스토리 영상과 미래를 전망하는 100주년 테마 영상 등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기념식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한 장근청 교수(신학과 동문, 현 로마린다 대학교 의대 교수)에 대한 명예 이학박사 학위 수여식과 아울러 자랑스러운 삼육인상(수상자: 김관호 목사, 최희만 동문) 수상식도 거행되었다.³

기념식의 본행사가 마쳐진 직후 개교100주년을 축하하는 헬기 비행과 꽃가루 살포,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 등이 깜짝 이벤트로

¹삼육대신문, 2006년 10월 10일자, 1.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1.

³재림신문, 2006년 10월 18일자, 1.

진행되었다. 기념식을 통하여 삼육대학교는 지나온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조명하는 뜻 깊은 순서를 가졌다. 한편 이날은 개교기념일로 총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천보축전 행사들과 각종 포럼 및 세미나가 개최되어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었다.

7. 기념건축물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는 백주년기념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외에도 개교100주년과 함께 한국재림교회의 선교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음악관도 지어졌다. 이 두 건축물은 개교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건물로서 앞으로 삼육대학교 미래 도약의 역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개교100주년 기념으로 박물관 건립도 추진되었다. 백주년기념관이 개교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이 되고, 음악관이 선교10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이 되었듯이 박물관은 삼육대학교 문화의 심장으로서 대학의 미래를 상징할 건물로 자리할 예정이다. 이 기념건축물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 백주년기념관

개교100주년을 기념하는 백주년기념관은 개교기념일 전날인 10월 9일 철거된 엘리야관 터에서 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역사적인 건축이 시작되었다. 백주년기념관은 삼육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을 맞이해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한 분과로 조직된 100주년기념관 건립위원회(위원장: 대외협력처장)는 세부적인 기념관 건립계획을 세워 엘리야관 부지 위에 백주년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학생들이 방학을 한 후인 2006년 7월에 엘리야관을 철거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1971년도에 신축되어 한 동안 삼육대학의 대표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도 포함되었던 엘리야관은 30년 역사를 품은 채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다.¹

건립위원회는 본 건물의 설계를 (주)인선에 맡기고, 시공은 (주)보미종합건설, CM 및 감리는 (주)HP한미파슨스에 맡겨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돌입하였으며, 개교기념일 전날인 10월 9일에 건축기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행정관”과 지상 3층 규모의 “국제교육관” 건축을 시작하였다.² 건축 시 발생하게 될 소음과

¹삼육대신문, 2006년 3월 29일자, 1; 삼육대신문, 2006년 9월 14일자, 3.

²삼육대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3.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시작된 백주년기념관은 착공 1년만인 10월 22일 준공식과 더불어 완성되어 삼육대학교의 100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상징 건물로 우뚝 솟았다.¹

이렇게 건축된 백주년기념관은 행정관과 국제교육관으로 이루어진 두 동의 건물을 연결한 것으로 총 6,400m²의 연면적에 총공사비 88억 원이 소요된 단일건물로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 지하1층 지상 4층 구조로 이루어진 행정관은 연면적 5,098.96m²(지하 376.36m², 1층 1,337.62m², 2층 1,154.54m², 3층 1,167.56m², 4층 1,062.88m², 옥탑 79.68m²)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층은 교무처와 학생지원처, 재무실, 2층은 총장실과 기획실, 총무과 및 교수연구실, 3층은 소회의실, 대외협력처 및 교수연구실, 4층은 전산실과 관리과 및 교수연구실로 사용되는 종합행정관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행정실과 연결된 국제교육관은 연면적 1,316.38m²(1층 369.62m², 2층 423.17m², 3층 523.59m²)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로 구성되었고, 3층에는 첨단 통역장치, 음향기계실 등을 갖춘 국제회의실로 꾸며졌다. 이 국제회의실은 백주년기념관 건축을 위해 거액의 발전기금을 회사한 장근청 박사를 기념해 “장근청 기념홀”로 명명되었다.²

백주년기념관의 건축으로 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의 내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징 건물까지 갖추으로써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건물은 삼육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역사적 기념물로 손색이 없는 위용을 갖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이 완공됨으로써 학생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강의실 문제와 각종 시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³ 이 모든 것이 개교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더 빛내주었다.

2) 선교100주년기념관(음악관)

음악학과 학생들의 전용건물이 될 음악관은 2007년 8월 30일에 착공되어 2008년 5월 14일에 완공되었다. 남생활교육관 정면 언덕 부지에 터를 잡고 공사를 시작한 음악관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선교100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여 건축이 추진되었다. 이로써 삼육대학교 안에는 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과 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에 이어 선교100주년기념관(음악관)이 들어서게 되었다.⁴

¹삼육대신문, 2007년 12월 7일자, 1.

²삼육대신문, 2007년 12월 7일자, 1. 자세한 건축 규모는 총무과 보관서류인 일반건축물대장을 참고하였음.

³삼육대신문, 2006년 3월 29일자, 1.

⁴삼육동소식, 2007년 9월 3일자, 1.

음악관은 의명건설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건물의 규모는 연면적 1,649.89m²(1층 643.02m², 2층 444.02m², 3층 562.85m²)이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건물로 총 23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되었다. 3층으로 이루어진 음악관은 강의실 3개, 교수연구실 7개, 연습실 24개, 레슨실 16개, 합주실, 작곡실, 조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2008학년도 2학기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¹

음악관의 신축으로 음악학부는 이제 단독건물을 갖추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음악학부는 음악관과 더불어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음악교육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통해 세분화된 학습 과정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할 수 있는 음악인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음악관의 건축은 1981년에 음악교육과가 개설된 이래로 30여 년 동안 소원해왔던 꿈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서광수 총장이 준공예배의 환영사에서 언급했듯이 개교100주년의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했다.² 음악관이 완공됨으로써 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3) 박물관 건립 계획

삼육대학교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된 것은 2000년 10월 10일이었다. 이날 개교 94주년을 맞이해 도서관 지하 열람실을 개조해 박물관을 만들고 첫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박물관 개관은 그해 2월에 당시 도서관장인 남대극 교수의 노력으로 본교의 학부모인 김건호 장로가 소장하고 있던 유물 약 2,000여 점을 기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토기, 돌도끼, 주먹도끼, 고려청자, 백자, 분청사기, 목가구 제품, 서예 및 서화, 고문서 등 선사시대로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시대(일제시대) 등의 유물을 갖춘 작지만 의미 있는 삼육대학교 박물관이 시작되었다.³

이런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물관은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비전은 김건호 장로에 의해 기증된 기증유물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역사자료실 외에도 각종화석 자료를 중심으로 한 창조과학 자료실, 다양한 성경고고학 자료들로 구성된 성서고고학자료실, 교회와 학교의 역사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사 자료실 등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삼육대학교 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이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이에 유물들을 보관할 장소

¹삼육대신문, 2008년 6월 9일자, 1.

²상계서.

³삼육대신문, 2000년 10월 25일자, 5.

가 협소하고 보관 및 전시시설이 열악해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는 개교100주년에 즈음해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박물관 건립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박물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부지 확보, 건축자금 확보, 유물 수집 등 3 가지의 핵심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하였다. 이 일을 위해 총동문회는 대학측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건축부지는 대학이 제공하고 건축비는 총동문회가 기금마련을 통해서 담당하기로 하고 박물관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동문회는 2005년부터 개교100주년을 위한 동문회의 숙원사업으로 박물관 건립을 확정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13,000여 동문들에게 회보와 개인적인 접촉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홍보에 돌입하였다. 특별히 2006년 들어서서는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해 대학 측과 부지를 협의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동문회는 2006년 7월에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그로브에 살고 오세만 여사의 자녀들로부터 고인의 뜻이 담긴 유물과 고미술품 11점을 기증받았다. 옥비녀(조선), 와당(백제), 토기화로(삼국), 백자소호(조선 15C) 등 고미술품 11점과 초기 한국 재림교회 설립에 공헌한 구니야 히데 목사의 육성 설교테이프, 한국인들을 위한 설교문 등 다양한 교회사 자료들이 포함된 이 유물들은 감정결과 모두 진품들로 평가되어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다.¹ 이처럼 유물을 기증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건축허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박물관 건축사업은 개교100주년을 넘기게 되었다.

2007년에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채 설립계획만을 모색하던 총동문회는 2008년 7월 8일에 3억 원을 들여 사해사본 유물 및 초기 기독교 역사 유물들을 구입함으로써 박물관에 소장될 유물 수집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었다.² 이때 구입한 사해사본 유물들은 2008년 초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전시되었던 전시품들로 유물전이 마친 후 총동문회가 구입해 삼육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구입한 유물들 중에는 이사야서(1QIsa), 하박국 주해서(1QpHab), 공동체 규율집(1QS), 이사야서 주해서(4QpIsb), 증언집(4QTestimonia), 코헬렛(1Q109), 가야바 대제사장의 유골함, 빌라도 헌정비, 콘스탄티누스 훈상 등과 같은 주요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³

이 외에도 남대극 교수가 수집해 온 500여 점의 성경사본 및 역본들과 300여권의

¹삼육대학교총동문회보, 2007년 10월 10일자, 4.

²사해사본 유물 구입은 박물관장 대우로 봉사하는 김건호 장로의 노력과 총동문회의 자금 출연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³삼육대학교총동문회보, 2008년 10월 17일자, 4.

성경연구 자료들도 박물관의 건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총동문회의 이러한 유물 수집과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지 선정 및 건축 허가가 늦어져 박물관 건립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박물관 건립은 좀 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개교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8. 언론의 평가와 삼육대학교의 미래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은 삼육대학교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던 해였다.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매체는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5월 9일자 교육/입시 면에서 보건복지교육 등 4대 특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육대학교를 소개하면서 개교100주년을 맞아 제2의 창학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

7월에는 개교100주년을 맞아 “세계와 더불어”라는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5개국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벌인 삼육대학교의 소식이 세계일보와 헤럴드경제 등에 실렸다. 세계일보는 “올 10월 개교100주년을 맞는 삼육대(총장 서광수)가 ‘세계와 더불어’라는 기치 아래 몽골, 우간다 등 5개국에 학생봉사단을 파견한다”고 소개하였으며, 헤럴드경제 역시 같은 기사를 인물 면에 게재하여 삼육대학교의 활동상황과 개교100주년의 역사를 전했다.²

개교100주년을 맞이한 비전선포식에 대한 기사 또한 빠지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9월 13일에 삼육대 개교 100주년 비전선포식에 대한 기사를 인물면에 사전 보도하였다.³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은 9월 14일에 진행된 비전선포식에 대한 기사를 인물면과 교육/입시면에 각각 게재하였다.⁴ 특별히 한겨레신문의 경우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제2 창학을 선포하면서 보건복지·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삼육대학교의 비전선포의 의지를 전하면서 비전선포식 기사를 비교적 간단하게 보도하였다.⁵

한편 경향신문과 헤럴드경제, 동아일보 등은 인물과 사회면을 통해서 개교100주년을 맞은 삼육대학교의 총장인 서광수 박사와의 대담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향신문의 경우 “5정운동으로 보건인 양성 요람을 만들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삼육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서광수 총장과의 대담 기사를 보도했다.⁶ 헤럴드경제 역시 총장과의 인터

¹조선일보, 2006년 5월 9일자, D2.

²세계일보, 2006년 7월 4일자, 28; 헤럴드경제, 2006년 7월 5일자, 25면.

³경향신문, 2006년 9월 13일자, 21.

⁴한국일보, 2006년 9월 16일자, 25.

⁵한겨레, 2006년 9월 18일자, 20.

뷰를 소개하면서 개교100주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삼육동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별히 총학생회에서 준 감사패를 잊을 수 없다는 총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인성교육과 보건복지교육 특성화를 비전으로 내세운 삼육대학교의 모습을 소개하였다.¹ 동아일보 역시 개교100주년을 맞는 삼육대학교의 총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미더운 리더를 키울 것”이라는 서총 장의 의지를 전하면서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각종 소식들을 보도하였다.²

드디어 개교100주년이 되는 10월 10일에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삼육대학교의 개교10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삼육대학교의 교육의 역사를 소개하였다.³ 각 신문들은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삼육대학교의 역사 및 행사 이벤트들을 소개하면서 삼육대학교가 강조하는 인성교육, 보건복지교육 특성화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였다. 특별히 세계 34개 대학 총(학)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것 등의 행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비빔밥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 역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처럼 개교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삼육대학교의 비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았다. 이는 곧 100년의 기간 동안 교육사업을 이끌어 온 삼육대학교의 역사를 주목한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각오로 또 다른 세기를 준비하는 삼육대학교의 비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삼육대학교는 개교100주년 행사를 통하여 대학의 과거와 미래를 한국사회에 소개함으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제 삼육대학교의 미래는 지금까지 보여준 그 비전들을 실현하는 여부에 달렸다. 개교100주년의 역사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삼육대학교가 준비한 것은 바로 그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지였다. 이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삼육대학교는 이제 개교100주년을 넘어서 또 다시 맞이한 새로운 한 세기의 역사를 향해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다.

⁶경향신문, 2006년 9월 25일자, 25.

¹헤럴드경제, 2006년 9월 27일자, 25.

²동아일보, 2006년 9월 28일자, 31.

³개교100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한 언론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10월 9일자, 14), 서울신문(10월 10일자, 29), 문화일보(10월 10일자, 26), 내일신문(10월 10일자, 19), 한국일보(10월 10일자, 12), 경향신문(10월 10일자, 23), 한겨레신문(10월 10일자, 23), 동아일보(10월 11일자, 31), 조선일보(10월 11일자, 30), 문화일보(10월 13일자, 30).